

이스라엘 대국

[창세기 읽기]

테헤란

시리아

다마스쿠스

텔아비브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창 15:18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 아브라함 ☆
야훼(YHWH)가 주신 땅과 나라에 대한
언약(Brit)을 믿고(Emunah)
최초로 희망(Tikvah)을 품은 여러 민족의 조상

☆ 유대민족 ☆
그 희망(Ha-Tikvah)를 믿고(Emunah),
그 희망을 성취시킬 모שי아크(Moshiach)가
지금 오고 계시다고 믿는 민족

창세기 15장 1-21절

[1]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15장 1-21절

[4]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1-21절

[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창세기 15장 1-21절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 1-2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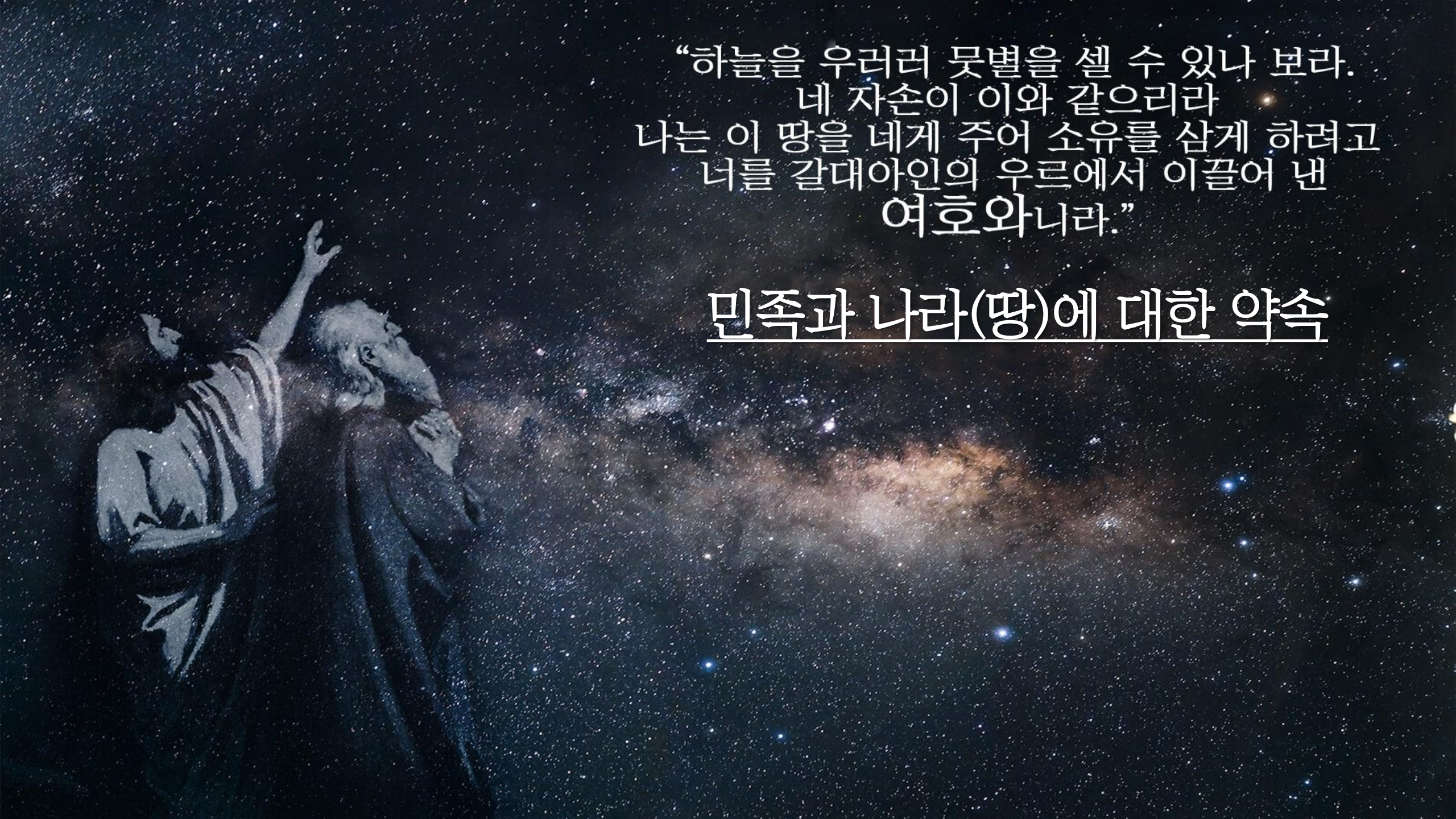
[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헛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20]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늘을 우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민족과 나라(땅)에 대한 약속

창세기 15장 :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17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When the sun had set
and darkness had fallen,
a smoking firepot
with a blazing torch appeared
and passed between the pieces.



공동체
성경 읽기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창세기 15장 :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On that day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m and said,
"To your descendants
I give this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to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



공동체
성경 읽기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유브라데 강

애굽 강

이스라엘 대국

테헤란

시리아

다마스쿠스

텔아비브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창 15:18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 아브라함 ☆
야훼(YHWH)가 주신 땅과 나라에 대한
언약(Brit)을 믿고(Emunah)
최초로 희망(Tikvah)을 품은 여러 민족의 조상

☆ 유대민족 ☆
그 희망(Ha-Tikvah)를 믿고(Emunah),
그 희망을 성취시킬 모시아크(Moshiach)가
지금 오고 계시다고 믿는 민족



Hittites

Hittites
헷

Euphrates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Kadmonites
갓몬

이스라엘 대국
Promised Land

Perizites
브리스
가나안

Ammonites
암몬

유프라테스 강

나일강

Canaanites
여부스
Jebusites
Kenites
겐

Unlocated on map:

- Kenizzites
- Rephaites
- Girschites

그니스
르바
기르가스

위치 불확실

약속의
땅에
대한
유대인
들의
생각



약속의
땅에
대한
유대인
들의
생각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시면
이 만큼의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늘을 우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아브람의 믿음(에무나 **אמונ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과 충실함



바울의 구원하는 믿음(피스티스, ΠΙΣΤΙΣ)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고백하는 믿음

회심의 과정(김효숙, 1990_석판화)



반항



회심



안식

✧ 그리스도인의 믿음(피스티스+에무나=신뢰+신실) ✧

성경은 민족과 나라(땅)에 관한 말씀

구약성경의 옛 언약 : 문자적으로 히브리(유대)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 흥망성쇠와 궁극적 회복 곧 다가올 세상(Olam Ha-Ba)에 관한 것.

믿음과 생활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옛 언약 곧 '그 희망'(Ha-Tikvah)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실천하는 것.

신약성경의 새 언약 :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세계). 구약성경의 옛 언약을 예표(모형, 그림자)로 이해하여 유대민족과 가나안 땅의 경계를 허물어 민족색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최후 승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다가올 세상(Olam Ha-Ba)에 관한 것.

믿음과 생활 :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곧 '그 희망'(Ha-Tikvah)의 끈을 놓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사랑)을 실천하는 것.

창세기 15장 1-21절

하나님의 햇불언약

-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네 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1-5절은 후사(민족)에 대한 약속이고,
- 6-11절은 언약체결을 위한 준비이며,
- 12-16절은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고,
- 17-21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가나안 영토(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하나님의 햇불언약

- **첫째**, 후사에 대한 약속에서 하나님은 **이상 중에서** 아브람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 쪽에서 하나님께 하는 신앙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서 아브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써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하나님의 햇불언약

-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데에 따른 아브람의 불안과 초조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몸은 늙어가고 자손은 없고 약속이 이뤄질 희망은 보이지 않고, 아브람의 불안은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 2-3절은 **아브람의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하나님의 햇불언약

- “나는 너의 방패요”란 말씀은 아무리 큰 환난이나 위험이나 백발백중의 불화살이나 뚫지 못할 것이 없고, 베이지 아니할 것이 없는 창점이라도 온 몸으로 막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는 말씀은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 아브람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충실하고 신실한 종으로써 훗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냄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늙은 종입니다.
-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4-5절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을 때, 의심치 않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수룩한 것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수룩한 믿음을 6절에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하나님의 햇불언약

-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여러 차례 아브람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브람의 어수룩한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하나님의 횃불언약

- **둘째, 언약체결**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를 축복인 것을 아브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써 일명 **'횃불언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7절에서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다.”고 했을 때, 아브람은 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고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하나님의 햇불언약

-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 아브람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한 채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솔개가 채 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 창세기 15장의 **햇불언약**은 고대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언약체결방식**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 주전 3,000년 중반의 수메르(Sumer) 문서와 마리(Mari)문서, 고대 아카드어 문서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약체결방식으로써 보통은 **쌍무계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언약을 맺고 그것을 입증하는 의미로 짐승을 쪼개어 놓고 쌍방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쌍방 중 한 편이 언약을 위반했을 경우 그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쪼개지는 것과 같은 참혹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엘람어로 쓰인
조약문서(루브르 박물관)

수사(이란)에서 발견된 주전
2250년경 엘람어
조약문서로써 아카드
(바그다드 지역)의 왕
나람신(Naram-Sin)에게
아완(엘람)의 통치자
기타(Khita)가 충성과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맹세문이다: “나람신의 적은
나의 적이고, 나람신의
친구는 나의 친구이다.”



창세기 15장 1-21절

하나님의 햇불언약

-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의 **햇불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리사랑에 기초한 **편무계약**으로써 고대근동지방의 쌍무계약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햇불'만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이는 쌍방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고대근동지방의 계약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하나님의 횃불언약

- 언약체결의식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불변의 약속**이란 점입니다.
- 특히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일방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일컬어 **편무계약**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 언약의 성격은 쌍방적인 것이지만, 피조물인 사람은 그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 언약의 성격상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 것이라는 자기 선언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하시며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따른 것입니다.

절실한 아브람의 희망(Tikvah)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취하는 은총

창세기 15장 1-21절

- 에덴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훈계의지와는 달리**, 그 당시 아브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언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가부결정이 아니라, 그 체결된 언약과 표징을 받아들이는 **신실한 믿음 뿐(Sola Emunah)** 이었습니다.
-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소박하고 어수룩한 믿음이 우리의 희망을 이루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하나님의 햇불언약

- 셋째,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될 것과 그 기간이 사대 사백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는 부분입니다.
- 출애굽기 6장 16-20절에 의하면, 아브람의 증손 레위가 1세대, 레위의 아들 고탕이 2세대, 고탕의 아들 암람이 3세대, 암람의 아들 모세가 제4세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아무리 족장들의 시대라 하더라도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기에는 성서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하나님의 햇불언약

- 그래서 이 구절을 아브람이 가나안에 입국한 때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때까지를 대략 400년 또는 430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 이 견해대로라면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기간을 215년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이미 2천 년 전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입장(210년)입니다.

- **스데반(행 7:6)**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 것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14절과 출애굽기 12장 40절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그러나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까지를 430년으로 보고 있고,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간 이후 탈출 때까지를 2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215년설**--첫째, 언약 때부터 이집트 입국 때까지가 215년이 됩니다. 이삭이 출생하기 25년 전에 약속을 받았고(창 12:4; 21:5), 야곱의 출생은 이삭이 60세 때였습니다(창 24:26).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에 입국하였습니다(창 47:9). 따라서 $25+60+130=215$ 년입니다.

- 둘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콕틱 개역, 그리고 사마리아인 모세오경에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지방과 이집트에서의 거주 기간이 모두 430년이라는 뜻입니다.
- 셋째, 4대의 족보로는 215년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창 15:16). 창세기 46장 8, 11절에 의하면, 야곱이 레위를 낳았고, 레위가 그핫을 낳았고, 그핫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은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핫은 133세를 살았고,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으며, 모세는 80세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따라서 4대로는 400년이 산출될 수 없습니다(출 6:18,20; 7:7).

- **400년설**--**첫째**, 출애굽기 12장 40절은 430년간의 종살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둘째**, 역대기상 7장 22-27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으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10세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셉 → 에브라임 → 레셉 → 델라 → 다한 →
라단 → 암미훗 → 엘리사마 → 눈 → 여호수아

- 한 세대를 4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400년이 산출된다.

TIMELINE OF THE JEWISH PEOPLE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our days.
Its crucial moments, a table provided by the Torah-Box team.

10 GENERATIONS FROM ADAM TO NOACH

From -3761 to -2706

10 GENERATIONS FROM NOACH TO AVRAHAM

From -2706 to -1814

Création of the world-Adam Harishon

-3761

100 years

Birth of Noach

-2706

Flood

-2106

Birth of Avraham

-1814



Tabernacle (-1314) to (-834)



1st Temple (-834) to (-424)



2nd Temple (-354) to (67)

PATRIARCHS

From -1814 to -1507

ISRAEL IN EGYPT

From -1524 to -1314

ISRAEL IN THE DESERT

From -1314 to -1274

THE JUDGES

From -1274 to -881

THE KINGS

From -881 to -424

THE GREAT ASSEMBLY

From -424 to 314

TANNAIM

From 314 to 187

Binding of Isaac

-1677

Yaakov arrives in Egypt

-1524

Exodus of Egypt

-1314

Giving of the Torah

-1274

Entry of the Israelites in the Land of Israel

Kingship division

-798

End of the King period

-557

Purim miracle

-357

End of prophecies

-314

Chanukah miracle

-140

Completion of the Mishnah

187

Moshe Rabbeinu

Samuel the Prophet

Yirmiyahu

Ezra the Scrib

Rabbeinu Hakadosh

AMORAIM

From 187 to 499

SAVORAIM

From 499 to 688

GEONIM

From 688 to 1039

RISHONIM

From 1039 to 1491

ACHARONIM

From 1491 to 1939

Completion of the Jerusalem Talmud

367

499

Completion of the Babylonian Talmud

Rabbi Hai Gaon

Rashi

Rambam

Rosh

Expulsion from Spain

1491

Rabbi Yosef Caro

Shoah

1939

Chofetz Chaim

이스라엘의 연대기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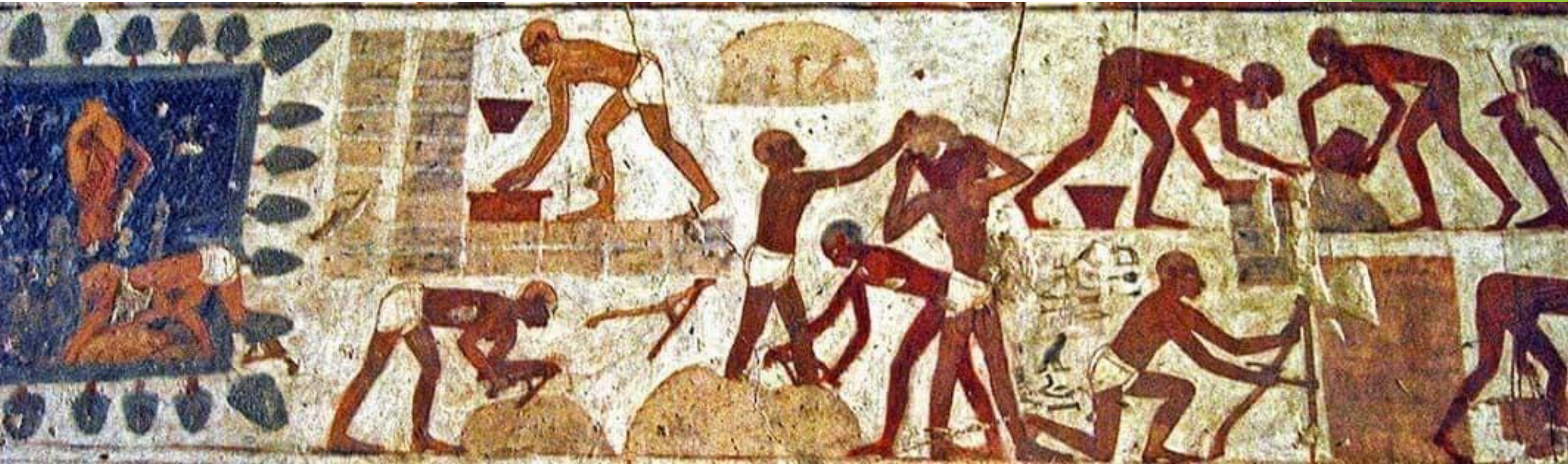
- 유대교 랍비들은 **구약역사를 3761년**으로 보고 있고, 지난 10월 2-3일과 지난 주 16-23일에 각각 **신년과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2024년 10월말 현재를 **아담창조이후 578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기력으로 2024년 10월은** 히브리력으로 5785년의 첫 번째 달입니다.
- **5785년은** 구약시대 3761년에 서기력 2024년을 더해서 나온 숫자(3761+2024)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집트에서의 거주 기간

유대교 히브리력: 210년

보수 그리스도교: 430년

***두 종교간 차이: 220년**



- 랍비들은 주전 1524년부터 1314년까지 **210년간 이집트에서 억압상태**로 있다가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으로 봅니다.
- **보수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야곱의 출생연도를 아담창조 후 2168년(창 5, 11장) 곧 **주전 2006년**으로 보고,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연도를 주전 1446년으로 보면, 야곱이 가족과 함께 130세에 애굽에 입국하였고, 그의 후손이 430년간 애굽에 거주했다고 해석됨으로 **구약시대의 기간은 총 4174년 (=2168+130+430+1446년)년**이 됩니다.
- **유대교 랍비들은** 구약시대를 3761년으로 해석함으로 그 차이(4174-3761년)가 무려 **413년**이나 생깁니다.

- 보수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는 아담창조이후 2008년 곧 주전 2166(=4174-2008)년이 됩니다.
-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를 아담창조이후 주전 1814년으로 봅니다.
- 이로써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는 그리스도교에서 보다 유대교가 352년이나 짧습니다.
- 게다가 유대교에서는 아담창조이후 아브라함의 출생 때까지의 기간이 1947(=3761-1814)년간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창세기에서 산출한 2008년간보다 61(=2008-1947)년이나 짧습니다.

- 그러므로 유대교에서의 구약시대기간은 그리스도교에서의 구약시대기간보다 **413**(=4174-3761/=352+61)년이나 짧습니다.
- **야콥의 출생연도**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볼 때, 주전 2006년이고, **애굽입국연도**는 주전 1876(=2006-130)년이 됩니다. 반면에 유대교 입장에서서는 각각 기원전 1654년과 1524년이 됩니다. **352년**이나 짧습니다.
- 또 그리스도교에서는 출애굽연도를 주전 **1446년**으로, 유대교에서는 기원전 **1314년**으로 봄으로써 그리스도교보다는 **132년**이나 늦게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 보수 그리스도교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애굽 거주기간을 430년으로 보는 반면, 유대교 랍비들은 210년으로 보기 때문에 랍비들의 입장에서 출애굽연도가 220년 빨라져 그리스도교의 주장보다는 132(=352-220)년 늦게 있었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출애굽 이후 솔로몬의 사망 때까지의 총 기간은 양측이 모두 515년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기간을 주전 1446-931년 사이로, 유대교에서는 기원전 1314-799년 사이로 본다는 점에서 여전히 132년의 차이가 생깁니다.
- 그리고 랍비들은 그리스도교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이 짧아진 132년만큼이나 유다왕국의 존속기간을 짧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에서는 유다왕국의 존속기간이 주전 930년부터 586년까지 이므로 344년간이 됩니다.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기원전 798년부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사망한 해로 추정되는 557년까지로 봄으로 241년간이 됩니다.
- 전통에 따르면 유다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네부카드네자르(느부갓네살) 2세가 기원전 562년에 사망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참고: [The Last King of Judea \(jewishhistory.org\)](http://TheLastKingofJudea.jewishhistory.org)] 유대교 랍비들이 왜 시드기야가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사망하고 나서 5년이 지난 기원전 557년까지 생존했다고 보는지는 자료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21절

- 아브람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영토는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써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서야 겨우 약속하신 경계에까지 육박하는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므로 이때 주어진 땅의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할 **이상적인 영토의 범위**가 됩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끝없는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람이 받은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영토주의와 선민의식에서 나타나는 배타주의**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인, 기독교인, 유대교인 모두가 성지로** 여기는 곳이어서 이스라엘로써는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곳이고, 이슬람교도들이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역시 자치지역을 아무리 넓게 갖는다 하더라도 동예루살렘을 갖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양국간에 평화협정이 난항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 이 땅들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바른 것인지는 알 수 없습시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을 주고서라도 쟁취하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집념**만은 대단하고,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야 했던 고달픈 민족의 처절한 투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Our God, A Way Maker

- 하나님의 자기 선언적인 햇불언약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리사랑의 언약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예표, 모형, 그림자로서)입니다.
-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실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예표, 모형, 그림자의 실체로서)입니다.

‘희망의 성취’와 ‘구원의 은총’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대국

[창세기 읽기]

테헤란

시리아

다마스쿠스

텔아비브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창 15:18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 아브라함 ☆
야훼(YHWH)가 주신 땅과 나라에 대한
언약(Brit)을 믿고(Emunah)
최초로 희망(Tikvah)을 품은 여러 민족의 조상

☆ 유대민족 ☆
그 희망(Ha-Tikvah)를 믿고(Emunah),
그 희망을 성취시킬 모שי아크(Moshiach)가
지금 오고 계시다고 믿는 민족

창세기 16장 1-16절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년 후였더라.

창세기 16장 1-16절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창세기 16장 1-16절

[7] 여호와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창세기 16장 1-16절

[11]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창세기 16장 1-16절

[14] 이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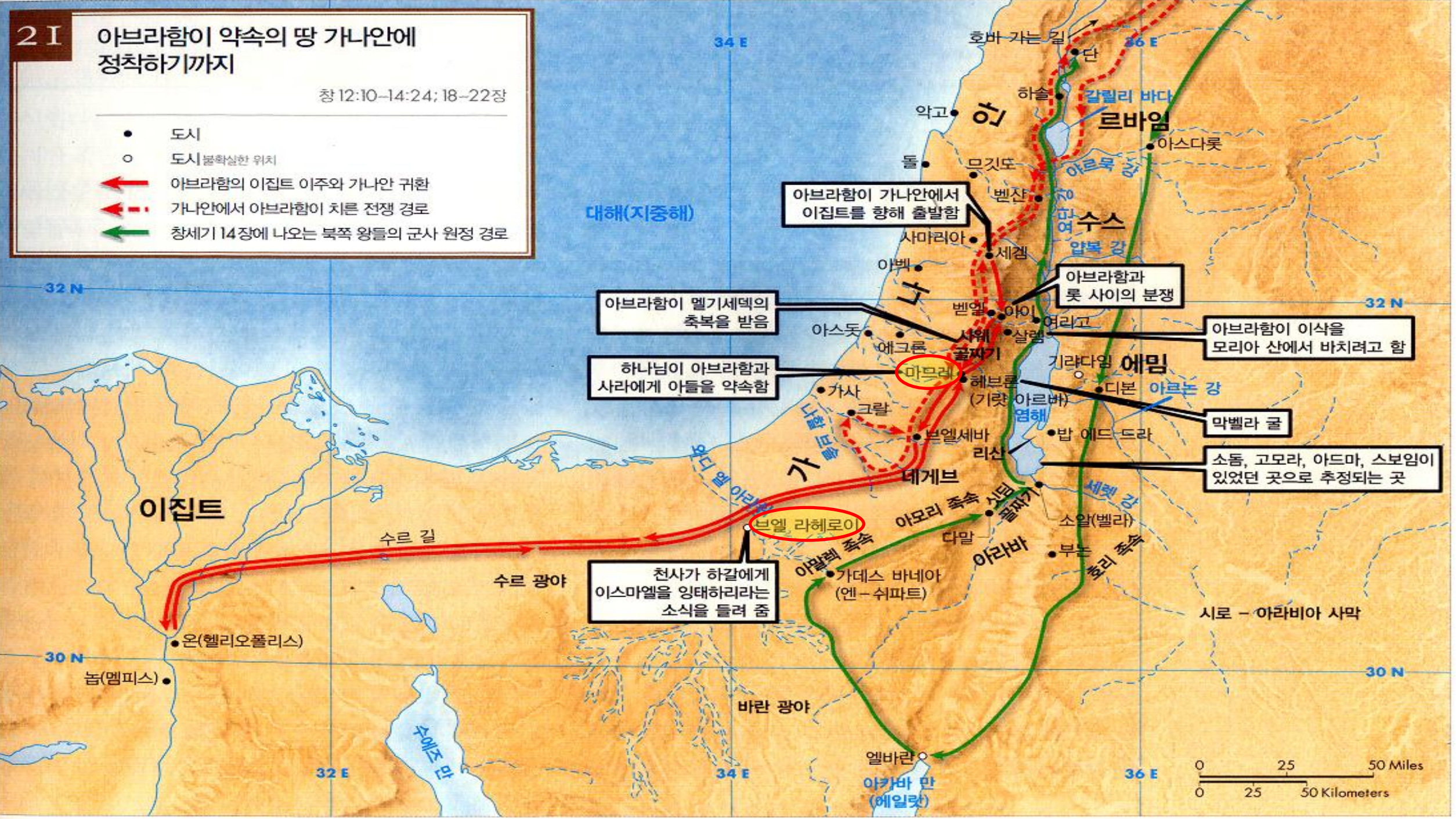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창 12:10-14:24; 18-22장

- 도시
- 도시 불확실한 위치
- ← 아브라함의 이집트 이주와 가나안 귀환
- ←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 경로
- ←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북쪽 왕들의 군사 원정 경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향해 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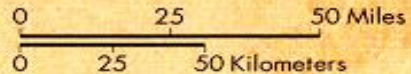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분쟁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함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

천사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려 줌

시로 - 아라비아 사막



“브엘라해로이”의 뜻과 현 위치 (사진) “나를 보시는 살아 계시는 분의 샘”

로이 라하이 베에르

בֹּרַי לַחַיִּים בְּאֵר

보시는 살아계신 분 샘



하같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יְהוָה

로이 ← 엘

사진: 유대 광야

אֵלֵינוּ אֵלֵינוּ

언약의 **אֱלֹהֵינוּ** 하나님

베리트

엘

지극히 **אֱלֹהֵינוּ** 하나님
높으신

엘르온

엘

보시는 **אֱלֹהֵינוּ** 하나님

로이

엘

들으시는 **אֱלֹהֵינוּ** 하나님

이스마

엘

그리스도인들만이 고백하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요 1:18)

μονογενής Θεός

모노게네스

떼오스

The only begotten God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הֵי לֹא'ִ

-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일의 결과가 속히 드러나지 않으면 초조해 하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일을 성사시키려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 아브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후사에 관한 약속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 받았습니다(13:16, 1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הֵי לֹא'ִ

- 그 **결과**는 가정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보기에 더딘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 **첫째**, 아브람에게 주신 후사에 대한 언약이 지연되었습니다.
-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후에 **10년** 이상 기다려 왔습니다(12:4, 7).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והים' 'אל' 'אלה'

- 하나님께서는 속히 언약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 **왜 그리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래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로 자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הים' 'אל' 'אלה'

- **둘째**, 아브람과 사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래는 자신이 고령자였고, 따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가문의 대(代)를 잇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어떠한 기미나 확신이 사래에게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הֵי לֹא'ֵי

- 그래서 그녀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자식을 생산케 하려고 시도합니다.
- **사래의 판단에는**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면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 **하지만 그 결과는** 사래에게 큰 위기 곧 자신의 위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הֵי לֹא'ֵי

- 사래의 **인간적인 생각은 자신의 위치를 불안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셋째**, 그들의 처신은 결국 가정의 분란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자식 없는 사래는 이제 자식을 잉태한 하갈에게 멸시를 받게 됩니다. 종과 상전의 입장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삼상 1:6).
- 사래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아브람에게 전가합니다.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הֵי לֹא'ֵי

- 이는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해(害)를 받게 되었다는 **원망**입니다. 명백하게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자신의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람과 사례의 가정에는 불화(不和)가 생겨났습니다.
- **넷째**, 하갈은 자식의 잉태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 하갈은 사례의 천한 몸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아브람의 첫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로 인해 **자만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והים' 'אל' 'אלה'

- 당시 여인이 잉태하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으로 여겨졌기에 하갈은 자신이 사래보다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월한 존재라고 자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갈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여주인을 멸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4절).
- 그러자 이를 참다못한 사래는 하갈을 미워하고 천대하게 되었습니다(6절).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והים' 'אל' 'אלה'

- 이처럼 **하갈은** 자신이 여주인의 배려 덕분에 주인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다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결과, 결국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 다섯째, 결국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하갈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내쫓겨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서는 그러한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הֵי הַרְוֵה

- 그리고 그녀에게 **교훈과 안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되돌아가 여주인 사래에게 복종할 것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8-10절).
-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근처 샘물에 ‘브엘라헤로이’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14절).

בְּאֵר לְחַיֵּי הָאֵלֹהִים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

“브엘라해로이”의 뜻
“나를 보시는 살아 계시는 분의 샘”

로이	라하이	베에르
לֹאֵ	לַחַיִּ	בְּעַר
보시는	살아계신 분	샘

- 이 말은 ‘나를 보시는 살아 계시는 분의 샘물’ 또는 ‘하나님을 본 후에도 살아 있는 자의 샘물’ 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아랍인들은 이 샘을 ‘하갈의 우물’ 이라고 부릅니다.
- 그런데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만 때문에 고통 당하는 하갈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례: 아담, 가인
-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소외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הֵי אֲרָם

- 우리는 **하나님께서서 하갈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언제나 베풀어 주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 우리를 죄악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양자(養子)로 삼으신 은혜는 물론이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자비를 늘 기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הֵי רֹאֵי' **엘로이 로이**

- 하나님의 권고와 약속을 듣고 돌아온 하갈은 아들을 해산합니다(15절). 들으시는 하나님: 'אֱלֹהֵי שָׁמָע' **엘로이 샤매**
-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스마엘'** 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후 약 14년 동안 아브람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 그러나 그는 사라가 낳은 이삭을 희롱하고 학대한 일로 인해 아주 내어 쫓기게 됩니다(21:9-12).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הֵי לֹא'ִ

- 교만한 여종 하갈의 품성이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져서 전날 하갈이 사래를 떨시했던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 즉 이스라엘과 애굽 경계 지역에 삶의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 그리고 하갈은 자기와 같은 종족인 애굽여인을 이스마엘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 그 **이스마엘** **족속의 후예가 아랍 종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

אֱלֹהֵי אֲבִי:나의 하나님은 도움

- 한편 하갈과 마찬가지로 종 출신 **엘리에셀**은 아브람 가정에 영원히 남아 있게 된 반면, **하갈은 분리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 **하갈은**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주인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하였습니다. **교만은 결과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람 가문에서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고 대를 이어가며 오늘까지 분쟁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국

[창세기 읽기]

테헤란

시리아

다마스쿠스

텔아비브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창 15:18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 아브라함 ☆
야훼(YHWH)가 주신 땅과 나라에 대한
언약(Brit)을 믿고(Emunah)
최초로 희망(Tikvah)을 품은 여러 민족의 조상

☆ 유대민족 ☆
그 희망(Ha-Tikvah)를 믿고(Emunah),
그 희망을 성취시킬 모שי아크(Moshiach)가
지금 오고 계시다고 믿는 민족

창세기 17장 1-8절

- [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 [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17장 1-8절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람
에게

언약의 **אֱלֹהֵי בְרִית** 하나님

베리트

엘

지극히
높으신 **אֱלֹהֵי עֲלִיוֹן** 하나님

엘르온

엘

보시는 **אֱלֹהֵי רֹאֵי** 하나님

로이

엘

들으시는 **אֱלֹהֵי שְׁמַעַל** 하나님

이스마

엘

전능한 **אֱלֹהֵי שַׁדַּי** 하나님

샤다이

엘

계시된
하나님

I am El Shaddai (אֱנִי אֵל שַׁדַּי)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17:1) (샤다이 엘 아니)

שׁוֹמֵר דְּלֶתוֹת יִשְׂרָאֵל

이שראל의 문들 수호자

שְׁמַע דְּבַר יְהוָה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שְׁמַרְתִּי דְרָכֵי יְהוָה

야훼의 길들을 나는 지켰다



메주자(Mezuzah)
샤다이(Shaddai)
전능(Almighty)



쉐마

Shema Israel שְׁמַע יִשְׂרָאֵ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4-9).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goyim hamon ab + ram ab

אֲבֹרָם אֲבֹרָם אֲבֹרָם + אֲבֹרָם אֲבֹרָם

father of many nations
여러 민족의 아버지

exalted father
높으신 아버지

goyim hamon ram ab

אֲבֹרָם אֲבֹרָם אֲבֹרָם אֲבֹרָם

nations multitude exalted father

여러 민족의 높으신 아버지

אֲבֹרָם אֲבֹרָם אֲבֹרָם

אֲבֹרָם אֲבֹרָם אֲבֹרָם

아브라함

אַבְרָהָם

Abraham;

아브라함이라

'Abrāhām

שִׁמְךָ

thy name

네 이름을

šimkā

וְהָיָה

but shall be

하지 아니하고

w^ehāyâ

אַבְרָם

Abram,

아브람이라

'Abrām

שִׁמְךָ

thy name

이름을

šimkā

יהוה

야훼

YHWH

여호와

שָׂרָה

Sarah

사라라

Sēārâ

כִּי

but

하지 아니하고

kî

שָׂרַי

Sarai,

사래라

Sēārāy

שִׁמְהָ

her name

그녀 이름을

š^emâ

hei vav hei yod

ה

ו

ה

י

(Translated "YaHWeH" or "JeHoVaH")

야훼

YHWH



(열국의)왕비

나의 왕비

열국의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שהרה



שרי

אברהם



אברם

Sarah

Sarai

Abraham

Abram

아브라함(열국의 아버지)과 사라(왕비)란 이름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아들이 없어 희망이 없던 아브람(높으신 아버지)과 사라(나의 왕비)가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의 조상이 된다는 '그 희망' (Ha-Tivah)이 녹아 있다. 바뀐 이름만으로 약속의 땅(유프라테스와 나일 사이)에 나라들을 세운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됐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은 모시아크(Moshiach)가 오시면 적자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 그 나라들과 민족들의 지배자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1절, “내(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뜻

“행하여”는 ‘걷다’(הלך, halak)는 의미

“완전하라”는 ‘흠이 없다’(blameless)는 의미. 따라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라(하나님 앞에서 걸으라), 흠이 없으라”는 의미입니다.

- 창 17:1 아브라함 (동행하라 흠 없이) הַתְּהֵלֵךְ לְפָנַי וְהָיָה תָּמִים
- 창 5:22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고) וַיִּתְהַלֵּךְ חֲנוּךְ
- 창 6:9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롭고 흠 없이) הַתְּהֵלֵךְ נֹחַ

랍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대법을 ‘할라카’(Halakhah, הַלְּכָה)라 부릅니다.

1절, “내(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뜻

‘할라카’(Halakhah, הלכה)란?

- 유대주의는 신념(믿음)들이 아니라 계명들과 규율들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 규율들과 실천들이 ‘할라카’입니다.

‘할라카’(halakhah, הלכה)란 말은 흔히 ‘유대인의 법’으로 번역됩니다. 좀 더 문자적인 뜻으로는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그 말은 가는 것, 걷는 것 혹은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 ‘헤(ה)-라메드(ל)-카프(כ/כ)’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절, “내(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뜻

‘할라카’ (halakhah, הלָכָה)는 다음과 같은 법들로 구성됩니다.

- **미츠보트**(미츠바):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들(Mitzvot)
- **게자이로트**(게자이라): 랍비들이 해석한 계명의 율타리법들 (규례, 장로들의 유전, Gezeirot)
- **타카노트**(타카나): 랍비들이 제정한 율법들(Takkanot)
- **민하고트**(민하그): 관습법들(Minhagot)

그리고 이 **‘할라카’**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완전한”, 의로운** 혹은 **‘흠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함, 의로움, 거룩함이 애매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

창세기 17장 1-8절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본문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과의 극적인 대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할 수 있는 99세의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호는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흑과 백처럼 혹은 음부와 낙원처럼 극적인 대조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 전능한 하나님이 노쇠한 아브람에게 나타나 하신 명령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1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말씀의 의미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걸으라 흠이 없으라’입니다.
-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노쇠한 99세의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2절)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조상)가 될지라.”(4절)는 것이었습니다.
-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란 표현, 곧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란 표현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란 히브리어인데요, **짐승을 쪼개서 갈라놓은 사이를 통과하여 만든 계약**을 말하며, 두 당사자 간의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בְּרִית

(berit)



- 본래는 ‘족쇄’나 ‘의무’를 뜻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베리트’는 쌍방이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결속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언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로 한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 이 같은 것들에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사회계약(관습법, 민형사법)**,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약(Treaty, 국제법, 국제관습법)**,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계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이 약속 안에 포함된 의무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체결하시는 **은혜로운 약속**을 말합니다.
-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노쇠한 99세의 아브람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은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5-6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야곱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생애에서 보듯이 개명자들의 생애에 매우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써 한 개인의 인격과 종교적 성향과 삶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영육간 노쇠해 있을 때 나타나셔서 당신의 완전한 능력으로 노쇠한 인간조차도 풍성케 하실 수 있는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이때까지 만해도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후사문제를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쇠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얻어 보려고 했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하여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그 존재가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따라서 하나님은 **‘높으신 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이란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조상)’**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고침으로써 그가 단순히 여러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인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 택하신 자를 언제라도 풍성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의 후손조차 갖지 못한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공적인 인물로 호칭함으로써 당신께서 지금까지 주신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 동시에 그를 통해 이루실 인류구원의 대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히 11:8-9).

-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또한 ‘죄인’(옛 사람)이란 이름에서 ‘의인’(새 사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성도’(그리스도인)란 이름으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된 것이며, 이 축복은 우리 인간들의 자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새 이름을 받은 자로써 자신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게는 산 자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갈 2:20).

창세기 17장 1-8절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전능한 하나님이 노쇠한 99세의 아브람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8절)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창세기 17장 1-8절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모두에게 상속적인 개념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7절),
-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8절)
- 이 하나님의 선포가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엘 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가장 위대한 상속을 물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은 언약을 능히 이룰 능력의 소유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이 늙어 생식 능력을 상실한 아브람과 사래와는 매우 대조적인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든 간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도록 힘씁시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걷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대국

[창세기 읽기]

테헤란

시리아

다마스쿠스

텔아비브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창 15:18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 아브라함 ☆
야훼(YHWH)가 주신 땅과 나라에 대한
언약(Brit)을 믿고(Emunah)
최초로 희망(Tikvah)을 품은 여러 민족의 조상

☆ 유대민족 ☆
그 희망(Ha-Tikvah)를 믿고(Emunah),
그 희망을 성취시킬 모שי아크(Moshiach)가
지금 오고 계시다고 믿는 민족

창세기 17장 9-27절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창세기 17장 9-27절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9-27절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9-27절

[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들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 가셨더라.

창세기 17장 9-27절

[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4]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구십구 세**였고,

[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십삼 세**였더라.

[26]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이 10년이 되도록 이뤄지지 않자 **사래는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도 언약을 성취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결과는 집안에 갈등과 분열을 낳았고, 그 갈등과 분열은 4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구실로 믿음의 끈, 희망의 끈, 인내의 끈을 놓아 버리고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존하게 되면 뼈아픈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결국 사람을 위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뼈아픈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치유하시고 거듭 기회를 주시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오롯이 인간의 몫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겪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십니다.

- 여기서 **고통이란** 약속의 성취가 늦춰지는 것과 그로 인해서 겪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말합니다.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약이 이뤄질 것을 믿고 신실한 믿음, 곧 희망의 끈, 인내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몸은 노쇠하여 가고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간적인 판단을 극복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아담이 하와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했던 것처럼, 아브람은 사래의 권유를 물리치지 못했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람은 사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과 기어이 아들을 얻었다는 만족감으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사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사래는 불임이었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주실지를 알 수 없었고, 아브람은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에 추가된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셨고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7장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9-27절은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침례/세례와 할례가 다른 점

- **할례**를 세례의 예표 곧 모형과 그림자로 보는 이들이 있으나 **신약 성경**은 노아 시대의 홍수(벧전 3:20-21)와 홍해에서의 구원(계 15:2-4; 고전 10:1-4)을 침례의 예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는(into) 의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롬 6:3-5)
- **침례/세례**가 원죄를 씻는 의식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있으나 할례는 이스라엘과 종교(유대교)가 시작된 출애굽 때보다 최소 406(430-24)년에서 621(645-24)년이나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 **유대교인들은 원죄 개념을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할례는 원죄를 씻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침례/세례와 할례가 다른 점

- **할례**는 출생 8일째 날에 남자 아이, 문안의 객(남자), 노예(남자)에게만 행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문자적 언약의 표시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반면에
- **침례/세례**는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남녀노소가 행하며, **영적 구원의 표시**입니다(벧전 3:20-21).
-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할례**(남자에 한함) 뿐 아니라, 추가로 **벌거벗고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세례와 할례가 다른 점

- **할례**는 율법의 명령을 따라 받지만, **침례**는 자신의 믿음의 결정에 따라 받습니다.
- **교회(영적 이스라엘)**는 믿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 받은 **남녀노소**로 구성되며, **민족색깔 빈부 귀천에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됩니다. 반면에
- **민족종교인 유대교 이스라엘**은 '계명의 아들들', 곧 13세 때 성인식을 마친 **유대인 성인 남자들로 구성**됩니다.

할례와 의식

- **고대근동의 많은 민족들에게 할례는 12세 또는 13세에 성인이 되는 것을 알리는 사춘기 또는 다산의 의식이었지만, 종교적이기보다는 부족 관습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이 할례 관습을 하나님과의 언약의식으로 발전 시켰는데 이 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브리트 밀라’(b’rit milah) 곧 ‘할례의 계약’이라 부릅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드렸고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와 의식

- 이후로 유대인 남자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다산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 **유대교에서는 원죄개념이 철저히 거부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린아이가 순결하게 전혀 죄 없이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주신 영혼은 순결합니다. 당신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셨고, 조성하셨으며,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원죄를 씻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할례와 의식

-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알리야’ (Aliyah אֲלִיָּה)**라 불리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알리야’는 ‘오름’이란 뜻으로써 회당 기도회 때 단상에 오르거나 이스라엘로 이주 또는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회당 기도회 때 **토라(모세오경)**을 봉독하고 축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때에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축복이 낭송됩니다. 또 **아기가 여아이면**, 바로 그 때에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기의 이름은 생후 첫 안식일 때 회당에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남아이면**, **‘브리트 밀라’ (b’rit milah)**라 불리는 할례 의식 때에 이름이 주어집니다.

할례와 의식

- **할례의식**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대, 가족 간의 연대, 더 나아가서 유대민족을 연대시킵니다. 할례가 위생적인 면에서도 유익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계약의 외적 신체적 표시이며, 할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표시입니다(9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과문을 당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올 세계(Olam Ha-Ba)**에서 **설자리를 갖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할례와 의식

- 안식일에 피를 흘리는 일이 금지되지만, **할례만큼은 안식일에도 행해집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 자체가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할례의식에 자격을 가진 자 **‘모헬’(Mohel)**이라고 불리는 경건한 사람이 집에서 시행합니다.
- 할례가 수행되는 동안, 아이를 붙잡는 사람을 **‘산덱’(sandek)**이라 부르는데, ‘대부’(godfather)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산덱’(대부)이 되는 영광은 보통 할아버지나 가족의 랍비가 갖게 됩니다. 산덱이 앉도록 **엘리야를 위한 의자**를 놓는데 엘리야가 할례의식을 주관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의식

- 할례의식 중에 여러 가지 축복기도들 (Berakhot)이 낭송되고,
- 모헬은 할례 시술을 끝낸 후 포도주 잔을 축복하며 **아기의 히브리어 이름을 선포합니다.**
- 그리고 이어서 아기의 입에 포도주 방울을 넣어 주는데 관습법(Minhag)으로써 아기를 진정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 행사 후에는 다과회나 잔치가 배설됩니다.

유대인들의 할례의식 동영상
Brit Milah 할례의식과 한글 자막



할례의 집도자를 모헬(Mohel)이라 한다.



엘리아 의자에 앉아 아기를 무릎에 올리고 붙잡아 주는 이를 산덱(Sandek)이라 한다. 산덱은 대부(godfather)를 뜻한다.



산텍이 앓도록 엘리야를 위한 의자를 놓는데 엘리야가 의식을 주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축복기도들(Berakhot)이 낭송되고

산텍(대부)이 포도주를 조금 마시기 직전에 아기 이름이 히브리어로 선포되었는데, 영어로 풀면 아마도 "His name will be called in Israel Abraham ben Solomon."였을 것. 그래서 영상에서 할례를 받은 아기의 이름은 '아브라함 벤 솔로몬'(솔로몬의 아들 아브라함)이 었을 것이다.



모헬은 할례 시술을 끝낸 후 포도주 잔을 축복하며 아기의 히브리어 이름을 선포한다.



그리고 이어서 아기의 입에 포도주 방울을 넣어주는데,
관습법(Minhag)으로써 아기를 진정시키려는 데 있다.



의식이 끝나면 다과회나 잔치가 배설된다.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그에게서 나올 **‘후손’**입니다. 이 후손은 이삭을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21절)고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8절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신 것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은 단지 이삭만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 **‘약속의 자녀’란 말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이 혈통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시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 받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행할 것을 명령 받았던 것**입니다.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할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를 보면, 먼저, 할례의 가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때에만 있다고 하였습니다(롬 2:25).**
- **할례는**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 것이라고 하였고(롬 2:28-29),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 할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롬 3:30).**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고 하였습니다(갈 5:6).**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이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였습니다(골 2:11).
- 하나님 앞에서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문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골 3:11).
- **결론으로** 몸에 하는 할례보다는 **마음에 하는 할례, 곧 진정한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힘써 강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

-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구실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만 의존하게 될 때,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구실이
성립될지라도,
뼈아픈 실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

- **둘째는** 실패한 그 자리,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되지 못할 그 시점 또는 완전히 물 건너 같다거나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야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엘샤다이)**이 일하실 순간(*καιρός*) 곧 정시(on time)라는 점입니다.
- **셋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원대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고, 시간에 공간에 제약되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먼 미래까지도 관찰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실수는 대체로 앞을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對) 피조물 인간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

-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겸손과 그분을 섬기며 높이는 낮은 자세일 것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실(Emunah)과 신뢰(Pistis)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엘 샤다이)은
정시(on time)에 오십니다.

이스라엘 대국

[창세기 읽기]

테헤란

시리아

다마스쿠스

텔아비브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창 15:18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 아브라함 ☆
야훼(YHWH)가 주신 땅과 나라에 대한
언약(Brit)을 믿고(Emunah)
최초로 희망(Tikvah)을 품은 여러 민족의 조상

☆ 유대민족 ☆
그 희망(Ha-Tikvah)를 믿고(Emunah),
그 희망을 성취시킬 모שי아크(Moshiach)가
지금 오고 계시다고 믿는 민족

창세기 18장 1-15절

- [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창세기 18장 1-15절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창세기 18장 1-15절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창세기 18장 1-15절

[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창세기 18장 1-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의
오랜 기도와 오랜 간절함과 오랜 절실함에 와닿는
감격스런 순간(kairos)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죽은 몸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며 웃게 하셨습니다.

**God touched them,
and made them whole.**



토비 코헨(Toby Cohen)이 재현시킨 사진(2012년)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천사들을 영접하는 장면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세
천사들을 영접하는
모습

(제임스 티쏘,
James Tissot,
1836-1902)

thejewishmuseum.
org



세 천사들의
발을 씻기는
아브라함
(렘브란트,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46)





천사들을 영접하는 아브라함(노엘 할레, Noël Hallé, 1762)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 중세기 세파르딕 유대인 랍비요 의사였던 마이모니데스 (Maimonides 혹은 Moshe ben Maimon, AD 1135-1204)는 영적 존재들을 천사들로 보고 10등급으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는 “천사들”(Malachim)을 6등급, “엘로힘”(Elohim)을 7등급, **“사람” 모습의 천사(Ishim, 창 18:2, 단 10:5)**를 10등급에 분류하였습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2절에 나오는 세 인물을 10등급 천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본문 8절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아브라함이 접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 반면에 이슬람교의 성경인 꾸란 11장 70절과 51장 28절에서는 **그들이 음식과 음료수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랍 관습에서 접대한 음식을 먹지 않는 손님은 불운한 소식을 전하는 자이거나 약탈자라 생각되었습니다. 꾸란 11장 70절의 각주를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한 인물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천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꾸란은 많은 곳에서 구약성경을 변개(變改)하여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이 야훼 (YHWH) 하나님이란 것을 말합니다. 또 1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19장 1절에서는 소돔으로 떠난 천사가 세 명이 아닌 두 명인 것을 말해줍니다.
- 결국 본문은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눅 24:42-43).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창세기 18장의 내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야훼 하나님과 두 천사 혹은 다른 영적 존재들의 계시 형태 곧 **Theophany**(신현, 神現, 신의 현현)였을 것입니다.
- 마이모니데스는 “엘로힘”(Elohim)을 7등급 천사들로 보았지만, 엘로힘(אֱלֹהִים)은 엘로아(אֱלֹהָא, Ēlōah, 권능자)의 복수 명사로써 단수 동사를 받는 유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로아’를 ‘알라’(الله 'Alāhā)로 발음**
합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헤 라메드 알레프
- 그리스도교에서는 엘로힘이 단수 동사를 받는 복수명사란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와 그림자로 봅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은 다른 두 인물을 대동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세 인물을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예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셋이고,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며, 이삭은 그 아버지의 유일한 적자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된 과정은 온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독생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킨 성령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허물 많은 **야곱**이 어떻게 성령의 예표와 그림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반론도 있지만, 야곱의 '삶'이 성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서 야곱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열 두 부족은 야곱의 열 두 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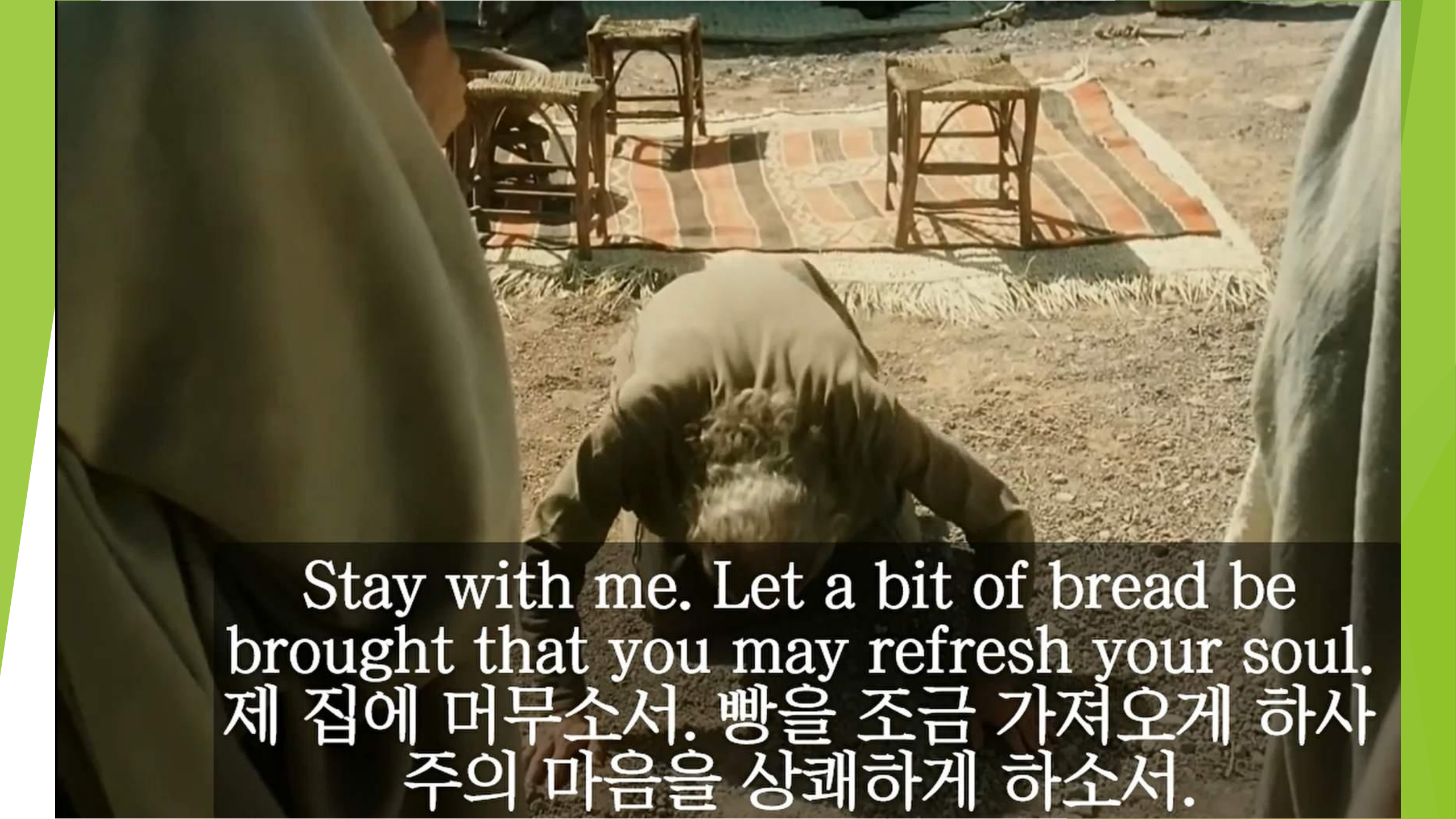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열 두 사도들과 성령의 사역으로 주후 30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그것은 문자적 이스라엘이 주전 1446년 오순절 날에 시내산 기슭에서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영화 '아브라함' (1993년) 가운데 창세기 18장 1-15절 부분 영상
Abraham and three visitors_자막



We have guests. Bring some water.
손님들이다. 물을 조금 가져 와라.

A person with long, curly hair, wearing a simple, light-colored tunic, is bowing deeply on the ground. The setting is outdoors, with a dirt floor and a striped rug in the background. There are several wooden chairs or stools around the rug. The scene is framed by a green border on the left and right sides.

Stay with me. Let a bit of bread be brought that you may refresh your soul.
제 집에 머무소서. 빵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주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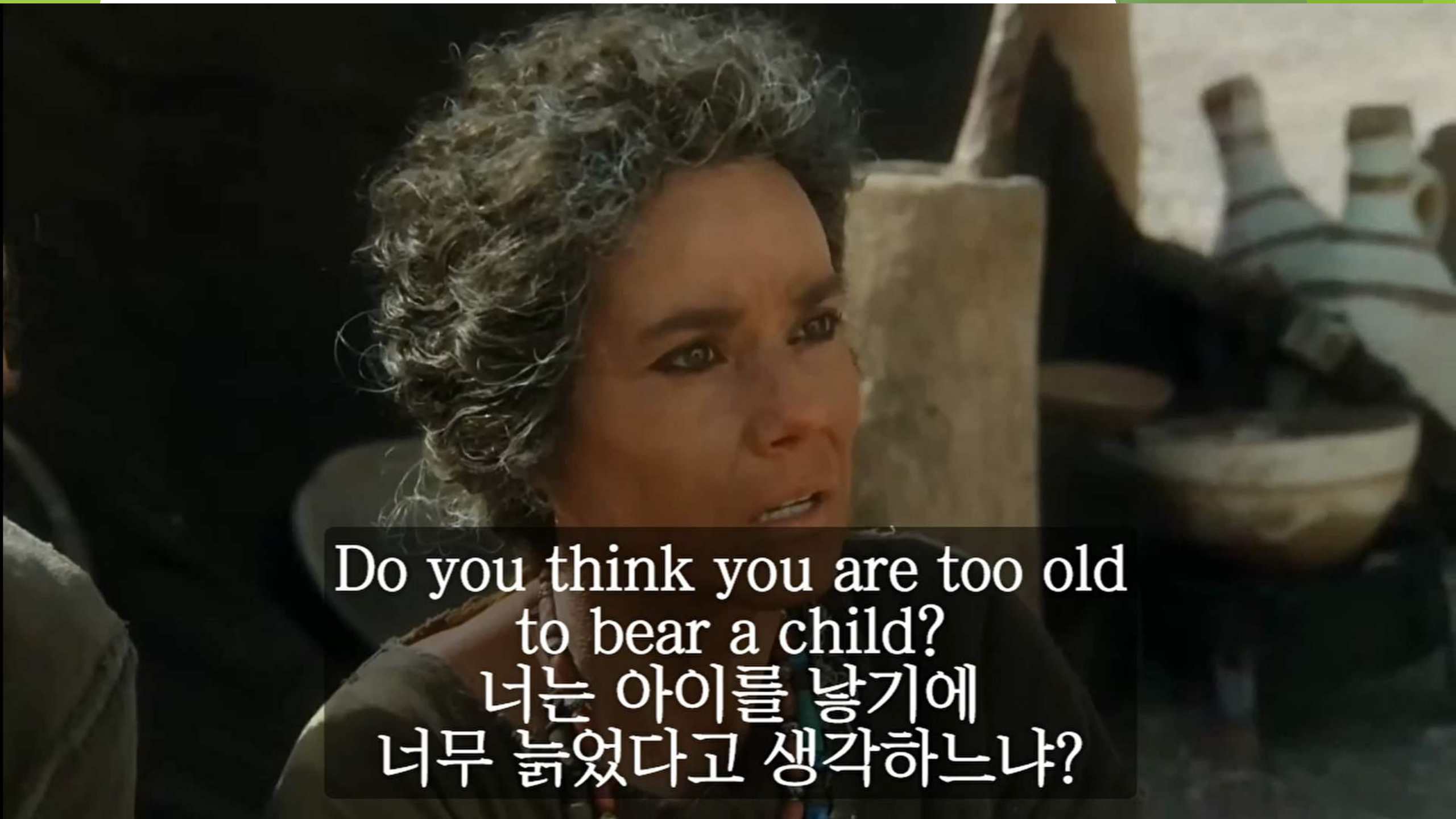
A woman with dark, curly hair is shown in a dimly lit, rustic interior. She is wearing a dark, long-sleeved garment and a necklace with red and blue beads. Her hands are clasped together near her face, and she appears to be in a state of prayer or deep contemplation. In front of her is a large, shallow, woven basket. The background is dark, with some vertical wooden poles and a few small, glowing lights, possibly candles or lanterns, creating a somber and intimate atmosphere.

And Sarah your wife shall have a son.
그리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Sarah, is there anything the Lord can not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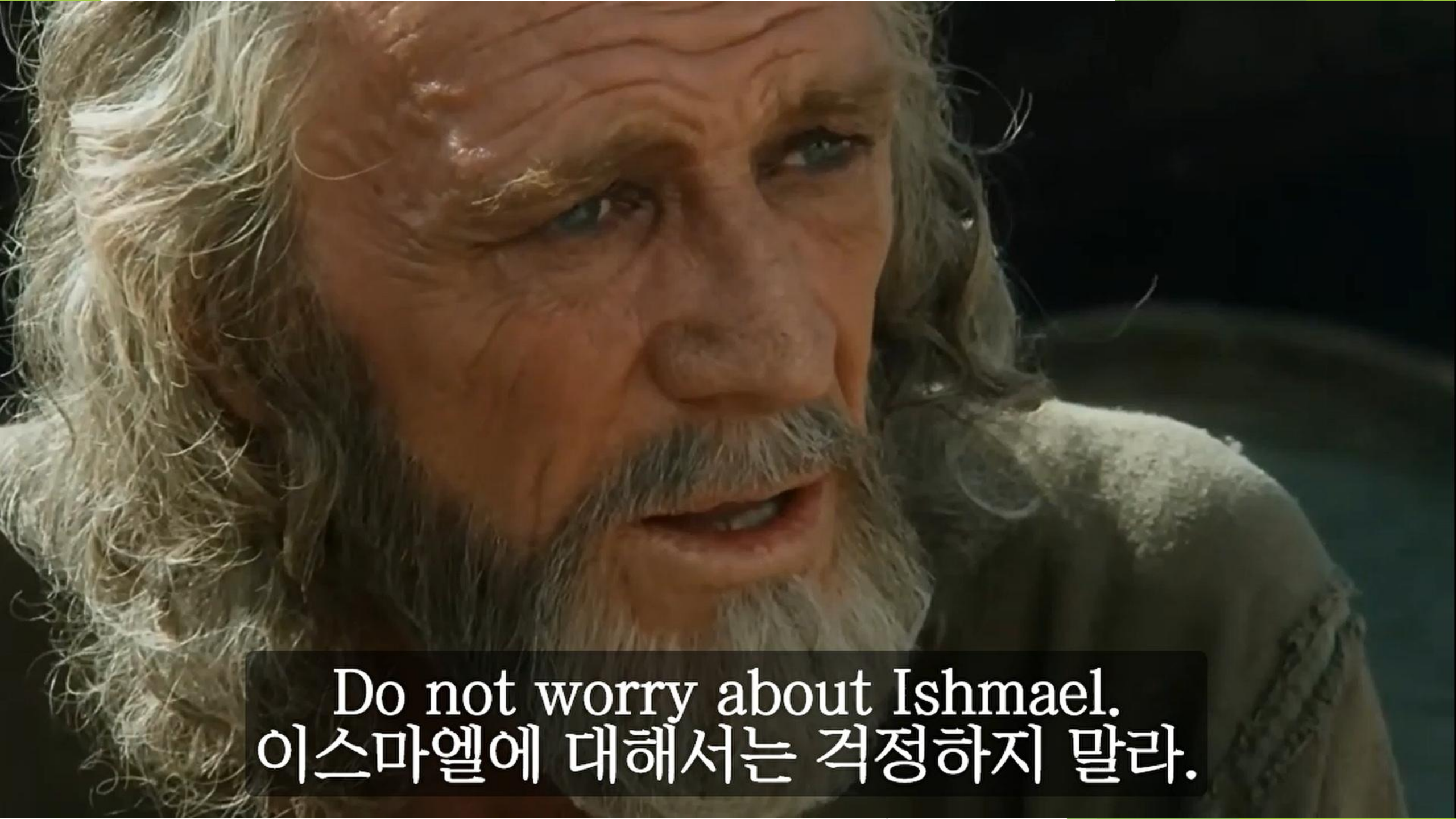
사라, 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A close-up shot of a woman with voluminous, curly grey hair. She has a serious, questioning expression on her face,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The background is dark and out of focus, showing some indistinct shapes that could be part of a boat or a workshop.


Do you think you are too old
to bear a child?
너는 아이를 낳기에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느냐?



You will bear Abraham's son, and you will call him Isaac, meaning laughter.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를 '웃는 자'란 뜻인 이삭이라 불러라.



Do not worry about Ishmael.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A group of five people, likely women in traditional Middle Eastern or biblical attire, are silhouetted against a bright sunset. They are standing on a grassy hillside, looking towards the horizon. The sky is a deep orange and yellow, and the hills in the background are dark and silhouetted. The overall mood is contemplative and serene.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로 하여금 다산하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열두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한 아브라함(창 18:1-15)

-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때 여러 형태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사람의 모습과 말씀, 흥해가 갈라지는 표적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가까워진 어느 날 정오 즈음에 하나님께서 수행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범상치 아니한 나그네들**을 극진히 접대하였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수행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한 아브라함(창 18:1-15)

- 얼마나 큰 행운이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손 이삭의 출생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선행을 하게 되겠는가**일 것입니다.
- 일찍이 **수녀 테레사**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일정한 거처 없이 길에서 구걸하여 먹고 지내는 노숙자나 부랑인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테레사는 그들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을 취하신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한 아브라함(창 18:1-15)

- 톨스토이는 23개의 민화를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톨스토이는 가난한 구두수선공인 **마르틴**이 추운 어느 겨울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돌보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마르틴에게 나타나기로 한 예수님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 **아브라함**은 길손들을 맞아들이고서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의 상황에서도 나그네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무 아래서 쉬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떡, 버터, 우유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요리하여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한 아브라함(창 18:1-15)

- 이렇듯 적극적이고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하나님과 수행천사들을 접대하게 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브라함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마므레는 지중해와 사해바다 사이에 위치한 지금의 헤브론지역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일 백리 정도 떨어진 광야 산지였습니다.

- 상수리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상황이 그다지 나빴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팔레스타인 남부 사막지역의 한낮의 더위는 장정이라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그런데 그런 땡볕 속을 걷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른거리는 정오의 땡볕 속에서 신기루처럼 천막출입구 앞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된 노구의 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 나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맞아드렸습니다.
- 광야에 거주할 뿐 아니라,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대로 자신의 거처를 지나쳐 간다면 곧 탈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을까요?

- 아니면,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 그들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가 그들을 극진히 모셨고,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것이지만, 그들 가운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다른 두 사람은 수행천사들이었습니다.
-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한 것은 순수한 이웃 사랑에서였습니다.

-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뇌물성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설사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란 점을 염두에 두었더라도 그의 태도가 진실하고 순수하지 못했다면, 그들을 접대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하나님과 수행천사들이 받아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극진한 정성으로 그들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재산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랫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을만한 족장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령도 지위도 모르는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나그네들에게 **“몸을 땅에 굽혀”** 마치 종이 상전에게 하듯 최대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겸손함이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을 접대하면서도 오히려 접대 받는 자보다 더욱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의 원리를 이미 터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마 6:3)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접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갈 길이 바쁜 길손들을 오래 붙잡아 둘 수 없어서 급히 준비하는 음식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켰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 유목민들의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할지라도 형식에 매이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아브라함은 예절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예법으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는 “**몸을 땅에 굽혀**”서까지 나그네들을 영접했습니다.
- 그것이 또한 고대근동지방의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이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길손들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귀빈으로 맞이했다는 것은 그가 예절을 아는 족장이었음을 말해줍니다.
- 또한 아브라함은 나무 그늘 아래에 음식을 진설해 손님들이 편히 쉬며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자신은 그 옆에 마치 종이 하듯 서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고대근동지방에서는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예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세로 나그네들을 편안하게 대접했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 그러나 이런 선행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고, 뒤에서 사라와 그의 하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데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 팀원들 간에 손발이 잘 맞아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하나님과 수행천사들을 영접함으로써 후사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면전에서 듣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뿐 아니라, 사라까지도 그 축복을 받습니다.

- 육신적인 세상에 눌러 비록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향해서 책망과 질책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위로의 말씀, 곧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 12:13)는 바울의 말씀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히 13:2)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창세기 18장 1-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의
오랜 기도와 오랜 간절함과 오랜 절실함에 와닿는
감격스런 순간(kairos)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죽은 몸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며 웃게 하셨습니다.

**God touched them,
and made them whole.**



창세기 21-22장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창세기 18장 16-33절

[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그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6-33절

[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창세기 18장 16-33절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16-33절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16-33절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은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8장 16-33절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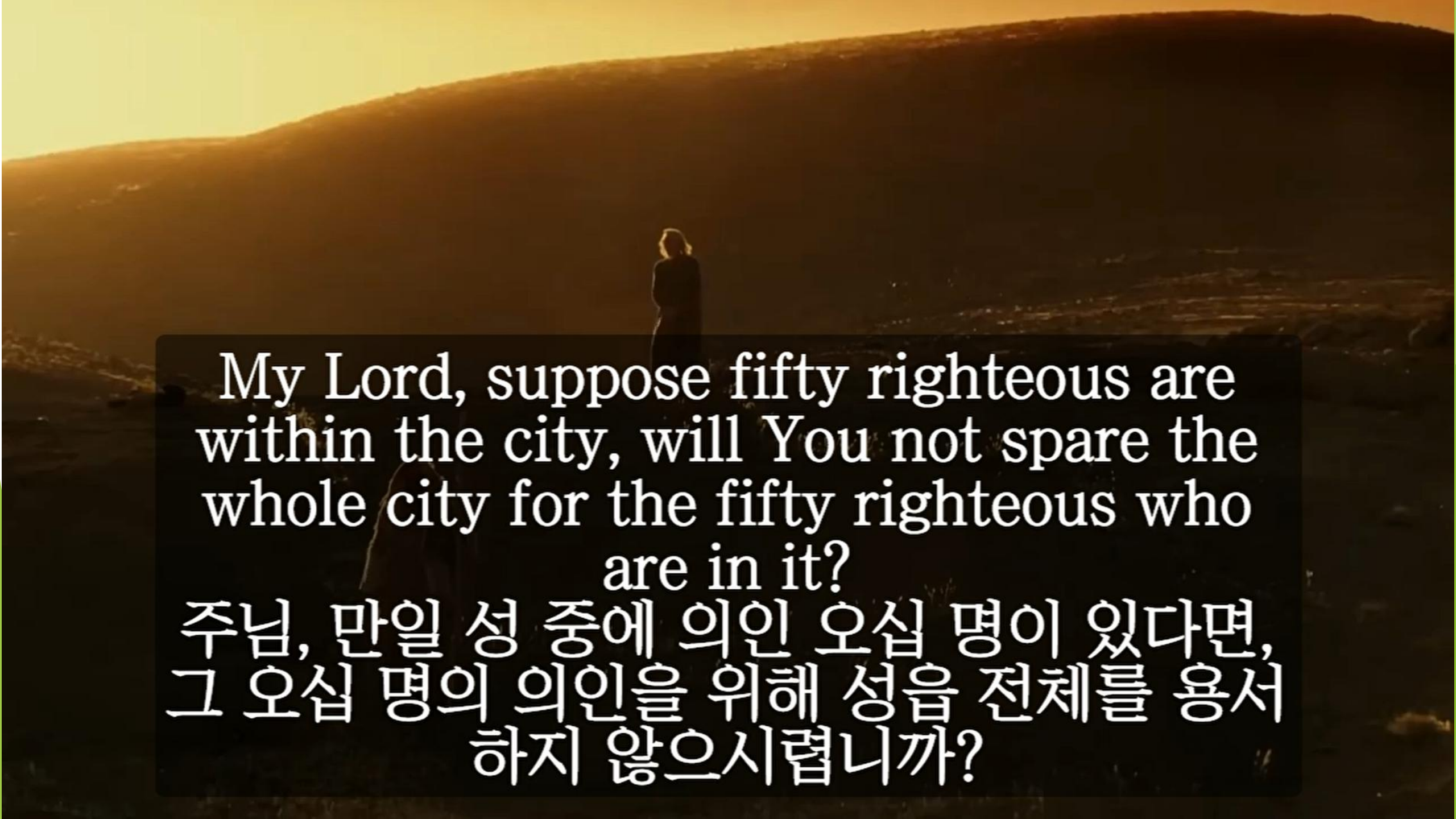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영화 '아브라함' (1993년) 가운데 창세기 18장 16-33절 부분 영상


Abraham talked with God about Sodom and

Gomorrah_자막 - YouTube


A person is standing on a hill, looking out over a landscape at sunset. The sky is a warm, golden color, and the hills are silhouetted against the light. The person is in the center of the frame, looking towards the right.

My Lord, suppose fifty righteous are within the city, will You not spare the whole city for the fifty righteous who are in it?

주님, 만일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다면, 그 오십 명의 의인을 위해 성읍 전체를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My Lord... My Lord, I...
may I speak just once?
나의 주님,... 주여, 제가...
한 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For ten, I will not destroy it.
내가 십 명을 위하여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 하겠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본문 창세기 18장 16-33절은 공동체의 보존에 의로운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특히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 이런 사람 열 명이 없어서 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성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망하지 않는다는 귀한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는 길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수행천사들이었고, **그가 행한 선행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으며,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타락한 도성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몸부림치듯이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 도성들과 성민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간청** 하였습니다. **총 여섯 번에 걸쳐서 간청**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 내용을 보면, **의인의 수가 소수라고 해서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오히려 소수의 의인들을 인하여 다수의 악인들을 용서치 않으시겠습니까? 또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란 말을 **두 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란 말을 **두 번** 사용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청**하였습니다.
-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간성, 곧 그의 사람됨과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성에는 의인 열사람이 없는 악한 도성들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악한 도성들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의인 오십 명**에서 시작하여 **사십오, 사십**으로 **오명씩** 줄여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 곧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 적어도 오십 명 정도의 의인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적어도 사십오 명, 적어도 사십 명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러던 아브라함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대치를 반영한 **오 명씩** 줄여가던 간청을 **열 명씩** 줄여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성에는 열 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고학이나 과학적으로는 지진대에 속한 지역인 데다가 도시가 형성된 산이 화재에 취약한 가스, 석유, 황, 역청(타르), 염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소돔은 소금호수란 뜻이기도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면 지하에 묻힌 가스가 폭발하고 불이 붙은 유황과 타르가 쏟아져 내리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이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끝났고, 하나님은 떠나셨으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여섯 번까지, 50에서 10까지 그 가능성을 열었고, 응답을 받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의 극에 달한 죄악성은 의로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헛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기도가 무가치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여섯 번 만에** 멸망의 상한선을 의인 10명으로까지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일일이 받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성에는 의인이 열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한계성일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성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여섯 번의 성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거룩한 용기의 기도였습니다.
-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섯 번이나 중보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란 말을 두 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란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사람을 살리려는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시퍼런 독기어린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용기가 바로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 굳이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서도 **울법주의에 메어 모른 체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강도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의** 그 용기가 바로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런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장을 내밀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세의** 그 용기가 바로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 그런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 부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용기가 바로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 그런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둘째,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무능력과 보잘것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피조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품고 강구했다는 뜻입니다.
- **겸손한 사람이 누구니까?** 그는 자신의 미약함과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겸손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자랑만 늘어놓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뿌리며 가슴을 치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효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여섯 번이나 응답을 이끌어냈던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셋째,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섯 번이나 끈질기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 **야곱이**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밤이 맞도록 붙들고 놓지 않으며 씨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축복을 받았던 그 **결사적이고 끈질긴 기도**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끈질긴 기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하였을 때에 그도 그녀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끈질긴 간청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는 토가 붙어있는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소돔과 고모라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결코 실패한 기도가 아닙니다.
- 그는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섯 번이나 간청을 드려 여섯 번이나 응답을 받았습니다.
- 그가 위해서 기도했던 소돔과 고모라성이 끝내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은 그의 기도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성이 극도로 타락한 때문이었습니다.

- 중보기도를 쉬지 맙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강하다고 했습니다.
-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 기도할 때에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합시다. 겸손하게 합시다. 끈질기게 합시다. 인내를 가지고 합시다.
-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인생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21-22장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창세기 19장 1-29절

- [1]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 [2]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 [3]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창세기 19장 1-29절

[4]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창세기 19장 1-29절

[9]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창세기 19장 1-29절

[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창세기 19장 1-29절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창세기 19장 1-29절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창세기 19장 1-29절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용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 고모라, 소알의 문자적 의미

- **סֶדוּם, Sedom, 불에 탄, 그을린**
- 소돔은 “**싯딤**”(Siddim, 14:3)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싯딤은 역청 구덩이로 가득 찬 골짜기로, 창세기 14장에 언급된 왕들이 싸웠던 곳입니다(창 14:3, 8). 그 후에 이 계곡은 사해(소금)의 바닥이 되었고 합니다(창 14:3, **“싯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 **עֲמֹרָה, Amorah, 어근 אמר('amar)는 ‘움켜쥐다’(to grip), ‘묶다’(to bind), ‘폭압적으로 다루다’를 의미합니다.**

소돔, 고모라, 소알의 문자적 의미

- Amarah가 고모라 (Gomorra)로 음역된 이유는 ‘v’(ayin)을 ghayin으로 발음했을 가능성에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도시 הזא(Azza)가 ‘가자’(Gaza)로 음역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 צוֹר Tsoar 작은, 하찮은 (창 19: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 소알(Zoar)은 “벨라”(Bela)로 불림 (창 14:2).

영화 ‘아브라함’ (1993년) 가운데 창세기 18장 1-15절 부분 영상
Sodom and Gomorrah_자막


룻과 그의
가족이 소돔에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1618-20)

야코프 요르단스
Jacob Jordaens,
벨기에(플랑드르)
의 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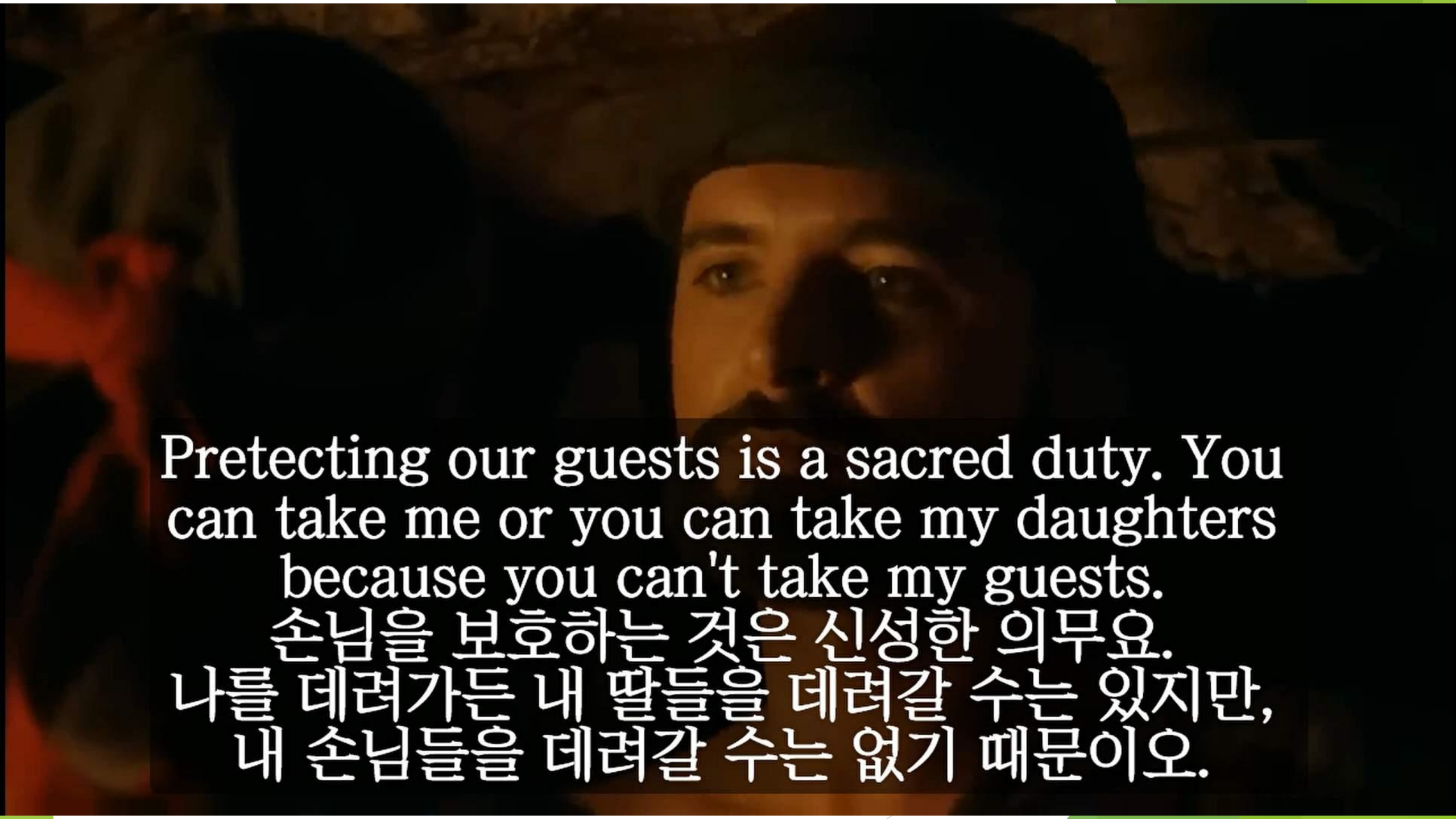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1852) 존 마틴(John Martin)

A man with a dark beard and a dark cap is shown in profile, looking towards the left. The background is dark and out of focus. A semi-transparent black box with white text is overlaid on the bottom half of the image.

Why don't you come to my house and
stay for the night and wash your feet.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 묵고
발을 씻으시죠.




We want your beautiful friends.
우리는 너의 아름다운 친구들을 갖고 싶다.



Protecting our guests is a sacred duty. You
can take me or you can take my daughters
because you can't take my guests.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요.
나를 데려가든 내 딸들을 데려갈 수는 있지만,
내 손님들을 데려갈 수는 없기 때문이요.

A cinematic scene featuring two men in light-colored robes. The man on the right has long dark hair and a beard, looking forward with a serious expression. The man on the left is partially obscured, holding a wooden staff. In the background, a bright fire or light source is visible, creating a dramatic, low-key lighting effect. The overall mood is somber and intense.

Remember. Do not look back.
Or you will be consumed.
기억해. 뒤돌아보지 마. 돌아보면 죽어.

롯의 처, 소금 기둥에 관한 영상
Lot's wife 자막

Ah...
아...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소돔과 고모라의 것으로 추측되는 잔해들이 사해 남동지역에서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의 현재 이름은 각각 **밥 에드흐-드흐라** (Bab edh-Dhra, 소돔)와 **누메이라(Numeira, 고모라)** 입니다.

영상: [kccs.info/Sodom and Gomorra by National Geographic.mp4](http://kccs.info/Sodom%20and%20Gomorra%20by%20National%20Geographic.mp4)

- 고고학자들은 밥 에드흐-드흐라의 시신 안치소 건물들의 지붕 부분이 집중적으로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하였는데, **지붕이 불에 탄 이유는 공중에서 떨어진 불덩어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곳의 토양이 **아스팔트**와 유사한 **역청(bitumen)**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역청은 다량의 **유황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 고고학이나 과학적으로는 지진대에 속한 지역인 테다가 도시가 형성된 산언덕이 화재에 취약한 가스, 석유, 황, 역청(타르), 염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소돔은 소금호수란 뜻이기도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면 지하에 묻힌 가스가 폭발하고 불이 붙은 유황과 타르가 쏟아져 내리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 고고학자 프레드릭 클랩(Frederik G. Clapp)은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불비가 내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진으로 인해** 이곳의 역청 토양이 심한 압력을 받았고, 갈라진 토양의 틈을 통해 유황이 분출 되었으며, 이때 분출된 유황이 대지 표면에서 불꽃에 점화되어 거대한 가스 불덩어리로 소돔과 고모라를 덮쳤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주목할 것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각판의 분기점에 고대 소돔과 고모라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 창세기 19장 2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응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는 아브라함의 목적담이 나옵니다.
- 과학자들은 이 연기가 바로 **유황가스를 강하게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응기점 연기같이**”라는 구절은 이 연기가 바로 지하토양이 거대한 압력으로 인해 갈라지면서 새어 나온 **유황가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본문 창세기 19장 1-29절의 이야기를 간추려보면, **사람으로 변신한 두 천사를 영접한 롯은(1-3절), 하나님의 은총(16-22절)을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 롯이 경건했는지 혹은 문란했는지 알 수 없지만(**꾸란에서는 롯을 선지자로 여김**), 그는 범상치 아니한 두 나그네를 집안으로 영접하여 들여 대접하였으며, 소돔성민들이 집으로 달려와 완력을 쓰며, 위협공갈로써 나그네들을 집밖으로 끌어내 겁탈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 **롯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이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그러나 소돔성민들은 심히 패역하였으며(4-11절), 멸망 당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받고서도 회개치 않았고(12-15절),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뜨거운 불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23-29절).
-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노아의 때에 여덟 명 밖에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에서도 롯과 두 딸들 밖에는 곧 세 사람 밖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소돔성의 멸망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 하는 경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있습니다.
- **소돔성의 멸망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장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불바다**에서 받게 될 영벌에 대한 경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있습니다.
- **소돔성의 멸망은**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적인 사건이란 것에 있습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심판사건은 **신약성경에 세 차례 인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33절, 베드로후서 2장 6-9절, 유다서 1장 7절은 모두가 말세와 관련된 문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소돔성의 멸망을 암시**하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표현된 인류에 미친 재앙이 여러 차례 쓰였습니다(계 9:13-21).
-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문제는 음행**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음행**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음행 곧 우상숭배**입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소돔성의 사람들은 잘생긴 남성으로 보이는 나그네들을 **무차별 겁탈**하려 하였습니다. 이 보다 더 무거운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영적인 음행**이였습니다.
- 계시록에서는 **이런 자들의 운명**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계 14:10)과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계 19:20),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계 20:10)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우리가 직면한 **국제 정치 군사 경제 현실**은 우리들에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육체적 경제적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 곧 정신세계의 고갈과 영적세계의 공동화에 있습니다.
- 소돔성의 최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최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우뚝 선 **아브라함이 세웠던 기준 곧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축복 된 삶(blessed life)**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창세기 21-22장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창세기 19장 30-38절

[30]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3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3A]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창세기 19장 30-38절

[33B]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4]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창세기 19장 30-38절

[36]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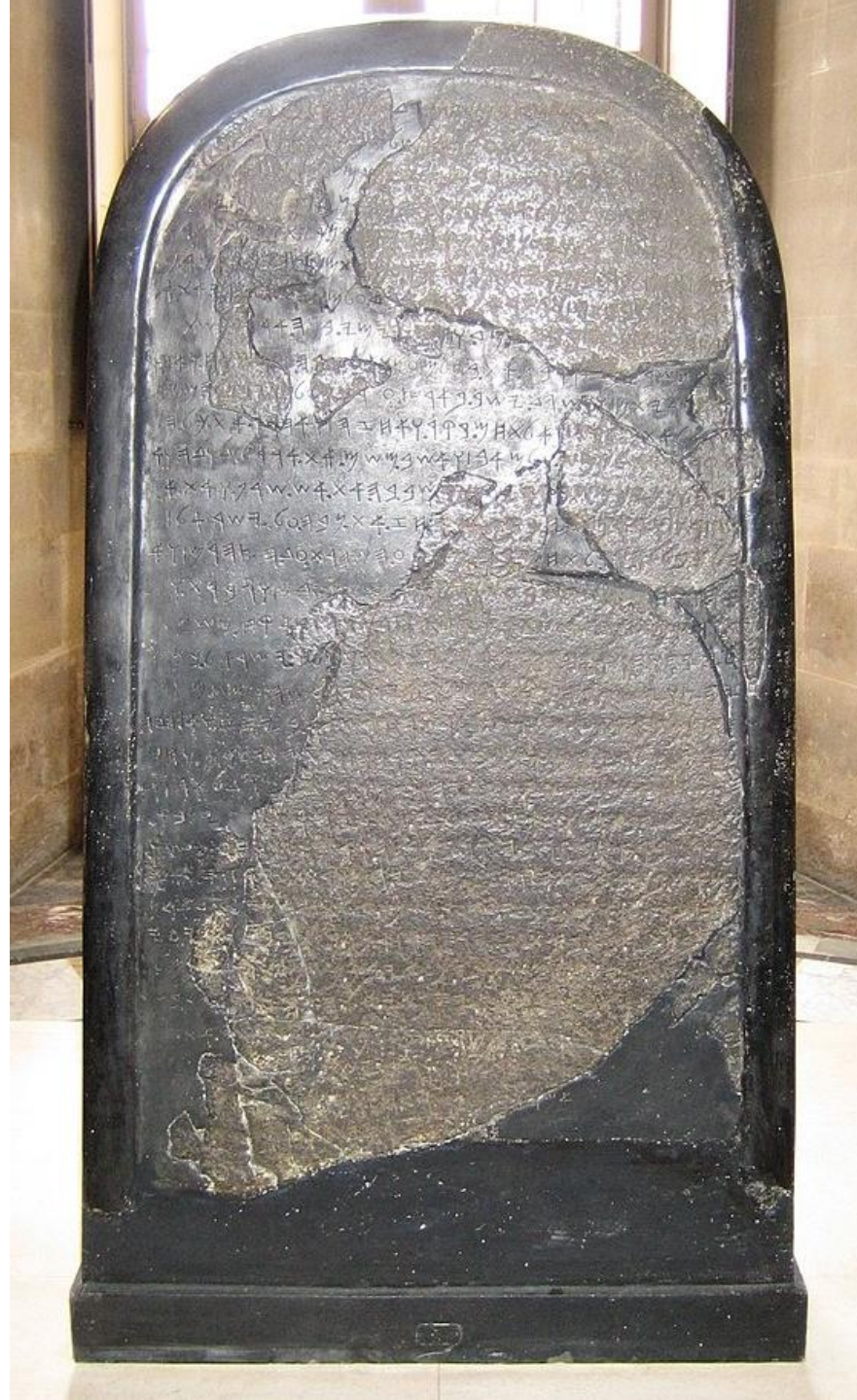
모압 מואב '아버지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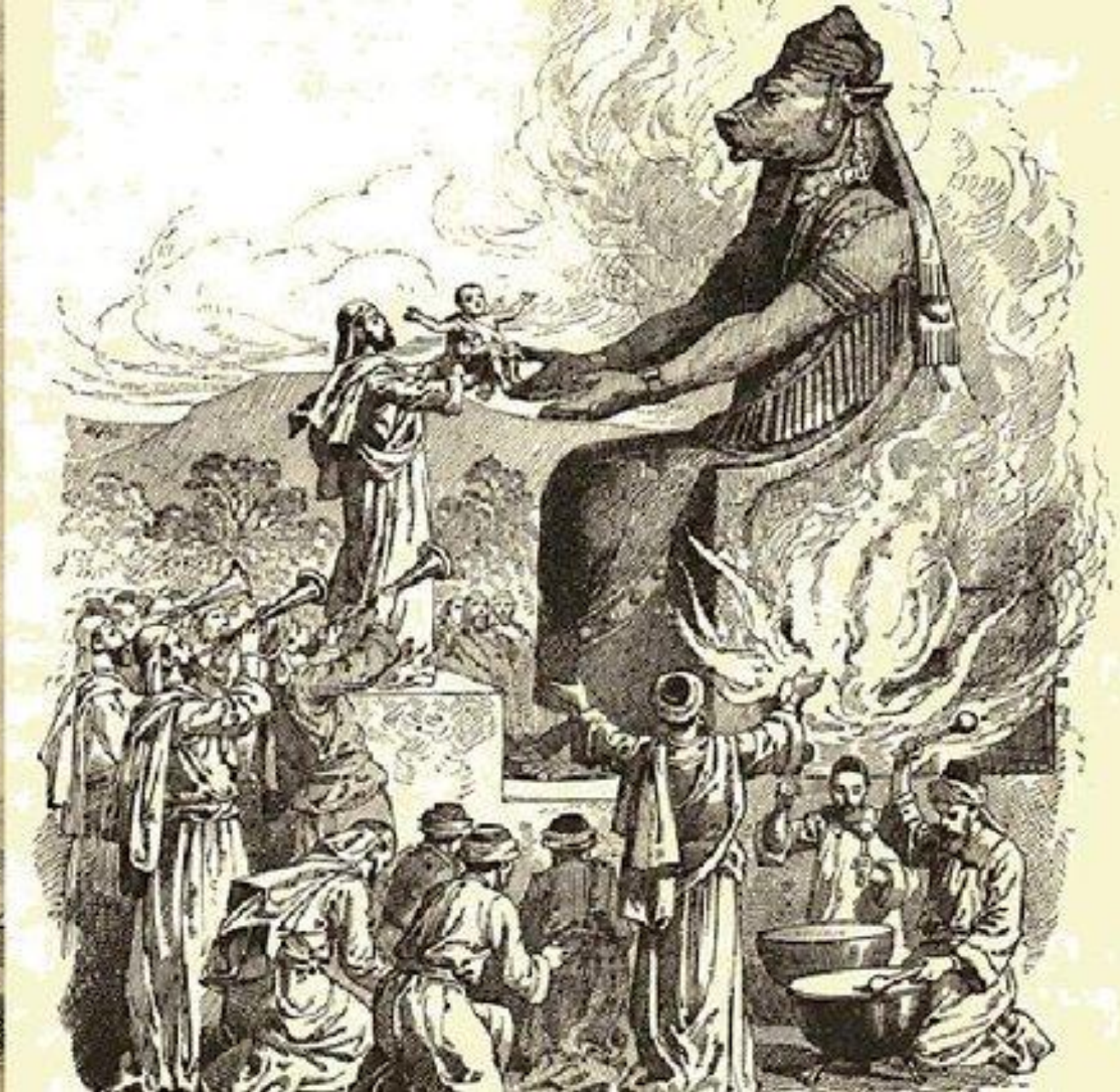
벤암미 בני-עמון '내 백성의 아들'

알바루(Al-Balu')
모압 족속의 석비
(요르단 박물관)
그모스(Chemosh 좌측)
신이 중앙의 남성에게
권력(홀, 신권)을
넘기는 장면



기원전 840년경 모압의 왕
메사(Mesha)가 세운
석비(루브르 박물관).
메사 왕이 북 이스라엘
왕국의 지배에 맞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모압을
해방하였다는 내용이
페니키아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암몬 족속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몰록(Moloch)



이스라엘 주변의 왕국들

소돔 고모라 멸망의 원인



< 현재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이라고 추정되는 위치 >

kccs.info/Sodom and Gomorrah by National Geographic.mp4

룻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창세기 19장 30-38절은 소돔과 고모라성의 파멸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룻과 두 딸의 비극적인 삶이 실린 글입니다.
- 쾌락에 미친 소돔사람들에 의해 갈가리 찢길 뻔 하였고, 불타는 소돔성 불구덩이에서 극적으로 목숨만 건졌으나 전재산과 아내를 잃은 **룻**과 어머니를 잃은 **두 딸**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은 **공포와 외상 후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주목**할 필요를 느낍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첫째는** 롯과 두 딸의 상황인식방법과 문제해결방법에 크나큰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롯과 두 딸은 아브라함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양보하였고, 전쟁포로가 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왜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고 동굴로 들어갔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둘째는** 한일장신대 이종록 교수는 극단의 비상 상황에서 가장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롯의 두 딸이었고, 그녀들에게 남은 것은 **모성 본능**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룻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재산과 아내를 잃은 **룻의 고통**도 딸들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 **셋째는** 타민족과의 갈등과 폄하, 역사왜곡, 곧 역사를 쓰는 이스라엘인의 입장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편견은 없었는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를 느낍니다.
- 야곱의 아들 유다를 시아버지로 두었던 며느리 **다말**이 남편과 둘째 시동생을 잃고 나서 후사를 걱정한 나머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대를 잇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유다왕족혈통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룻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반면에 정신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놓였던 두 딸이 부친을 술 취하게 만들어 잠자리에 든 후에 모압과 벤암미를 잉태하여 이스라엘 인근의 두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는 점은 폄하해도 좋을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들 민족들 간의 평가는 그들의 불륜이나 혈통에서 찾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의 우열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형태의 우상이나 신화도 없고, 여신도 없는 차원 높은 인격신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룻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반면에 **모압족속은** **그모스(Chemosh)**라는 우상을, **암몬족속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몰록(Moloch)**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 이들 세 민족 간의 우열은 혈통문제에서보다는 그들의 정신세계와 신앙세계에서 나타납니다. 불행하게도 정신세계가 심히 피폐해진 룻과 두 딸에 뿌리를 둔 모압과 암몬은 차원 높은 야훼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저질의 우상숭배에 빠져들면서 같은 피가 흐르는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베푸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신 후에 소알성에 머물게 하셨지만, **롯은 공포심 때문에** 도시를 떠나 산으로 피신하여 그곳 굴속에서 두 딸과 생활합니다.
- 그리고 **폐쇄된 공간 굴속에서 개방적인 미래를 펼치지 못한 두 딸들이 도달한 결론은 과히 정신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롯과 두 딸은 엄청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롯데와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어쩌면 롯데와 두 딸은 어떤 다른 대안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극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 롯데와 두 딸에게서 나타난 이런 일련의 정신적인 증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부릅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롯데와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심각한 외상적인 사건은 전쟁, 자동차 사고, 폭행, 강간, 테러, 폭동, 지진, 홍수, 화산 폭발 등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삼풍 백화점 붕괴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서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첫째는** 그 외상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경험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꿈에 계속 나타난다거나, 반복적으로 그 사건이 생각난다거나, 마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거나 느끼는 경우입니다.

룻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둘째는** 그러한 외상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회피하거나, 그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또 그 반대로 전과는 다르게 반응이 둔화되는 경우로써 활동이나 흥미가 감퇴되고, 정서적으로 위축되는 경우입니다.
- **셋째는** 불면증, 분노의 폭발, 집중력의 감퇴, 놀람 반응 등과 같은 과민현상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와 더불어 우울, 불안,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곤란, 흥미상실, 대인관계에서 무관심하고 멍청한 태도를 보이면서 짜증, 놀람, 수면 장애 등을 보입니다.

롯데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정신적인 무감각과 부정, 피로, 두통, 근육통 같은 신체증상 등이 나타나고, 흔히 기억장애나 공황발작, 미칠 것 같은 과잉 행동, 위축도 나타납니다.
- **넷째는** 착각, 환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사고 경험과 비슷한 위험 상황을 회피하며 그런 비슷한 자극으로도 증세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 **다섯째는** 약물남용이나 알코올남용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 재난을 당한 사람들 중 5~75%에서 이런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겪는 재난은** 대개 전장에서의 경험이며, **여성의 경우는** 습격이나 강간이라고 합니다.

롯데와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어느 연령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기에 가장 많고, 이혼, 사별, 신체불구, 사회적 위축과 많이 관련된다고 합니다.
- 요즈음 같으면, 항우울제와 같은 적절한 약물이나 단기 정신치료를 실시하여 고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롯데와 두 딸은 공황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 소돔성의 파멸로 인한 충격이 롯데로 하여금 두 딸들을 굴속으로 데려가게 했고, 두 딸들은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다”는 **폐쇄적인 사고**에 머물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도리’란 혼인 관습을 말한 것입니다.

룻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동굴은** 죽음, 무덤, 음부, 지옥, 자기감옥, 정신적 감옥, 폐쇄적 자폐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동굴에 갇히는 현상을 코쿰(cocoon)**이라고 하는데, 코쿰이란 누에고치란 뜻입니다.
- 불확실한 사회에서 보호받을 목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이나 교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거부하며 외부와의 단절을 선언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와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일본에서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을 **히키코모리**라 부르는데, 그 수가 일본인 전체인구 가운데 1퍼센트에 해당되는 130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20~30대라고 합니다.
- **히키코모리의 공통점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가정에서는 불화와 폭력에 시달린 끝에 부모와 대화가 단절됐으며, 인터넷 게임에 중독됐다는 점입니다.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률 증가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양산시키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룻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우리는 오늘 룻과 두 딸에게서 이런 비극적인 증상을 보게 됩니다. 룻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적어도 세 가지의 교훈은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첫째, 세속도시문명을 동경하거나 환락의 마약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룻은 스스로 타락의 성 소돔을 선택했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딸들을 그곳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어 사위를 맞으려고 하였습니다. **야훼신앙의 끈이 끊기는 불행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룻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소돔성 심판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소돔성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머뭇거렸고, 그 바람에 더 멀리 피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 **둘째,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룻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깊은 뜻과 자비를 헤아려 알려고 하기보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소돔성에서는 두 딸들을 우상숭배하는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 **마지못해 소돔성을 탈출하던 부인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두 딸들은 동굴에서 나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비도덕적인 생각까지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 이런 일련의 정황들로 봐서 **롯은 가족들에게 신앙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비극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 **셋째, 동굴과 같은 폐쇄적인 사고나 자폐적 공간에 갇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는 한 적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롯의 실수는** 개방적인 자연과 공간을 버리고, 동굴을 찾아 들어갔다는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산속 동굴을 택했습니다.
- 롯은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가 처음 아브라함을 좇아서 갈데아 우르를 떠난 것은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시문명을 동경한 나머지 소돔성을 선택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소돔성은 최악의 도성이었으며, 파멸을 맞이할 운명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죽음의 소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성을 빠져나와 소알성에 거하게 된 롯이 이번에는 산속 동굴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도성에 거하지도 않았고, 동굴 속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거한 곳은 태양이 밝게 비치는 넓은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무로 삼은 것은 죄악을 먹고 마시는 도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높고 푸른 하늘에 계신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 여러분이 동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 룯과 같은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룯이 겪었던 불행이 성도님들의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22장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창세기 20장 1-18절

- [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 [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 [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창세기 20장 1-18절

- [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 [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창세기 20장 1-18절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8]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창세기 20장 1-18절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창세기 20장 1-18절

[11]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창세기 20장 1-18절

-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창세기 20장 1-18절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아비멜렉”** (אַבִּימֶלֶךְ)의 뜻: “나의 아버지는 왕”
- **“아비멜렉”은 호칭.** 예: 바로(Pharaoh: 큰집, 성스러운 권좌)
- **“나의 이복 누이”** (בְּתֻלַת אִמִּי)의 뜻:
“딸, 나의 아버지, 그녀, 그러나, 아니다, 딸,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딸이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어머니의 딸이 아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약속의 땅을 떠난 롯이 경험했던 불행한 일들과는 반대로,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 가나안을 침공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무찔렀고,
 -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14장)을 받았으며,
 - 쫓겨간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으며(15장),
 - 하갈한테서 이스마엘을 얻었고(16장),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하나님께서 언약백성의 표시로 할례제도를 세워 주셨으며,
- 이삭 출생을 약속하셨고(17장),
-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였으며(18장),
- 이전보다 발전된 신(神)개념을 갖는 등 **아브라함의 삶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 아브라함이 받은 이런 일련의 축복이 비단 아브라함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받아왔고, 또 2025년에도 풍성히 받을 축복이라 믿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19장) 목격한 아브라함은 **헤브론 인근 마므레**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네게브 광야 그랄 땅(Gerar)**에 머무르게 됩니다.
-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간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밟는 땅이 다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창 15:18)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떠돌이가 되게 하셨다**고 13절에서 말했습니다.
- 오늘날 **네게브 광야는 첨단 농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 아브라함 당시 **그랄(Gerar)**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 하였고,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 **블레셋** 사람들은 함의 후예로서 지중해의 북쪽 서안 **튀르키예** 혹은 **크레테**에서 가나안 남쪽 가나안 해안으로 이주해온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게문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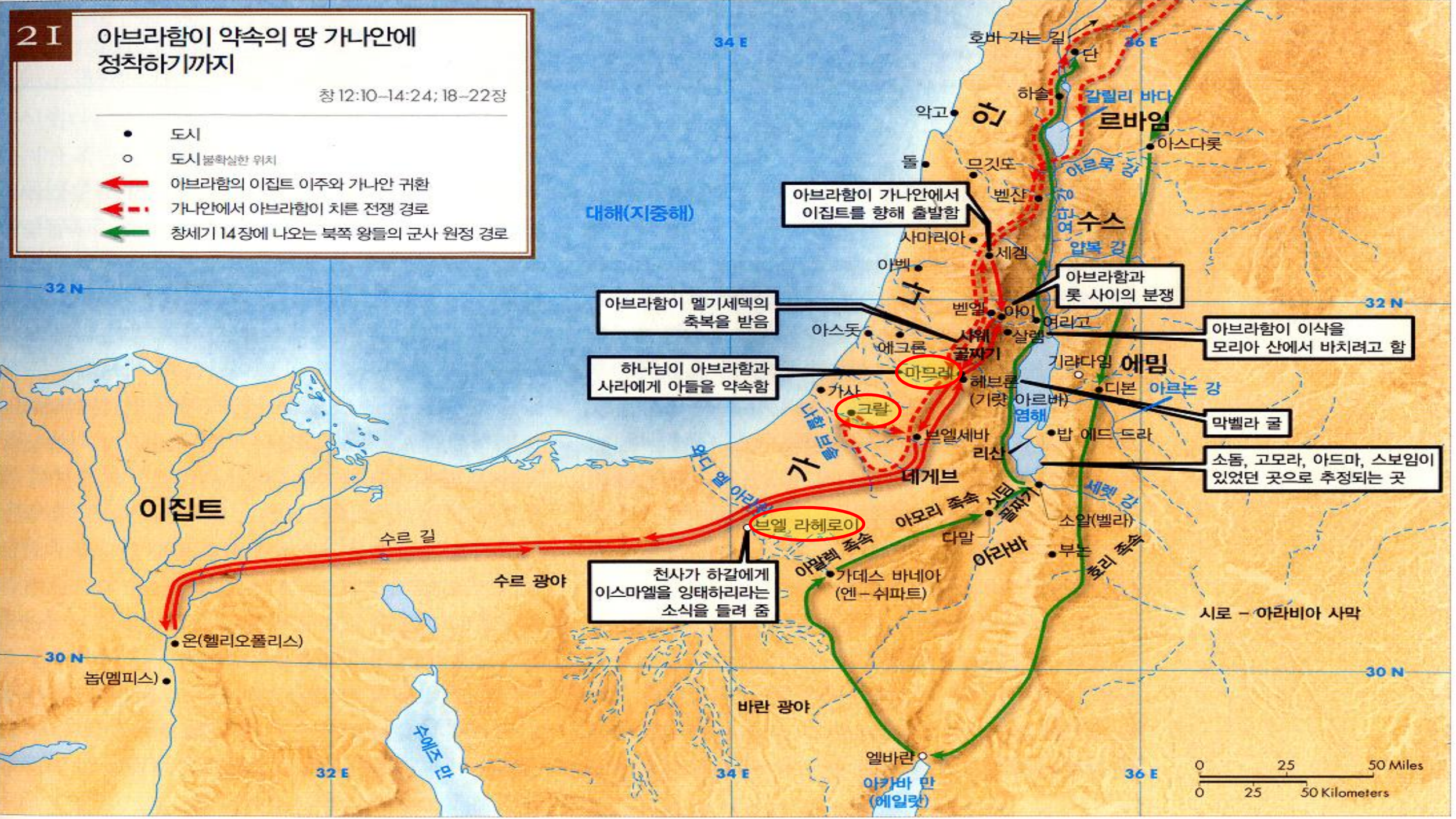


블레셋인들의 가나안 이주 가상 경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창 12:10-14:24; 18-22장

- 도시
- 도시 불확실한 위치
- ← 아브라함의 이집트 이주와 가나안 귀환
- ←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 경로
- ←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북쪽 왕들의 군사 원정 경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향해 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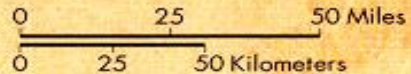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분쟁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함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

천사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려 줌

시로 - 아라비아 사막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블레셋 사람들은 배를 다루는 항해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대에 지중해를 주름잡던 민족이었습니다.
- 더불어 서안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보다 용맹하였을 뿐 아니라 일찍부터 철기를 다룬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앞선 민족이었습니다.
- 그들이 섬겼던 신은 **‘다곤’으로 바다의 신**이었습니다.

- 스타벅스 로고에 사용된 팔레스타인의 신 다곤(Dagon)과 아스다롯 (Astarte).
- 위의 로고는 각각 1971년과 1992년의 것이고, 좌측 아래는 에그론(Ekron)의 물고기 신 다곤(Dagon)이며, 우측 아래의 부조는 풍요와 생식의 신 아스다롯이다.





The Pagan Goddess "Ishtar"



FAKESERVICES.COM A THOUSAND PATHWAYS DEEP



1971

We start by selling coffee beans in Seattle's Pike Place Market.

1987

We add handcrafted espresso beverages to the menu.

1992

We become a publicly traded company.

2011

We mark 40 years and begin the next chapter in our history.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많은 가축과 식솔들을 거느린 아브라함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경계심과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더욱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고, 비록 나이 많아 늙었으나 아름다웠던 사라를 빼앗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11절).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 را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버지 테라의 딸이면서 어머니가 다른 누이였습니다.

“나의 이복 누이”

בַּת־אָבִי הִוא אֶךְ לֹא בַת־אִמִּי

딸, 나의 아버지, 그녀, 그러나, 아니다, 딸,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딸이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어머니의 딸이 아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아브라함의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 성경에 보면, 이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했다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일 때마다 그리고 사라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때마다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복을 받고 있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아브라함이 인간을 속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일까요?**
-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들**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속임수의 문제는 낙태, 안락사, 사형, 생명공학, 폭력 등과 더불어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윤리학자들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절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 1600년 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짓에 반대하는 글을 몇 차례 쓴 일이 있습니다.
- 그는 이 글들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거짓에 대해서는 사라가 그의 누이였기 때문에 그가 한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는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말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그러나 많은 절대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순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위협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있었다는 것, 그의 믿음이 불완전했다는 것, 그도 역시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편에 서셨고,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상황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단 하나의 규범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과 동일한 처지에 놓였다면,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로 부터 나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과 식솔들과 가산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사라는 아브라함의 판단이 비록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것일지라도 그의 판단이, 혹은 자신의 희생이 가족을 진심으로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 또 그들의 그런 진심이 하나님께 통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 믿고 그리 행동했을까요? 아무튼 결과는 좋았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주셨으니깐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했습니다.
- 동일한 맥락에서 롯은 소돔성 입구에서 만난 범상치 아니한 두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 딸을 소돔 사람들의 성노리개로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과연 옳은 처사였을까요? 그의 진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롯의 처신에 대한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소돔성에 남아서 불로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니깐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공리주의자들**이라면 아브라함과 롯의 처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중시할 뿐 아니라, 좋은 결과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아브라함도 살고, 사라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이 사자가 정조를 잃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일까요?
- **차등적 절대주의자들**은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별하여 더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역시 목숨을 지키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상충적 절대주의자들은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들 사이에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에 더 중요한 일을 행하고, 덜 중요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회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속임수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 오늘날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눈앞에 닥친 위협에 견디지 못하고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곤 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아브라함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보다 강한 이방민족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화상이자, 모형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뒷수습을 하나님께 맡겨둔 채, 경거 망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된 결정에 개입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을 한 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선택이 과연 최선이였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밖에 선택할 수 없었을까를 고민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비록 사라를 취한 아비멜렉의 행위가 당대의 관행으로 볼 때, 합법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된 사회 풍조였습니다. 명명백백한 죄였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 관행이나 관습의 잣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 이런 이유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 사라에게 은 천개를 주어 보상했습니다. 그런 그의 회개로 인해서 그는 가문의 모든 태를 닫으신 하나님이 내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신이십니다. 회개한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아비멜렉에게 내린 재앙이 거둬진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부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이뤄진 일입니다.
- 하나님은 당신의 종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의 출산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능력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로 부각시켜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의 지위를 막강하게 만들며, 그와 그의 후손이 장차 팔레스타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기틀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위해 개입하시고 도우십니다.**
-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하며, 소망 중에 인내로 2025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22장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창세기 21장 1-7절

-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 [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 [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 [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창세기 21장 1-7절

[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히브리어로 '이삭'을 표기하는 두 가지 방법

יצחק

이쯔하크

ישחק

이스하크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יצחק

짜하크

ישחק

샤하크

웃다

창세기 21:12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because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갈라디아서 3:16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but "and to your seed," meaning one person, who is CHRIST

창세기 17:19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랍비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 예언으로 봄)

시편 2장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מְשִׁיחַ (메시코/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 שׂוֹחֵק (이스하크/이삭)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창 21:6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6] 내가 나의 왕 מַלְכִי (말키/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성부 하나님의 예표
이삭=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7]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בְנִי (베니/나의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창 21:7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구약성경에 쓰인 “엘로힘”(Elohim, אֱלֹהִים)은 엘로아(אֱלֹהַּ, Ēlōah, 권능자)의 복수 명사로써 단수 동사를 받는 유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교에서는 엘로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 곧 모형과 그림자로 봅니다.
-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 곧 모형과 그림자로 봅니다.
-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유일한 적자이며, 이삭의 아들 **야곱에 의해서**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형성된 과정은 온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독생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킨 성령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열 두 부족 동맹의 기초(율법과 규례) 위에서 건설 되었습니다.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열 두 사도들의 기초(믿음과 실천)에서 건설 되었습니다.
-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열 두 사도들과 성령의 사역으로 주후 30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문자적 이스라엘이 주전 1446년 오순절 날에 시내산 기슭에서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이삭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출생이 예언되었습니다(창 17:16; 사 7:14, 눅 1:31).
- **두 번째**, 출생이 선포되었습니다(창 18:10. 히 13:2, 눅 1:26-31).
- **세 번째**, 기적으로 임신이 이뤄졌습니다. 이삭은 100세, 90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 **네 번째**, 독생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셨습니다(창 22:2, 12). 예수님은 “독생자”(요 3:16) 혹은 “독생하신 하나님”(요 1:14, 18)으로 불렸습니다.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다섯 번째**, 사랑받는 아들들이었습니다(창 22:2, 마 3:16, 막 9:7).
- **여섯 번째**,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갈 4:22-26; 행 13:32-33).
- **일곱 번째**, 천하 만민이 복 받을 자들이었습니다(창 22:18, 갈 3:8,16, 요일 2:2).
- **여덟 번째**, 죽기까지 복종한 자들이었습니다(창 22:6-9, 눅 22:42, 빌 2:8).
- **아홉 번째**, 자신들을 희생시킬 나무를 짊어진 자들이었습니다(창 22:6, 요 19:17).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열 번째, 나귀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무를 짊어졌습니다(창 22:3, 막 15:21).
- 열한 번째, 모리아 산으로 올랐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창 22:2).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시온 산 곁에 있는 성전 산으로써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 인근에 있었습니다.
- 열두 번째, 두 종과 나귀는 산 기슭에 남았고(창 22:5), 제자들을 도망하였습니다(마 26:31, 요 16:32, 18:8-9, 막 14:50).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열세 번째, 아버지에게 제물에 대해 물었습니다(창 22:7, 막 14:36, 마 26:39, 42).
- 열네 번째, 희생물이 되기 위해 결박된 자들이었습니다(창 22:9, 마 27:2).
- 열다섯 번째, 나무 위에 올려졌습니다(창 22:9, 행 2:23)
- 열여섯 번째, 두 종과 두 강도가 아들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창 22:3. 마 27:38).
- 열일곱 번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창 22:2,3,6,7,8,13, 벨전 2:24, 히 10:5-10).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열여덟 번째, 죽을 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사 53:9; 고후 5:21; 벨전 2:21).
- 열아홉 번째, 대속물로 양이 준비되었습니다(창 22:7-8, 13).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한 양이셨습니다(요 1:29).
- 스무 번째,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렸습니다(창 22:13). 어린양 그리스도께서도 가시관을 쓰셨습니다(마 27:29).
- 스물한 번째, 희생 전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창 22:11, 눅 22:43).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스물두 번째**, 생환자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을 향한 지 제삼일만에 제물이 될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창 22:4).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제삼일만에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 **스물세 번째**, 문자적 이스라엘 나라와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창 25:21, 출 1:7, 갈 4:27, 히 2:10).



창세기 21-22장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창세기 21장 8-21절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창세기 21장 8-21절

[1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창세기 21장 8-21절

- [15] 가족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장 8-21절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뜻

יצחק

이쯔하크

ישחק

이스하크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들으시는

ישמעא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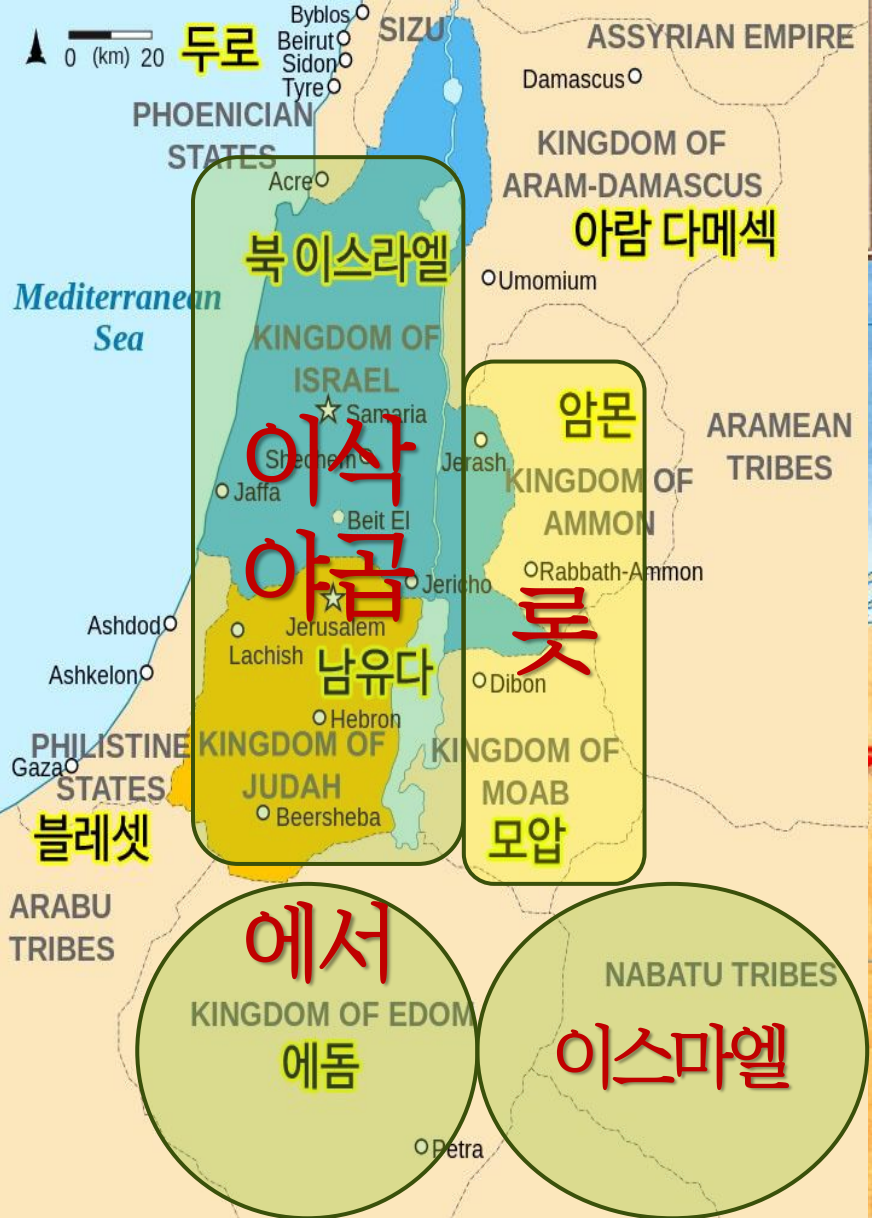
하나님

이스마

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창 12:10-14:24; 18-22장



이스마엘의 12부족 창세기 25:12-18

1. 느바웃 Nebaioth
2. 게달 Kedar
3. 앓브엘 Adbeel
4. 밍삼 Mibsam
5. 미스마 Mishma
6. 두마 Dumah

7. 마사 Massa
8. 하닷 Hadar
9. 데마 Tema
10. 여둘 Jetur
11. 나비스 Naphish
12. 게드마 Kedemah

이슬람과 꾸란의 주장

● **꾸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리고
 오늘날의 **메카**로 가라고
 하셨고, 이슬람의
 선지자 **무하마드**는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웃**
 혹은 차자 **게달**의
 후손으로 믿고 있다.



꾸란 14장 37절

رَبَّنَا إِنِّي أَسْكَنْتُ مِنْ ذُرِّيَّتِي بِوَادٍ غَيْرِ ذِي
 زَرْعٍ عِنْدَ بَيْتِكَ الْمُحَرَّمِ رَبَّنَا لِيُقِيمُوا
 الصَّلَاةَ فَاجْعَلْ أَفْئِدَةً مِنَ النَّاسِ تَهْوِي إِلَيْهِمْ
 وَارْزُقْهُمْ مِنَ الثَّمَرَاتِ لَعَلَّهُمْ يَشْكُرُونَ ﴿٣٧﴾

37. 주여 저는 당시의 명령에 따라 제 자손의 일부를 계곡에서 거주토록 하였으니¹⁾ 그곳은 경작지가 없는 당신의 성스러운 집이었습니다²⁾ 주여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37. 주여 저는 당시의 명령에 따라 제 자손의 일부를 계곡에서 거주토록 하였으니¹⁾ 그곳은 경작지가 없는 당신의 성스러운 집이었습니다²⁾ 주여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토록 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과실을 일용할 양식으로 베푸시어 저들이 감사하도록 하여 주소서

7-1)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메카 계곡에 정주케 하였다.
 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현재의 잠잠샘이 있는 곳에 아내 하갈과 젖먹이 이스마엘을 두고 어디론가 떠났는데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경작지나 우물하나 없는 계곡에 싸인 불모지로 바로 그곳은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마엘이 세운 카의바 신전이 있는 오늘날의 하람사원이었다.

이스마엘의 열 두 부족의 정착지: 사우디 아라비아 (창 17:20, 25:12-18)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 **이스마엘**은 무하마드와 일부 아랍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 그럼 점에서 **하갈**은 이슬람교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 **하갈**(**Ḥāḡḡ**, '도망'이란 뜻)은 랍비 혹은 이슬람 문헌에서는 **바로(Pharoah)의 하녀** 혹은 **바로의 딸**이었다고 말합니다.
- 이슬람교에서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메카의 **'카바'(Kaaba)**가 세워진 곳에 남겨 뒀다고 합니다.
-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메카의 **사파(Safa)와 마르와(Marwah)** 언덕 사이를 일곱 번이나 물을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 결국 샘을 찾았는데, **가브리엘**이 만들어줬다는 설도 있고, **이스마엘**이 발로 땅을 긁었더니 물이 솟아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샘은 오늘날 **‘잠잠’(Zamzam)**이라 불립니다.
- 이 때문에 메카 순례자들은 **사파와 마르와 언덕**사이를 일곱 번 달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 샘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메카에 정착하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그들을 주기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며, **알라의 명령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곳에 오늘날 ‘카바’라 불리는 석조 모스크를 세웠다고 합니다.**

메카의
알하람
모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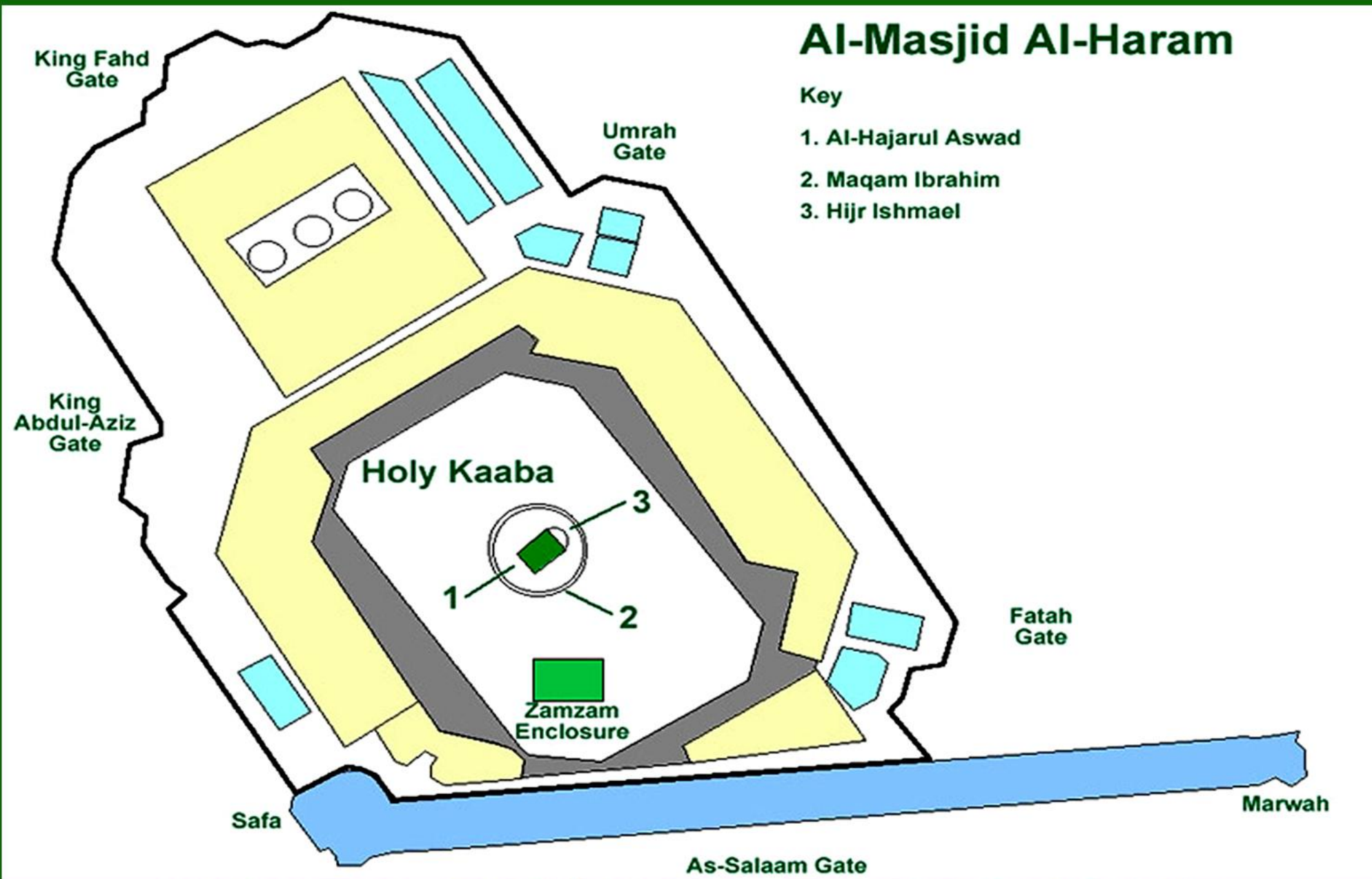


마르와

카바

잠잠

사파



알하람 모스크 안에는 사파와 마르와 언덕이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에 소재한
알하람 모스크
중앙에 있는
카바(Kaaba)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알라의
명령으로 메카에
석조 모스크 카바를
세웠다고 한다.





하갈과 이스마일이 찾았다는 잠잠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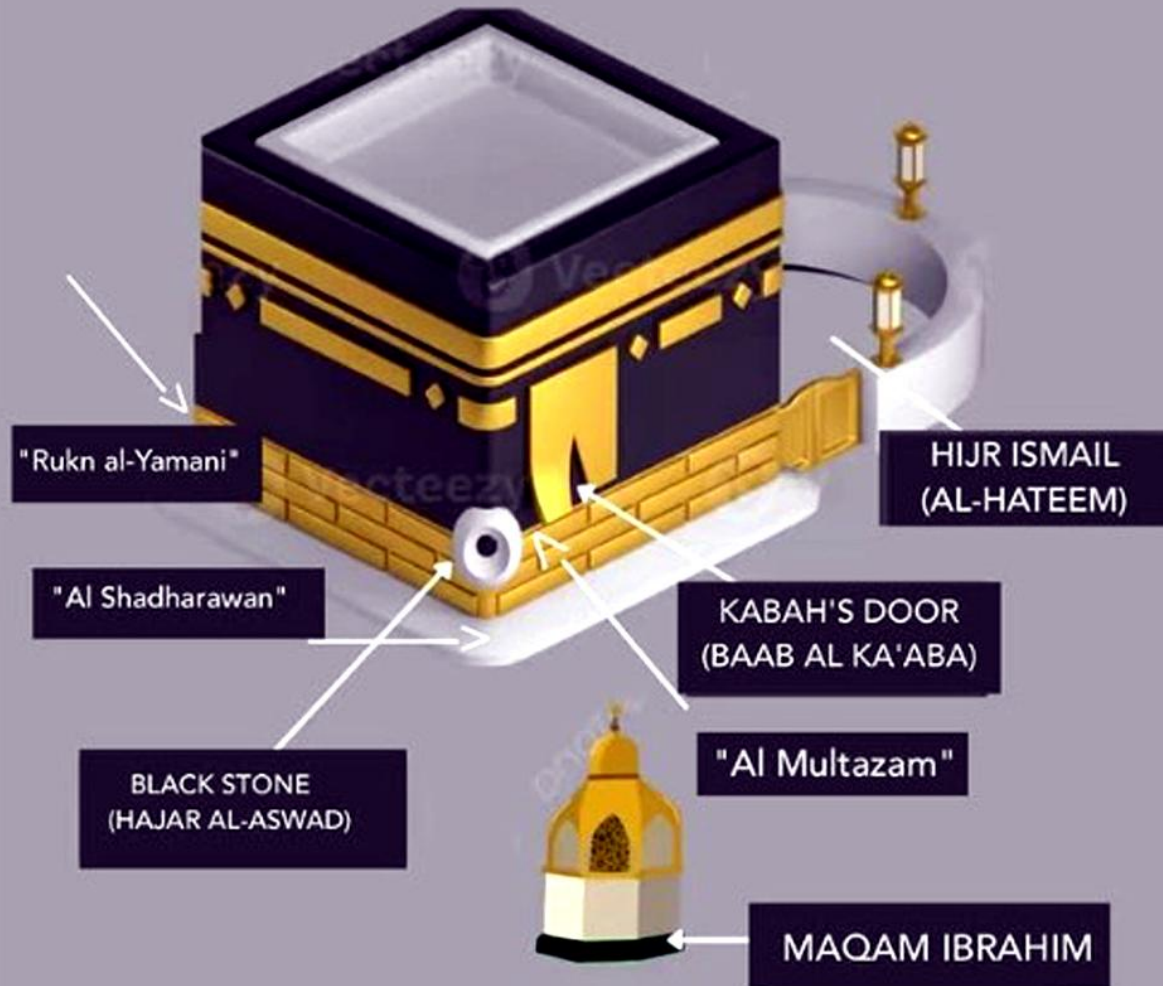
이브라힘이 카바를 건축할 때 사용한 돌인 마قام 이브라힘,

메카의 카바

KEY FEATURES

(NOTE: I HAVE ONLY MENTIONED A FEW)

IG@all.about.islam.learning



검은 돌
하जर
알 아스와드

히즈르 이스마일

마قام 이브라힘

갈라디아서 4장 22-31절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 (모형, 그림자, 예표)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갈라디아서 4장 22-31절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땅=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Paul's Archetype of Hagar and Sarah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바울의 모형론(갈라디아서 4장 22-31절)

HAGAR 하갈	SARAH 사라	그리스도인들
Slave 노예	Free 자유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Law 율법	Grace 은혜	노예 여종(죄)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성령)의 자녀 곧 유업을 이을 자들(갈 3:29)
Mt. Sinai (where the Law was given) (율법)	Mt. Zion, Jerusalem (where God gives mercy) (은혜)	
Ishmael: Born of the flesh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	Isaac: Born of the Spirit 이삭: 성령을 따라 난 자	
Ishmael—no share in the inheritance 유업없음	Isaac—heir 이삭 - 유업있음	

하갈을 권념(돌보아 생각함)하신 하나님(창 21:8-21)

- 본문에서 우리는 하갈 인생의 부침(浮沈)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으로써 일개 여종의 신분에서 일약 후계자의 어미로 변신하였고, 본부인을 멸시할 정도로 위풍당당하더니, 본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자라 젓을 떼자, 자기 아들과 함께 쫓겨난 파란만장한 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 그러나 **하갈 인생의 부침은 하갈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을 권념(돌보아 생각함)하셨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하갈은 젊고 건강한 여인으로서 일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순종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하갈의 행동거지를 눈여겨보았을 것이고,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애라면 남편에게 낳 대신해서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아주되, 교만 떨지 아니하고 속 썩일 일 없을 거야.”
-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간사한 것**입니까?
처음엔 감히 안방을 기웃거리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하갈이었을테지만, 일단 안방에 한발을 집어넣게 되자, 두발 다 집어넣고 싶어 졌을 것이고, 두발을 집어넣은 후에는 아랫목을 독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종국에는 마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안방마님이 되는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가족들로부터 온갖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삭에게 빼앗겼으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모든 상황을 눈치챌만한 나이까지 들었으니, 이삭이 그저 밉기만 했을 것입니다.
- **하갈이 지혜로웠더라면**, 이스마엘의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행동을 제지시켰을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맙니다. 그 일차적인 책임이 하갈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좀 더 자중하여 제 위치를 지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마엘이 장성한 후에 제 몫의 기업을 얻고 나서 분가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갈데아 출신의 사라와는 민족적 충돌도 가능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 이런 일련의 일들로 아브라함의 근심이 깊어 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근심도 아브라함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엄격히 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한 믿음이 만들어낸 자식입니다.
-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출생까지도 미리 알고는 계셨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13절)고 하셨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사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 주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실수와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목적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민족을 이룰 목적이 달랐을 뿐이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 물론 아브라함의 동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 자신들입니다.
- 동지를 떠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닥친 시련은 열대의 더위와 갈증이었습니다. 사막이나 다름없는 광야에서 한 가족부대의 물은 그리 많은 양이 아닙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그들은 집에서 멀리 가지도 못한 채 이미 길을 잃었고 사막에서 방황하였으며 가족부대의 물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 하갈은 기진한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그늘아래 눕히고,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며 화살 날아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이스마엘 쪽을 마주보고 앉아 방성대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 그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와 이스마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천사(가브리엘?)를 보내어 하갈을 돕게 하셨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였고,** 하갈은 가족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 그 후로도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였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성대곡하는 절망에 빠진 하갈을 도우셨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한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의기양양해 하던 하갈이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여주인을 비웃던(16:4) 건방지고 배은망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이제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처량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갈의 그런 모습 속에 임하셨습니다. 자기주제를 잊고 교만에 빠졌던 하갈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울부짖는 하갈의 바닥으로 떨어진 그 모습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 **하갈의 처지와 같은 낮은 자세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이 낮은 마음이야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마음**입니다. 또 이런 처지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좋을 만큼 평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고대사회에서 아들은 권력과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 근친강간을 율법에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두 딸이 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
-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
-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를 이을 아들 없이 죽은 형을 위해서 아우들이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형수에게 아들을 낳기까지 남편 노릇을 해줘야 했던 이유,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불륜을 저질은 부도덕한 행위이기에 앞서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한 충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 이들 여성들은 하갈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불가피한 씨받이였던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전에 둔 하갈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런 것이었겠는 가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성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씨반이로 맞아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탓입니다.
-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실부인과 첩과의 갈등, 적자와 서자의 지위문제 등으로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하갈이 집밖으로 쫓겨난 것이 반드시 비극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은 내쫓김으로써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1947년에 **리피트 이쉬타르 법전**(the Lipit Ishtar Code)이 발굴되었는데, 고대 수메르의 작은 왕국 이신(Isin)의 5대 왕인 리피트 이쉬타르는 그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법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미 존재했던 수메르의 풍습들로부터 대부분의 법률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그 법전은 노예들에 대한 대우, 상속, 결혼 같은 일들을 다루는 38개의 법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 만일 어떤 사람이 여종을 취하여 그 여종에게서 자녀를 얻고, 또 그 아내에게서도 자녀를 얻을 경우 **그 여종과 여종의 자녀에게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여종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기업을 본 아들과 나눌 수 없다.**
-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은 기업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유를 얻는 대신에 아브라함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축복을 말합니다.

-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은 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린 것처럼 설명합니다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을 택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이며, 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 그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아브라함은 다민족의 조상이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적자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민족입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마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아랍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이집트인이며, 그의 아내도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데아인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 **요르단복음주의신학교 신학대학원 부원장으로 있는 토니 마을루프 교수**는 레바논 출신으로 프랑스 유학시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델러스신학교에서 9년간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그는 <성경역사에서의 아랍인>이란 박사학위논문에서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이 구약의 여러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으며, 율과 잠언 30-31장의 **아굴과 르무엘이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하나님은 절단코 이삭만을 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행불행만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 곧 유대민족보다 더 불행한 민족이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갈을 권념(돌보아 생각함)하신 하나님 2025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

- 한없이 낮아진 하갈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15:1)과 이삭(26:24)과 다니엘(단 10:12)에게도 들려주셨던 동일한 말씀인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시 81:7), 삼손도 죽음을 앞두고 부르짖었습니다(삿 16:28). 신앙의 열조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 하갈의 부르짖음은 샘물을 찾게 한 능력, ‘보시는 하나님’ (God Who Sees)과 ‘들으시는 하나님’ (God Who Hears)을 체험하게 한 능력이었습니다.



창세기 21-22장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창세기 21장 22-34절

[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창세기 21장 22-34절

[26]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찜이냐?

창세기 21장 22-34절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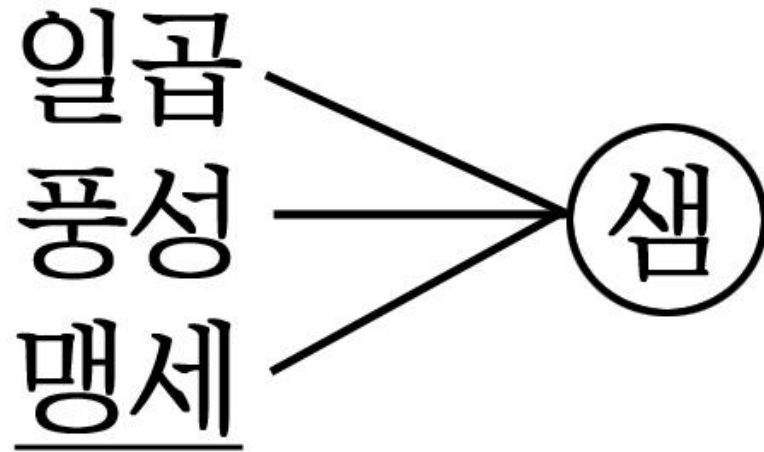
A topographic map of Israel with a grid overlay. Two red location pins are placed on the map. The first pin is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near the Mediterranean coast, and is labeled 'JERUSALEM'. The second pin is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inland, and is labeled 'BEERSHEBA'. Orange lines represent major roads or highways. The terrain is shown in shades of green and brown, with the Mediterranean Sea to the west and the Dead Sea to the east.

JERUSALEM

BEERSHEBA

브엘세바의 뜻

쉬바 **בְּאֵר שֶׁבַע** 브엘



텔 브엘세바 유적지





텔 브엘세바 유적지 샘과 에셀나무



텔 브엘세바 유적지 샘과 에셀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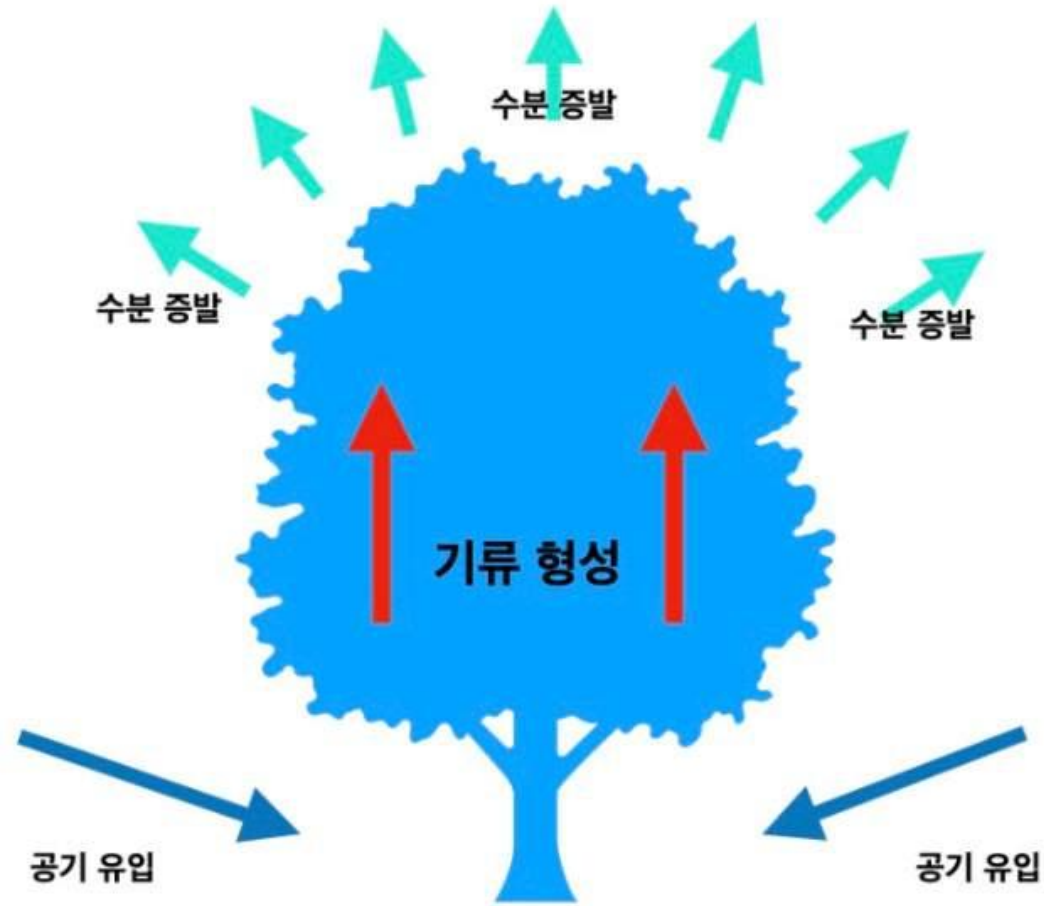


우물 속과 에셀나뭇잎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עֵשֶׁל)나무를 심은 이유

- 야훼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 아브라함은 거기서 야훼(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엘 올람)’이라고 불렀다. there he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יְהוָה) the Eternal God(עֵלֹהֵי לָא)● 온 가족의 안식과 쉼을 위해● 나그네들에게 음식과 쉼을 제공하기 위해● 나그네들과 야훼 체험을 나누기 위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심은 에셀(עֵשֶׂל)나무의 특징



- 에셀 나무는 사철 푸르며 꽃이 피고 사막에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준다.
- 앞에서 **염분을 분비**하며 이슬이 맺히면 햇살에 염분이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인다.
- 햇볕에 수분이 증발되기 시작하면 나무 아래쪽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기류가 형성되어 나무아래에 앉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한다.



에셀나무와 꽃



에셀나무 꽃



에셀나무에 맺힌 이슬

언약의 **אֱלֹהֵינוּ** 하나님

베리트

엘

지극히 **אֱלֹהֵינוּ** 하나님

높으신

엘르온

엘

보시는 **אֱלֹהֵינוּ** 하나님

로이

엘

들으시는 **אֱלֹהֵינוּ** 하나님

이스마

엘

전능한 **אֱלֹהֵינוּ** 하나님

샤다이

엘

영원한 **אֱלֹהֵינוּ** 하나님

올람

엘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본문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는 물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계약식에 관한 것입니다.
- 물은 침례와 깊은 연관이 있고, 계약식은 주의만찬과 연관이 깊습니다. 먼저 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예나 지금이나 근동지방은 메마른 사막 지역이어서 물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건설회사에 근무한 경험 있는 분의 말에 의하면, 사막이나 다름없는 광야라도 땅을 파면 물은 나온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사막아래에 거대한 호수가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만, 근동지방은 조금만 파 들어가도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가 없던 옛날에는 샘이 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 20세기가 석유분쟁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물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강을 둘러싼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사이의 물 분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1967년 이스라엘과 시리아간에 있었던 그 유명한 6일 전쟁도 물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시리아가 요르단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려 하자 이스라엘이 요르단 강의 수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골란고원을 점령해버렸습니다.
- 흔히 종교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펀자브(Punjab)지방 분쟁을 비롯해서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와 쿠르드족간의 무장충돌, 그리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 분쟁의 원인도 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 또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의 수단과 우간다를 상대로 댐 건설 등 치수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서쪽의 세네갈은 수도 다카르에 물을 대려고 **모리타니**와 국경을 이루는 **세네갈** 강에 운하를 건설하려다 양국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자 결국 이를 포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의 갠지스 강,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인더스 강,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그란데 강, **아프간과 이란** 사이의 헬만드 강,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카롤 강에서도 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에 댐을 건설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남한으로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유사시에는 댐의 물을 대량 방류하여 남한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물 분쟁지역



요르단강

간지스강

메콩강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시리아

터키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수단

우간다

중국

네팔

인도

미얀마

태국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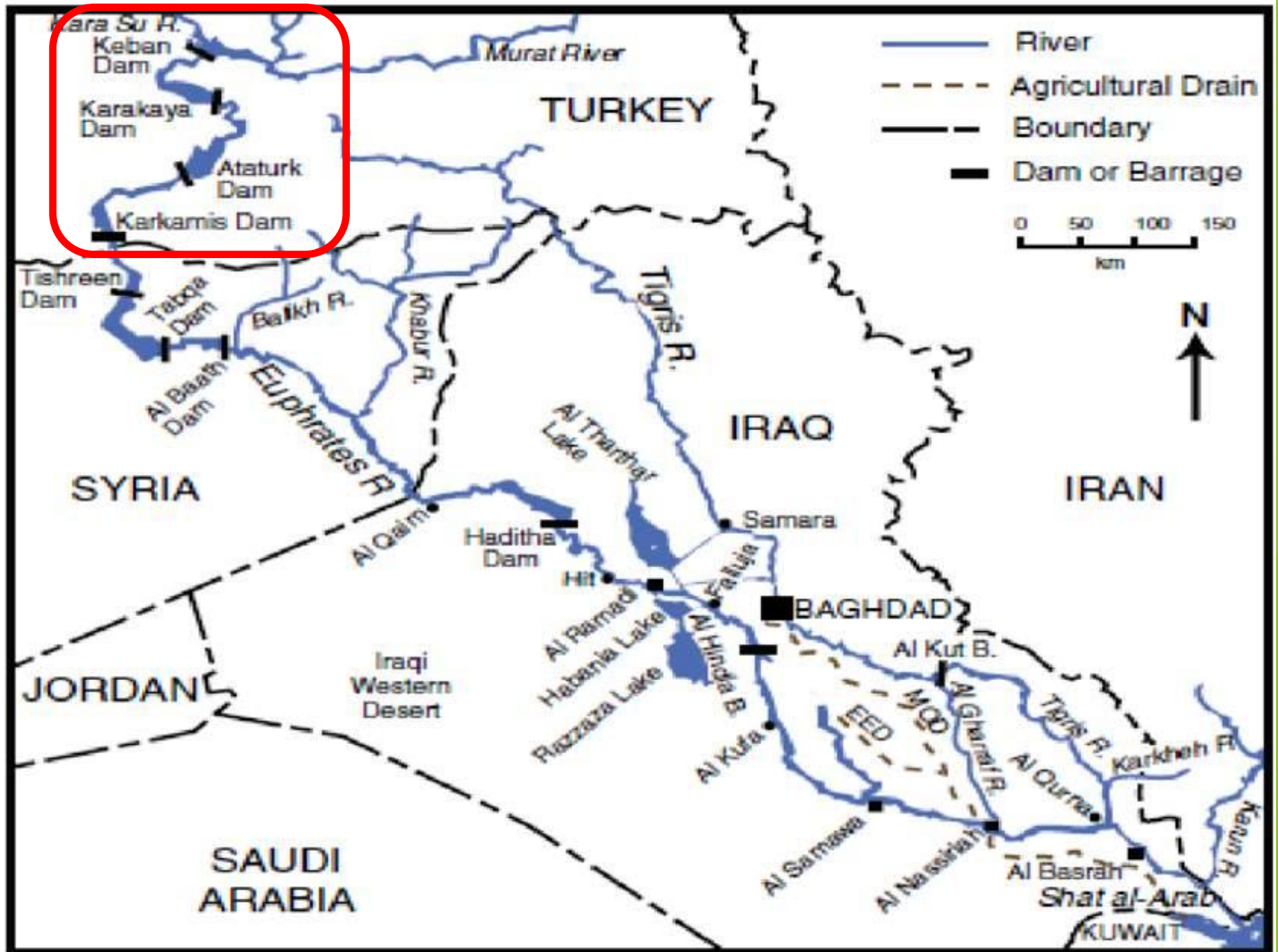
1981년에
착공된

아타튀르크 댐

튀르키예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 댐을
건설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라크에
심각한
물부족을
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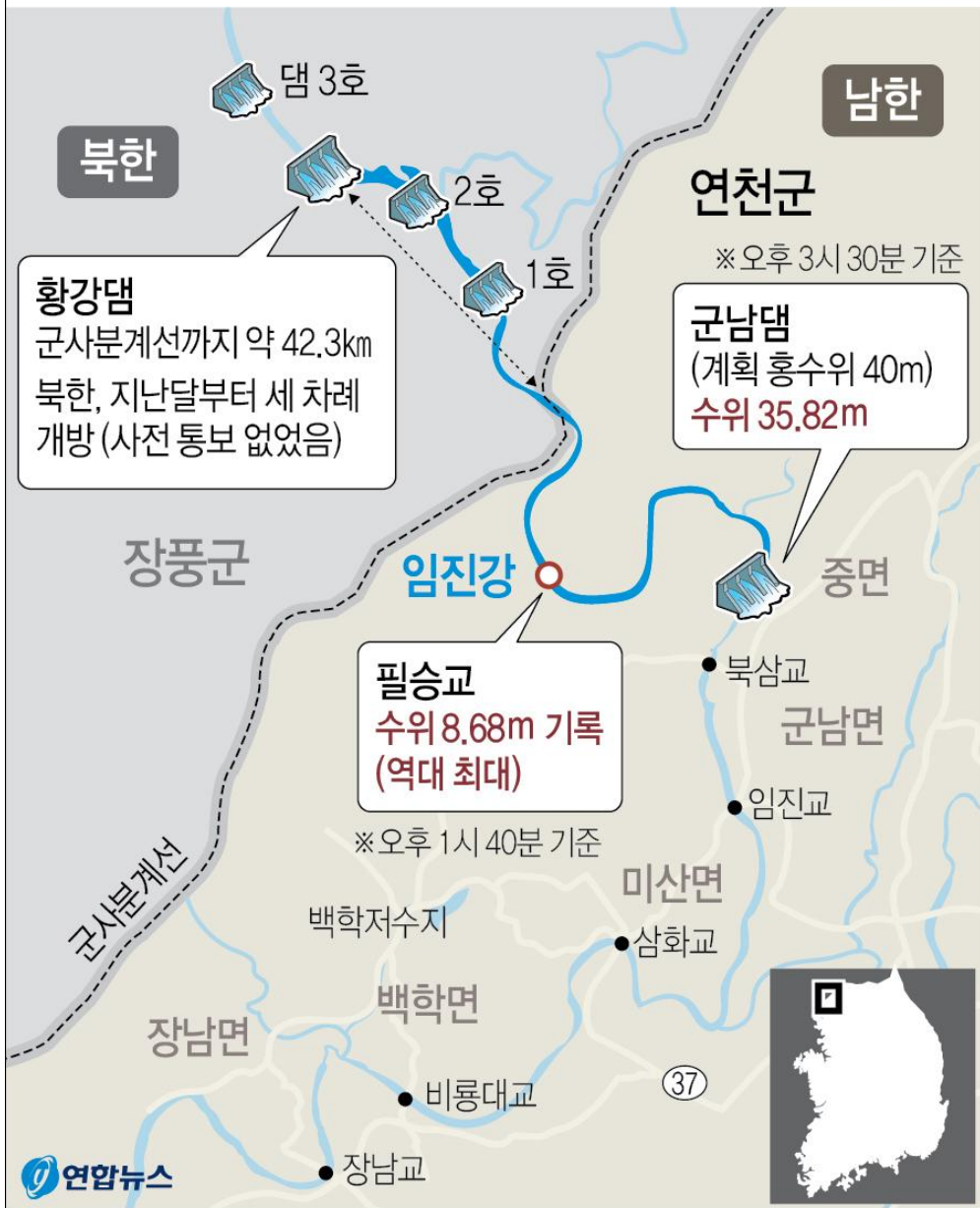
1981년에
착공된
아타튀르크 댐
튀르키예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 댐을
건설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라크에
심각한
물부족을
야기하였다.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의 나일강을 둘러싼 물분쟁 지역



임진강 필승교 수위 역대 최고치



이재윤 기자 / 20200805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북임남댐 방류



평화의 댐 증축공사는 2004년과 2012년에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반종빈 기자 20100919
yonhap_graphics@(트위터)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결국 창세기에 언급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의 물 분쟁은 근동지방의 물 분쟁역사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유난히 귀한 곳이다 보니까, 성경에는 물에 관한 언급이 매우 많습니다. 물이 생명수와 구원 또는 구세주에 비유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거처를 떠나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해 죽음에 직면했던 장면에서 보듯이, 박해시대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물을 구하지 못해 목마름에 절망하던 선배 신앙인들에게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계시록 7장 15-17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물이 귀한 사막에서 겪는 고통을 모르고서는 왜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당신의 백성에게 금은보석이 가득 든 보물 상자를 선물하시지 않고, 그 혼한 물을 선사하시겠다고 했는가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두 번째로 계약식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바울이 고린전서 10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하신 말씀이 물과 계약 식사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계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습속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출애굽기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공동식사를 통해서 평화 협정이나 협약 또는 계약체결을 인준하는 규정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창 26:30), 야곱과 라반이(창 31:54) 그러했고, 다윗과 아브넬이 그러했습니다(삼후 3:20). 쌍방간에 의견이 교환되고, 그것이 수용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공포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 창세기 26장 26-33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이삭**이 서로 상대방을 해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맹세에도 계약 식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창세기 26장 26-33절의 말씀은 본문말씀 창세기 21장 22-34절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31장 43-55절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아내들을 박대하거나 아내 이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지 않기로 언약하고 돌무더기를 쌓아 증거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떡을 먹습니다. 다윗과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무엘하서 3장 20절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자, 다윗이 잔치를 배설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 언약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계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계약의 백성으로 믿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야훼 한 분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며, 그들은 야훼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을 나누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침례식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우리가 흔히 쓰는 **구약과 신약이란 말의 뜻은** 다름 아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계약을 구약, 침례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바로 이 계약 체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창 21:33)고 하였습니다.
- **‘브엘세바’**는 우물을 뜻하는 ‘브에르’와 ‘맹세’ 또는 일곱을 뜻하는 ‘쉐바’로 이뤄져 있습니다. 따라서 ‘브에르 쉘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 **‘에셀나무’**는 사철 푸르며 꽃이 피고 사막에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염분을 분비합니다. 햇볕에 수분이 증발되기 시작하면 나무 아래쪽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기류가 형성되어 나무아래에 앉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맹세의 우물 주변에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온 가족의 안식과 쉼을 위해서, 나그네들에게 음식과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그네들과 야훼 체험을 나누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고백한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로 **‘엘 올람’**이란 말로 ‘엘’은 ‘하나님’을, ‘올람’은 ‘영원’을 의미합니다. ‘올람’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 첫째, **‘올람’**은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고대’(6:4), ‘끝이 없는 시간’(왕상 9:5), 또는 ‘항상’(시 119:98)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둘째, **‘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본 절에서와 같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성’(대하 7:3) 등과 같은 표현에 쓰입니다.
-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한 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즉 14장 2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엘 엘르온’**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였고, 17장 1절에 따르면, **‘엘 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체결한 후에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돌봐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엘 올람’** 곧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과의 계약관계를 맺고, 주의 만찬인 계약식사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있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하나님께서 2025년 내내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 May God Walk With You All Through 2025!



창세기 21-22장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 [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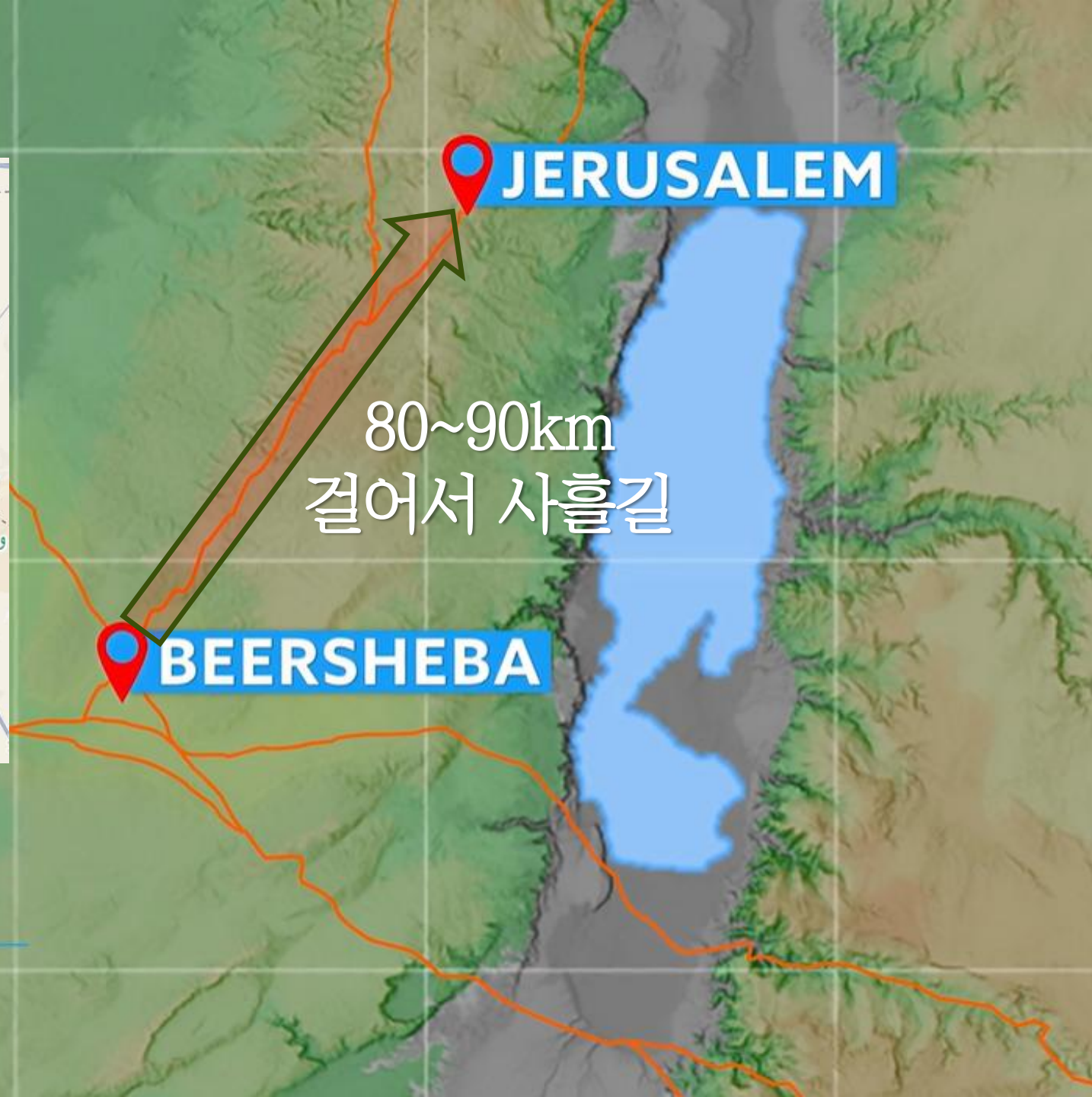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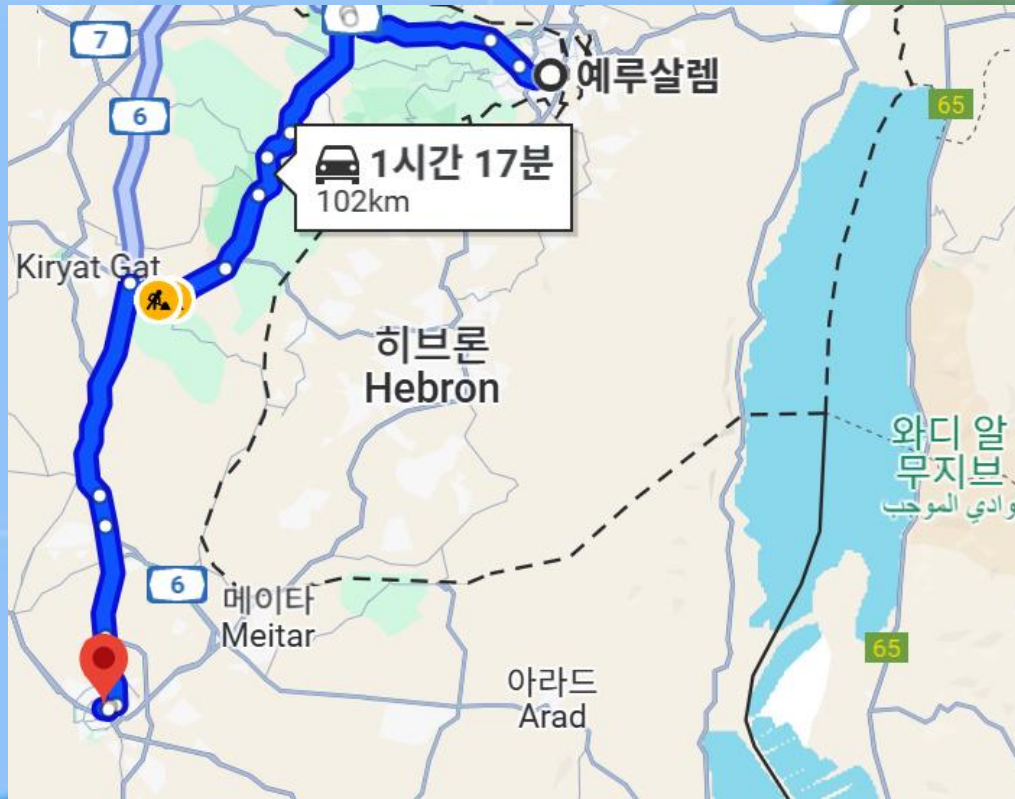
[20]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21]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4]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

언약의 **אל בְּרִית** 하나님
 엘 베리트

지극히 **אל עֲלִיוֹן** 하나님
 엘 엘르온

보시는 **אל רֹא** 하나님
 엘 로이

들으시는 **אל יְשַׁמְעֵאל** 하나님
 엘 이스마

전능한 **אל שַׁדַּי** 하나님
 엘 샤다이

영원한 **אל עוֹלָם** 하나님
 엘 올람

현현 **אל יהוה** 여호와
 하시는 **יהוה**
 이레 야훼
 전통적인 의미: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대속(代贖)의 양의 예표(그림자, 모형)

그리스도인들만이 고백하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요 1:18)

μονογενής Θεός

모노게네스

떼오스

The only begotten God

모리아산:성전산(대하 3:1)
야훼(YHWH)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나타나신(Jireh:이레) 산



(창 22:14, 개정)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
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 22:14, 새번역)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곳 이름을 여호와이레**라고 하였다. 오
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 히, '아도나이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심)' 또는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

(창 22:14, 공동) 『아브라함은 **그 곳을 야훼 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야훼
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하고 말한다. / 칠십인역을 따랐다. 히브리어 본문은 "야
훼의 산에 장만되어 있다." 혹은 "야훼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Gn 22:14, NIV) 『So Abraham called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And to this day it is said,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It=a ram(숫양)?**

(창 22:14, KJV) 『And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Jehovah-jireh**: as it is said to this
day,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창 22:14, NKJV) 『And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The-LORD-Will-Provide** as it is
said to this day,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provided."』

“여호와 이레” יְהוָה יֵרֵאֵה

“주님께서 준비하신다/제공하신다”??

NAS/ESV/NRS/NIV “The LORD Will Provide”

וַיִּקְרָא אֲבָרָהָם שֵׁם הַמָּקוֹם הַהוּא יְהוָה יֵרֵאֵה

אֲשֶׁר יֹאמַר הַיּוֹם בְּהַר יְהוָה יֵרֵאֵה

야훼께서 나타나신(계시하신) 산

KJV “Jehovahjireh: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유대인
성경

JPS “Adonai-jireh: in the mount where the LORD is seen”

CJB “ADONAI Yir’eh: On the mountain ADONAI is seen”

“주님의 현현”

창세기 22장 1-3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나타나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창세기 22장 1-3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고 하였습니다.
-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하신 말씀에서 쓰인 ‘시험’이란 말은 각각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 전자의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사단의 시험처럼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시험=유혹, 시험=테스트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후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하신 말씀은 ‘연단’하시려고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연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단 받은 후를 위해서 친히 나타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여호와 이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케 하는 사단의 유혹과는 달리, 자질이나 능력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질을 몰라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 **연단이란** 용광로에 광석을 넣고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없애고 순전한 금속으로 제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 23:10)고 고백한 것처럼, 금이 섞인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녹인 후에 순금을 뽑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소중한 값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바울은 로마서 5장 3-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연단을 위한 시험을 만날 때에는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줄로 압니다.
- ‘모리아’ 땅 또는 ‘모리아’ (=야훼는 나의 스승?) 산은 ‘여호와와 계시’ 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이신 곳’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이곳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역으로써 **솔로몬 성전과 골고다 언덕이 있던 곳**입니다(대하 3:1). 아브라함이 거쳐하던 **브엘세바로부터 대략 80-9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도보로 사흘길)**입니다.
- 하나님께서 도보로 사흘길이나 되는 먼 이곳을 예배할 장소로 특별히 지명하신 것은 장차 세워질 솔로몬 성전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분부였을 것입니다.
- 예수님은 모리아(=야훼는 나의 스승?) 산에서 인류(이삭)를 구원 하시려고 대속의 (속죄양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본문 2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 예수님을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시하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예시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혹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이삭이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높임을 받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는 축복과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본문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난 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수고와 정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 아브라함이 도끼를 들어 장작을 쪼갤 때 느낀 심정은 자신의 마음이 쪼개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쪼개는 준비나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안 나온 것보다야 월등히 낫겠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한 것은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약속하시고 주신, 어렵고 귀하게 얻은, 정말 소중한 것을 당신께 바치라 했을 때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런 간단한 상식조차도 손에 무엇인가를 쥐었을 때에는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과 귀가 막혀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작은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큰 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손에 쥘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하게 아꼈던 외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를 달거나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신 분도 하나님시오,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았고, 거둬 가시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8절의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부활신앙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즘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 사단이 주는 시험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준다.”고 했습니다.
-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강도 높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의 차원을 한 계단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 14장 22절에서 **‘엘 엘르온’**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17장 1절에서 **‘엘 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21장 33절에서 **‘엘 올람’** 곧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아리’** 곧 ‘나타나신 야훼’ 혹은 ‘야훼의 현현’ 혹은 ‘야훼께서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제단에 놓고 그의 몸에 칼을 대려한 것은 그가 결코 무식했거나 잔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베풀 끝으로 밀리는 순간에서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나홀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형제관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동생'은 '형제'로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브라더' (brother)라는 영어 단어가 '형제'란 뜻이고, 형인지 동생인지를 구별하지 않듯이, 창세기에서 '동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크흐'** (אָח)라는 말은 형 동생의 구별이 없는 그냥 '형제'란 뜻입니다.
- '형제'란 말이 '동생'이란 말로 오역된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홀과 하란보다 항상 앞에 나오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나홀이나 하란보다 연장자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때문입니다.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나훔이 한 세대 더 위이고, 하란은 아브라함보다 두 세대가 위인 형들입니다.
- 성경에서는 중요 인물의 이름이 형제나 부부들 사이의 이름들 앞에 놓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이지만 항상 먼저 기록되고 있고(창 25:9; 대상 1:28),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것은 형들을 앞지르겠다는 아우들의 반란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비록 동생일지라도 그 이름이 항상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 20:16)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값진 신앙**입니다.
- ‘여호와와 이레’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 신부
(이삭과 리브가)

렘브란트, 1665,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이삭과 리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

창세기 23장 1-20절

[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헛수라.

[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헛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5] 헛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창세기 23장 1-20절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창세기 23장 1-20절

[9]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10] 에브론이 헛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헛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창세기 23장 1-20절

[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헛 족속이 듣는

창세기 23장 1-20절

-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러 모든 나무가
[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바위돔 모스크
쿠바트 아스 사크라

알 아크사 모스크
Al-Aqsa

바위돔 모스크(Dome of the Rock) 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삭을 바치려고 했던 너럭바위가 있다. 다윗이 그 터를 매입하였고, 솔로몬은 그 터를 지성소로 삼았다.

3중 구조 황금돔

목재

색유리

모자이크

대리석

The Rock
(Es-Sakhra)

내부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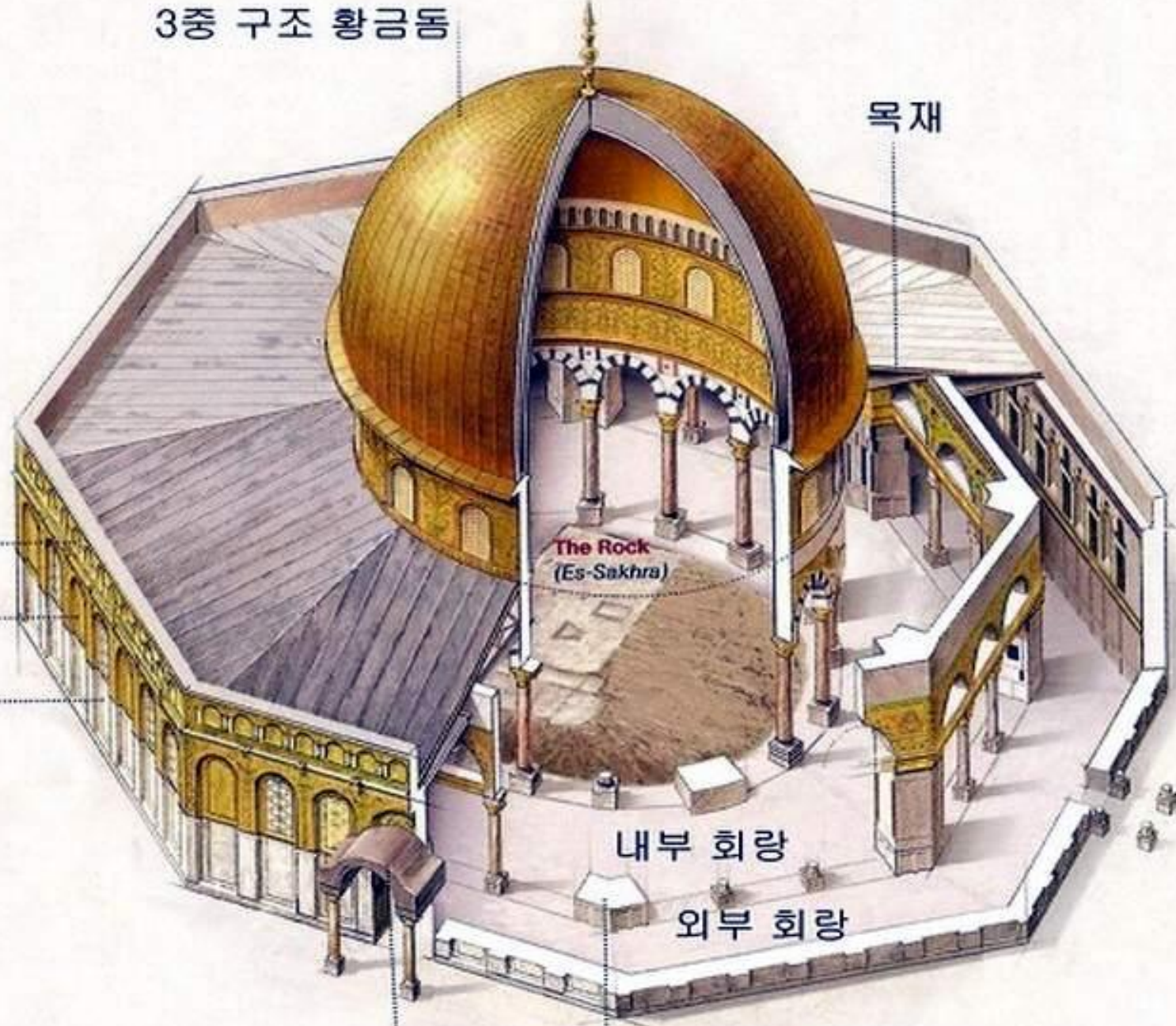
외부 회랑



157 ft
48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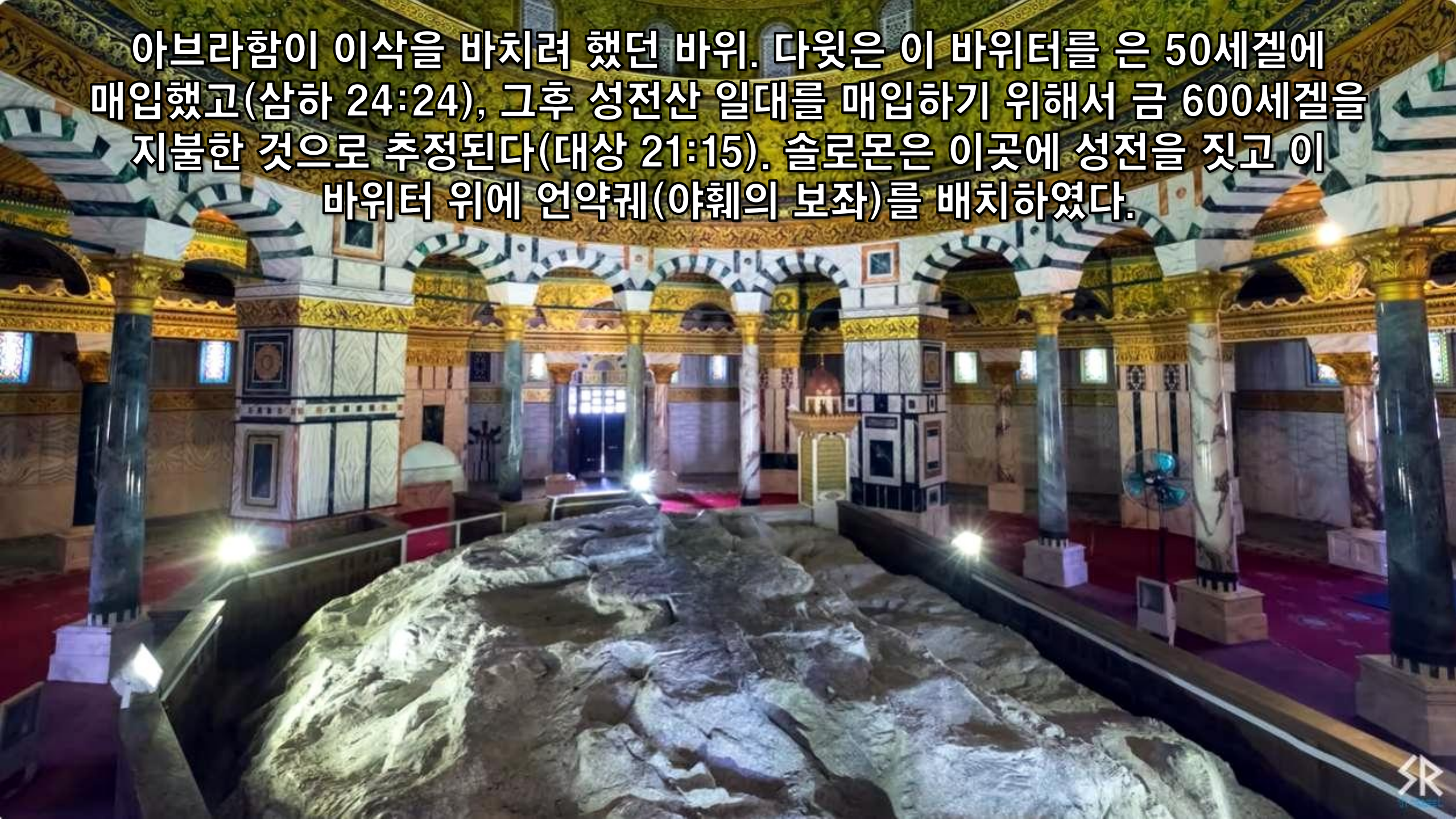
석재 현관

팔각형 아케이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위. 다윗은 이 바위터를 은 50세겔에 매입했고(삼하 24:24), 그후 성전산 일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금 600세겔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대상 21:15).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짓고 이 바위터 위에 언약궤(야훼의 보좌)를 배치하였다.



일부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아담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또 무슬림들은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장소이고,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라고 믿는다.





Sea of Galilee

Shechem

Shiloh

Bethel

Jerusalem

Bethlehem

Dead Sea

Hebron

헤브론
해발 930M
과일 생산지

헤브론은 서안지구
곧 팔레스타인 통치
구역 안에 있다.



West Bank
(서안지구)

Ramallah (라말라)

Jerusalem (예루살렘)

Bethlehem (베들레헴)

Hebron (헤브론)

Gaza
(가자지구)

Israel
(이스라엘)


Jordan
(요르단)

Oaks of Mamre

마르레
상수리나무

Caves of Machpelah

막벨라 굴

An aerial photograph of the city of Hebron, showing a dense urban landscape with a mix of modern and traditional buildings. A winding road or path is visible through the city. Two callout boxes with black backgrounds and white text are overlaid on the image. The first box, labeled 'Tel Hebron', points to a specific area in the upper-middle part of the city. The second box, labeled 'Caves of Machpelah', points to a building complex in the lower-middle part of the city. The sky is clear and blue.

Tel Hebron

**Caves of
Machpelah**



막벨라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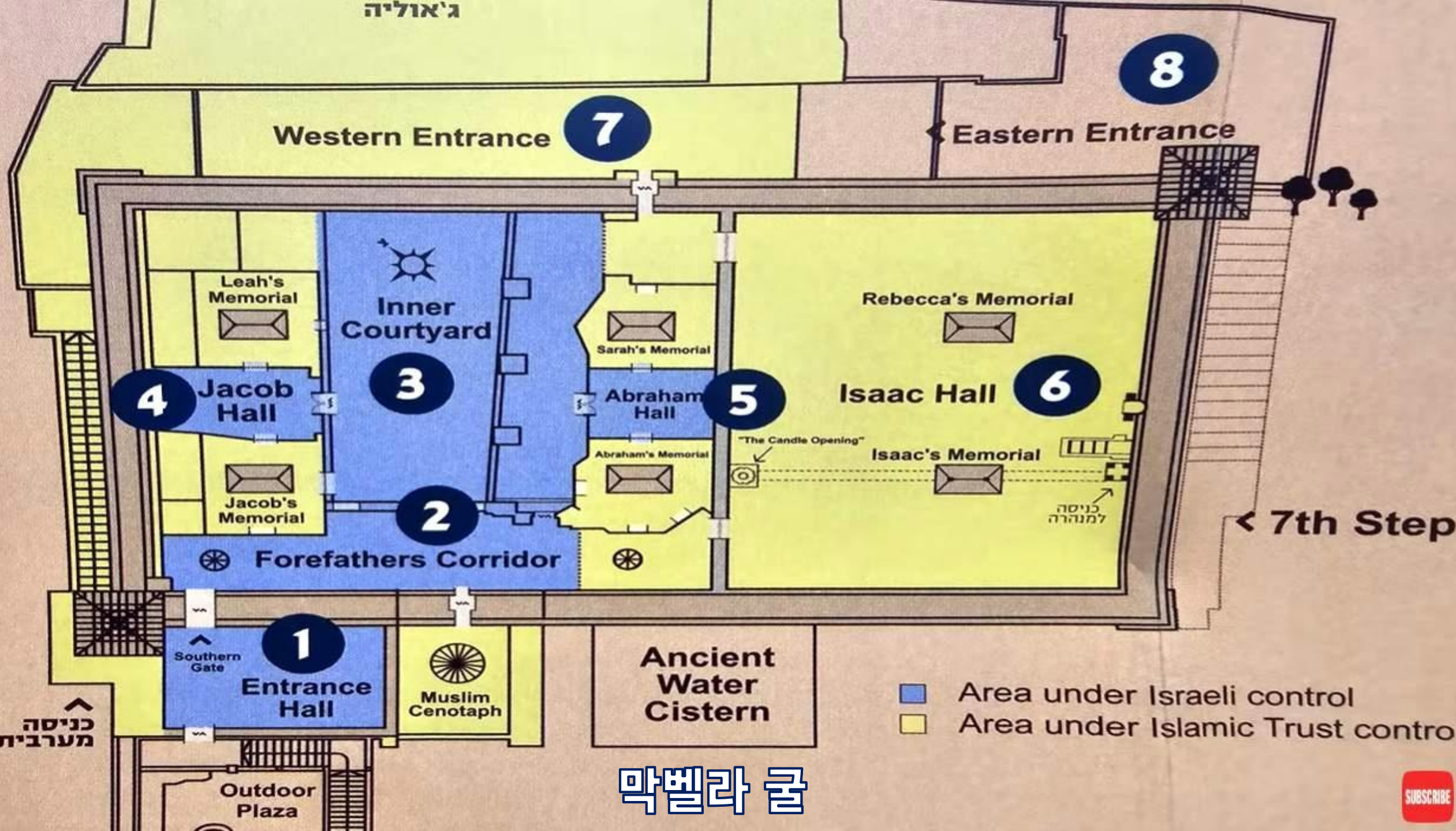


**Muslim
Side**

**Jewish
Side**

막벨라 굴

ג'אוליה



Western Entrance 7

Eastern Entrance 8

Leah's Memorial

Inner Courtyard 3

Sarah's Memorial

Rebecca's Memorial

Jacob Hall 4

Abraham Hall 5

Isaac Hall 6

Jacob's Memorial

Abraham's Memorial

Isaac's Memorial

Forefathers Corridor 2

"The Candle Opening"

כניסה למנוחה

< 7th Step

Southern Gate 1 Entrance Hall

Muslim Cenotaph

Ancient Water Cistern

■ Area under Israeli control
■ Area under Islamic Trust control

כניסה מערבית

Outdoor Plaza

막벨라 굴



ORIGINAL - Time of Avot
תקופת האבו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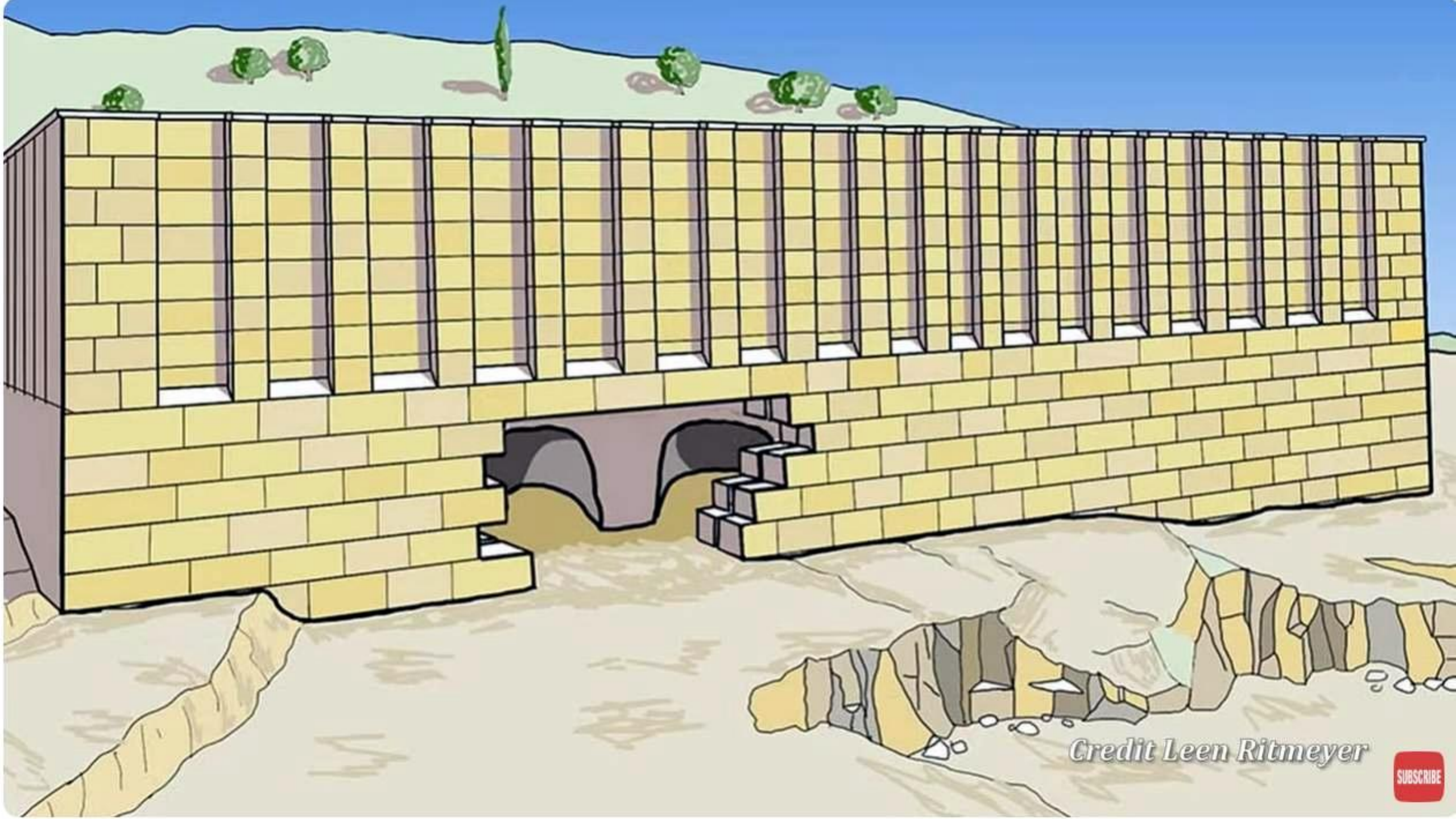
2nd Temple-era
תקופת בית-שני



השמוני / הרודיאני
34 meters







Credit Leen Ritmeyer







막벨라 굴로
내려가는
원래 계단

Original St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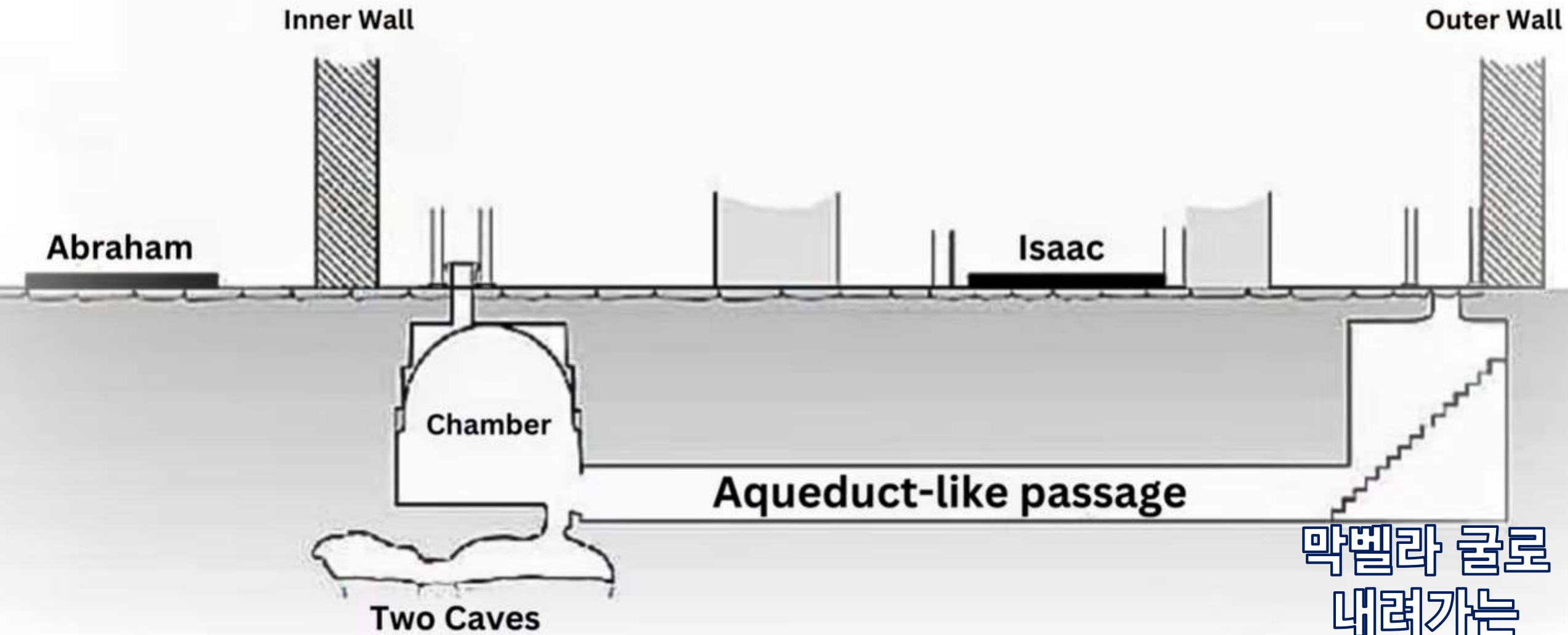
Down to Caves

 HolyLandSite.com

SUBSCRIBE



막벨라 굴로
내려가는
원래 계단



막벨라 굴로
내려가는
원래 계단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아브라함은** 75세 무렵에 가나안에 입국하여 사라가 별세할 때까지 62년간 가나안 땅에 살았으나 떠돌이 유목민이었다. 아브라함의 사회적 신분은 “나그네(גַּר גֵּר, **외국인**)와 거류하는 자(גֵּר יָרֵךְ, 토샤브, **방문객**)”였다.
- **세겔은** 11.4g에 해당되는 무게 단위이다. 은 400세겔은 4.56kg에 해당된다. *예수님 당시 1세겔=4데나리온=4일치 노동자 임금, 400세겔=1600일 곧 5년 3개월 치 정도의 노동자 임금에 해당.
-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30km 지점에 있는 해발 930M 고도로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포도와 다양한 과일들이 재배되는 특산지입니다.**




헤브론의 포도원



헤브론의 과일들

모세가 파송한 히브리 정탐꾼들이 헤브론의 에스골(אֶשְׂכּוֹל = 송이) 골짜기에서 베어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뗏을 법한 거대한 포도송이



A huge cluster of grapes grown in Pescaria, Italy, set a Guinness World Record in 2020 as the heaviest bunch of grapes, weighing an astonishing 10.68 kg (23.56 lbs).



길이 51cm, 둘레 87cm, 무게 6.7kg의
포도송이 우크라이나 2017년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모세가 보낸 정탐꾼이 이곳 에스콜 골짜기에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따서 두 사람이 떼고 돌아온 곳(민 13:23)이기도 합니다.
- 헤브론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고, 다윗이 즉위하여 수도로 정했던 곳(삼하 2:11)이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봉화를 치켜들었던 곳(삼하 15:7)이기도 합니다.
-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헤브론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으로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감화력과 처세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첫째, 아브라함의 감화력은 수신제가(修身齊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사라의 남편으로서 한평생 나그네의 길을 함께 걸었던 부인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몇 차례나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들의 후처가 되는 것을 바라만 봤던 아브라함이었는데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을 전혀 의심치 않았던 이유와 사라가 아브라함을 믿고 곧세게 따랐던 이유를 이 글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가족을 향한 아브라함의 감화력은 그의 진심어린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 1998년 12월 12일(토) KBS '역사스페셜'에서 방영됐던 **“조선판, 사랑과 영혼 - 400년 전의 편지”**에 진한 부부의 사랑이 묻어 있어서 소개합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기슭에서 주인모를 무덤 한기의 이장 작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발견된 **전혀 썩지 아니한 419년 전 판**에서 당대의 사회상을 말해주는 여러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띈 것은 한지에 빼곡하게 쓴 **한글 편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이 편지는 젊은 아내가 남편 **이응태**가 죽자 장례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에 쓴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지아비에 대한 아내의 그리움이 사무치게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이야기가 다 그랬겠습니까만 **수백 년의 세월동안 남편의 무덤을 지켜온 이 편지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 왔었나요?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 이 편지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현대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부사이의 평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 이 편지와 당대의 다른 증거들은 이응태와 그의 아내가 살았던 임진왜란(1592-1598) 직전인 1580년대 조선시대는 법적 제도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재산의 균분상속 그리고 제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여성들은 법적 경제적으로 비교적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 이것이 부부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감정표현에 솔직할 수 있는 토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평등한 남녀 관계를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또 존중할 수 있었던 시대, 이것이 이응태 부부가 살았던 조선중기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강력한 감화력은 이렇듯 진심 어린 사랑과 바른 인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응태가 죽은 후 **두 차례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리학이념이 강화되면서 여성들은 점차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 **둘째, 아브라함의 감화력은 그의 겸손한 처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5-11절을 보면, 사라의 매장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상대방에게 취한 행동은 자신을 낮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며 6절에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라고 말했던 감화력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여기서 ‘방백’은 ‘우두머리’나 ‘왕’을 뜻하며, ‘하나님의 방백’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임명하신 자’란 뜻입니다.
-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아브라함은 실제로 여러 족속들로부터 왕족과 같은 인정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최대의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7절과 12절의 “몸을 굽히고”와 8절과 9절의 겸손한 태도가 이를 입증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우리는 자칭 ‘선민’ 우월주의자들의 폐쇄성이나 교만과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아브라함은 상당한 재력가요 명망가였을 뿐 아니라 그 땅 거민 조차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일컬어 “내 주여”(6, 11, 15절)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6절)이라고 호칭한 데서 그런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습니다(7절).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약자가 강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강자가 약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 인격과 덕망이 갖춰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 이런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높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의 겸손은 겸손의 극치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겸손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를 밟고 올라서려 하는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겸손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욱 높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 하늘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칭송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셋째, 아브라함의 감화력은 그의 공정한 거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입할 때 분위기로 보아서 거저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의 강권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그 굴을 자신의 정당한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공정한 삶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규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밭을 아내의 매장지로 팔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 제의에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거저 주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암시되어 있듯이 이미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적지 않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그동안 베풀었고, 헷 족속 또한 그 보답으로 기꺼이 그 땅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상대방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하고 당시 시세대로 땅값을 치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모범을 보였고, 헷 족속 중에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었고, 세상에 대하여 감화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라고 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실하고 겸손하고 공정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헷 족속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 **이것은 교회생활과 실제생활이 표리부동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을 이상세계에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함으로써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명백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진실하고 겸손한 인격과 공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위를 세상에 들어내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 신부
(이삭과 리브가)

렘브란트, 1665,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이삭과 리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

창세기 24장 1-67절

-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 [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으라.
- [3]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 [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세기 24장 1-67절

[5]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창세기 24장 1-67절

[8]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10]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다.

창세기 24장 1-67절

[12]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창세기 24장 1-67절

[15]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형제**(אָח)

[16]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땀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7]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창세기 24장 1-67절

[19]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걷는지라.

[21]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23]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창세기 24장 1-67절

[24]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25]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짚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26]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형제

창세기 24장 1-67절

[28]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29]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 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31]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창세기 24장 1-67절

[32]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짚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34]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36]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창세기 24장 1-67절

[37]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39]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쭙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40]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창세기 24장 1-67절

[41]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없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없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2]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43]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창세기 24장 1-67절

[44]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으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5]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길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46]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창세기 24장 1-67절

[47]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누 딸이나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48]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9]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창세기 24장 1-67절

[50]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3]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창세기 24장 1-67절

[54]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5]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험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창세기 24장 1-67절

- [57]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9]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61]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창세기 24장 1-67절

[62] 그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63]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4]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66]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창세기 24장 1-6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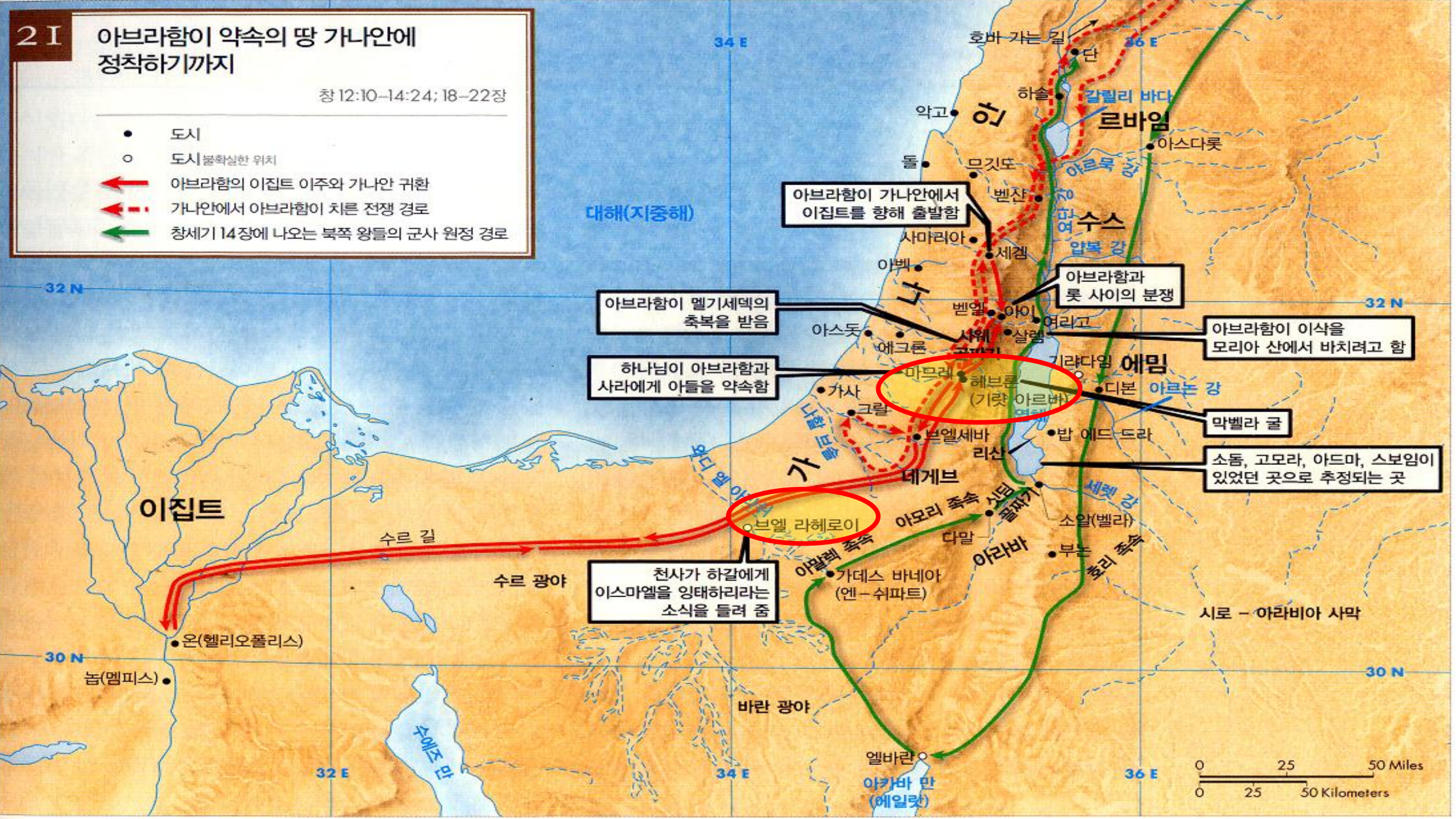
[67]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 사라는 이삭이 37세 때에 별세하였다(23:1).
-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때는 (3년 상을 치른 후인?) 40세 때였다(25:20).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창 12:10-14:24; 18-22장

- 도시
- 도시 불확실한 위치
- ← 아브라함의 이집트 이주와 가나안 귀환
- ←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 경로
- ←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북쪽 왕들의 군사 원정 경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향해 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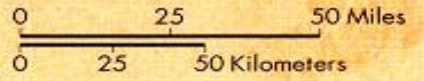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분쟁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함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

천사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려 줌

시로 - 아라비아 사막



“브엘라해로이”의 뜻과 현 위치(사진)
“나를 보시는 살아 계시는 분의 샘”

로이 라하이 베에르

בְּאֵר לַחַי רֹאֵי

샘 살아계신 분 보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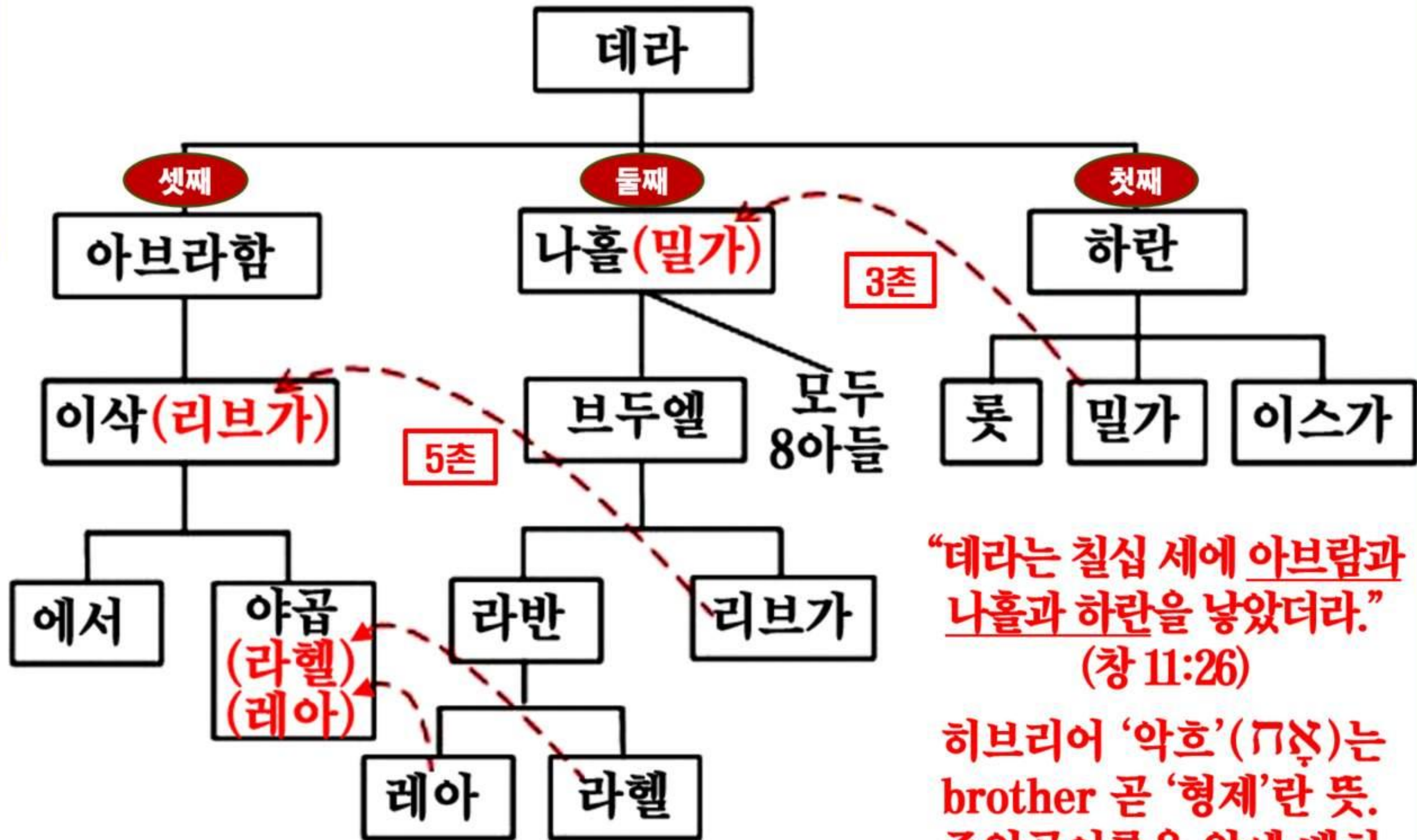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거리 한 쌍의 현 시세

-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 5.7g = 약 1.5돈
-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 114g = 약 30돈
- 세겔의 무게는 대략: 11.4g
- 골드바 10g의 **현 시세**: 1,328,473원
- $5.7g + 114g = 119.7g \times 132,847.3 =$ **현시세로**
금값만 약 1천6백만원 (코걸이+팔찌세트=약2천만원)

(당대 630일 품삯)

- 그 밖에 많은 은금패물과 의복
-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예물은 **현시세로**
약 3천만원 정도





“테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창 11:26)

히브리어 ‘악흐’(אָח)는 brother 곧 ‘형제’란 뜻. 주인공이름을 앞에 배치.

아브라함, 나훔, 하란의 출생순서

- 창세기 11장 26절을 액면 그대로 읽을 경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출생하였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창 11:32).
-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창 12:4). 이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가 데라의 나이 145세 때입니다.
- 그러나 스테반의 증언(행 7:4), 곧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135세에 하란을 떠난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 나훔, 하란의 출생순서

- 데라가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을 70세에 출생했기 때문입니다(205-70=135).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내용이 불일치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훔과 하란을 낳았다(창 11:26)고 해서 또 아브라함이 맨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이지만 항상 먼저 기록되고 있고(창 25:9; 대상 1:28), 모세도 아론의 동생이지만 모세가 항상 아론보다 앞에 언급됩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출생순서

-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출생하였다고 했지만, 세 아들을 한꺼번에 낳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란이 장자였고,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하란이었습니다.
- 나홀의 아내는 하란의 딸이었고, 하란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과 나이가 거의 같았을 것입니다.
-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홀의 손녀와 결혼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75세에 떠났고(창 12:4), 데라는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습니다(205-75=130).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출생순서

- 우리말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홀의 형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창 22:20, 23; 24:15, 27, 48), 이것은 ‘형제’(brother אָח)라는 말을 ‘동생’[개역, 새번역, 공동, 가톨릭]으로 잘못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바른, 한글킹, 킹흠정]에서는 “동생”을 “형제”로 바로 잡았습니다.
- 형제라는 말이 동생이란 말로 잘못 번역된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홀과 하란보다 앞에 언급되었고, 앞에 언급된 인물이 연장자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때문입니다.

- 나이 차가 크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감안했을 때 아브라함과 하란의 나이차이는 20년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 아브라함이 나홀보다 10년 이상 어린 **동생**이었다는 가정하에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나이 50세 즈음에 각각 **이삭과 이삭의 5촌 조카 라반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을 것이다.**
- 라반과 리브가의 나이차이가 크게 느껴지므로 이삭의 20세 즈음에 리브가가 태어났다면, **이삭이 40세였을 때 리브가는 20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브라함의 고향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신 26:5)

Abraham's Servant Finds Isaac a Wife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 '엘리에셀' (אֱלִיעֶזֶר)의 뜻 "나의 하나님은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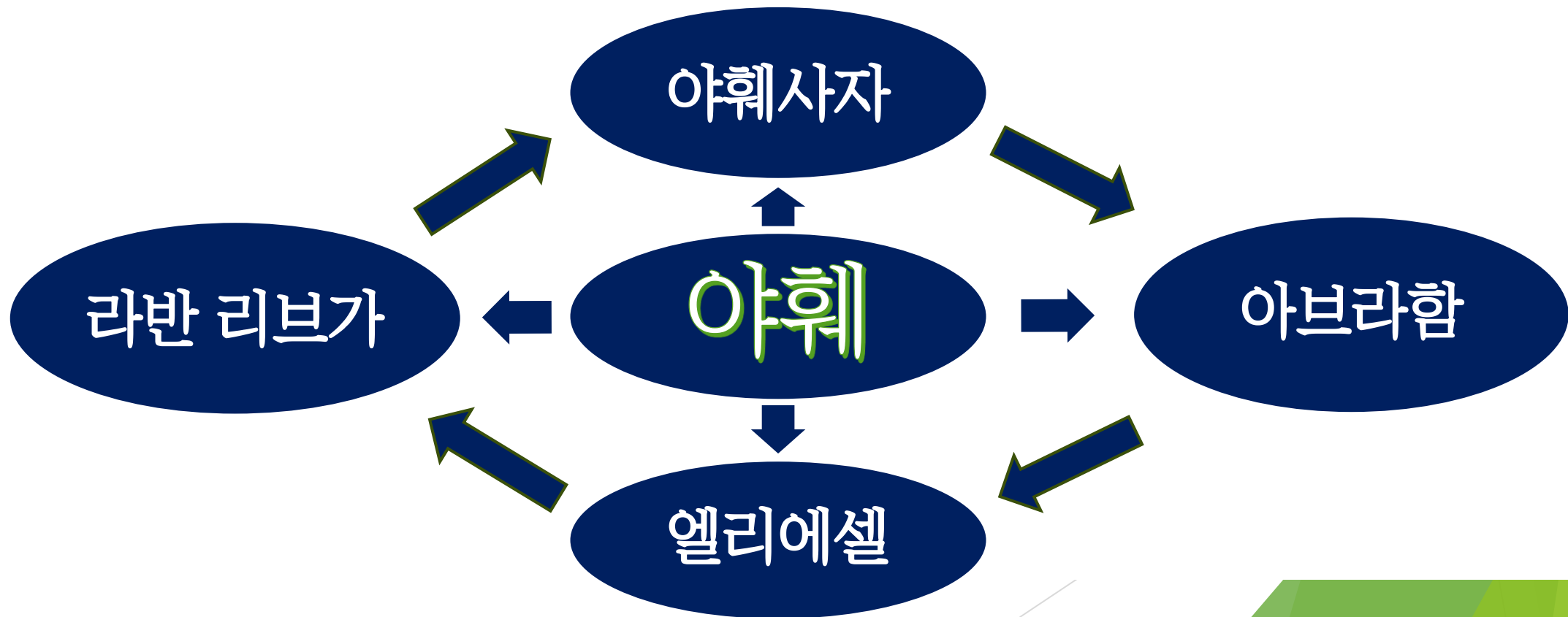
신앙과 혈통을 지키라

-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 역사기록에는 **‘사실’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23장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후 4천년 역사 가운데 3천년을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 그리고 24장에는 **떠돌이 소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교훈은 **야훼신앙을 보존하라**는 것이고,
- 두 번째 교훈은 **민족혈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 세 번째 교훈은 **매일 세 번 기도회로 모이고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없이 3천년을 떠돌이로 산 소수 민족으로서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혈통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 이것을 **역대기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멀리 고향 하란으로 보내서 **신앙과 혈통이 동일한자들 중에서** 이삭의 부인이 될 여성을 데려오도록 했던 것인데, 그 스토리에 **민족의 생존에 관한 교훈**이 담긴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
'엘리에셀'(אֱלִיעֶזֶר)의 뜻
“나의 하나님은 도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과 협력하여 선(보기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창세기 24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만남과 부부로서의 새 출발은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 등장인물들이 협력하여 일궈낸 작품입니다. 등장인물들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과 이삭 그리고 리브가와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있습니다. 이들이 협력하여 일궈낸 일은 이삭과 리브가를 부부로 엮는 혼사였습니다.
- 그러나 이들은 누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이 이뤄지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중앙처리시스템**과 같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솔하시고 지휘하시는 섭리를 보셨으면 합니다.
- **섭리란**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사는 **역사관**입니다. 이 우주의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와 같이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창세기 24장의 혼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이뤄진 일이란 사실을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고백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아브라함의 신앙고백입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범사에 복을 주신 분’**(1절)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3절)으로 고백하였고, 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먼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고, 이제 그 땅을 자기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자신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앞서 고향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간택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7절)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사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40절의 엘리에셀의 고백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음** 가운데 가장 귀한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굳세게 믿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어 일의 결말을 궁극적으로 형통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둘째, 엘리에셀의 신앙고백입니다.**
-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삭의 배우자를 순전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12-14절).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큰일과 작은 일에 모두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26-27,48절).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기도를 들어주심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개입과 관여를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음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만한 기도입니다. 이런 신앙고백적인 기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 셋째, 라반과 브두엘의 신앙고백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라반과 브두엘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이 있었는가라는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에게는 ‘드라빔’이라 부르는 일종의 우상이 있었습니다(19,30절). 그러나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 행한 기도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서 얻으려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포함해서 그의 친인척들의 신앙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야훼 하나님의 신앙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실제로 50-51절에서 라반과 브두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심치 않고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삭의 혼사에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등장인물들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땅의 모든 일에 미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기도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이뤄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된 것임을 알아서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결정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협력하여 선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일들은 숙명처럼 반드시 이뤄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와 같이 인간의 결단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성취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의 일과 인간의 뜻의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려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 일을 성취할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하심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라반과 브두엘이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아브라함의 뜻을 받들게 된 엘리에셀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 부인을 맞이할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 리브가 역시 친절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에셀에게 보인 친절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따라서 리브가는 그가 베푼 친절에 대한 보상을 툇툇히 받았습니다.
- 라반과 브두엘 역시 믿음으로 모든 일을 받아드렸습니다.
- 이로써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혼사가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와 신앙인들의 기도와 겸손과 수고로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과 협력하면 선(보기 좋은 결과)이 이뤄집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합시다.

유대인 신부
(이삭과 리브가)

렘브란트, 1665,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이삭과 리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

창세기 25장 1-18절

- [1]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 [2]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 [3]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앗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 [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 [5]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 [6]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창세기 25장 1-18절

[7] 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8]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9]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25장 1-18절

[12]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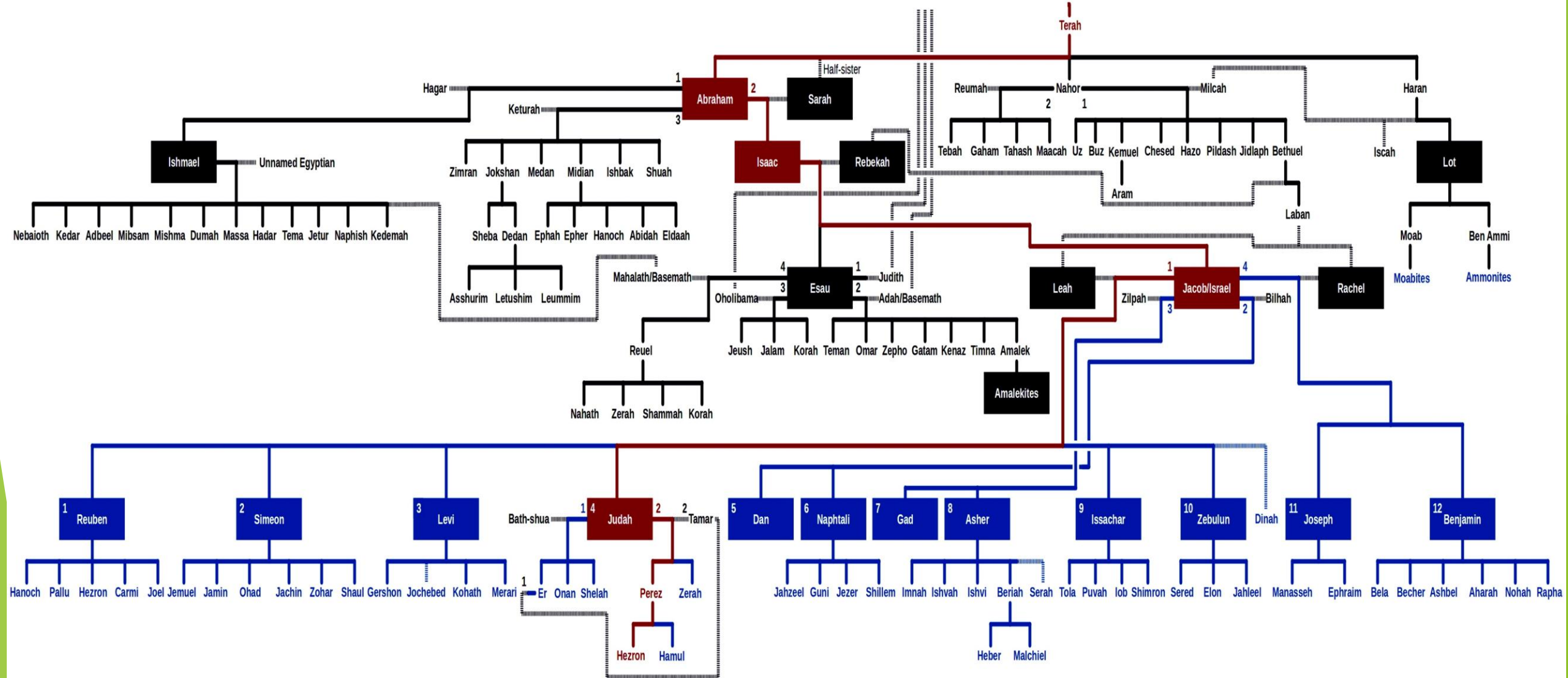
[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창세기 25장 1-18절

[17] 이스마엘은 향년이 백삼십칠 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18]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가계 (GENEALOGY OF ABRAHAM)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민족과 아랍민족의 족장들이며,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부족장들이다. 이스라엘은 부족동맹으로 시작되어 사울, 다윗, 솔로몬 때 통일왕국을 이뤘다가 솔로몬이 사망한 직후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한 땅(창세기 10장, 25장)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는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2-3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 두 지도자들이었더라(13-16절).”

תולדות תולדות

톨레돏

— 족보 —

- **‘톨레돏’**이란 단어는 ‘자손, 세대, 기원, 계보’ 등을 뜻하는 ‘톨레다’(תולדות)의 복수형으로써 구약성경에 총 39회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낳다’라는 히브리어 ‘알라드’(אלל)에서 파생됐다.
- 창세기에서 **‘톨레돏’**은 한 가정의 시작에서 우주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를 담고 있다.** 구약성경은 그러한 내용을 총칭하여 ‘족보’라 표현하고 있다.

תולדות תולדות

톨레돏

— 족보 —

- 창세기 족보의 이면에는 인간(피조물)의 한계 곧 죄와 허물을 보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야훼신앙의 계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창세기의 족보에는 족장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 창세기의 족보에는 **‘사실’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창세기의 족보에는 **떠돌이 이스라엘 민족(Wandering Jews)의 생존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
- 첫째, **야훼신앙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 둘째, **민족혈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 셋째, **매일 세 번 기도회로 모이고 흠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고, 아브라함이 **야훼의 약속**으로 믿고 가슴에 품었던 **‘그 희망’(Ha-Tikvah)**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ZION



시온니즘 깃발과
Naftali Herz Imber의 시
'하티크바' (19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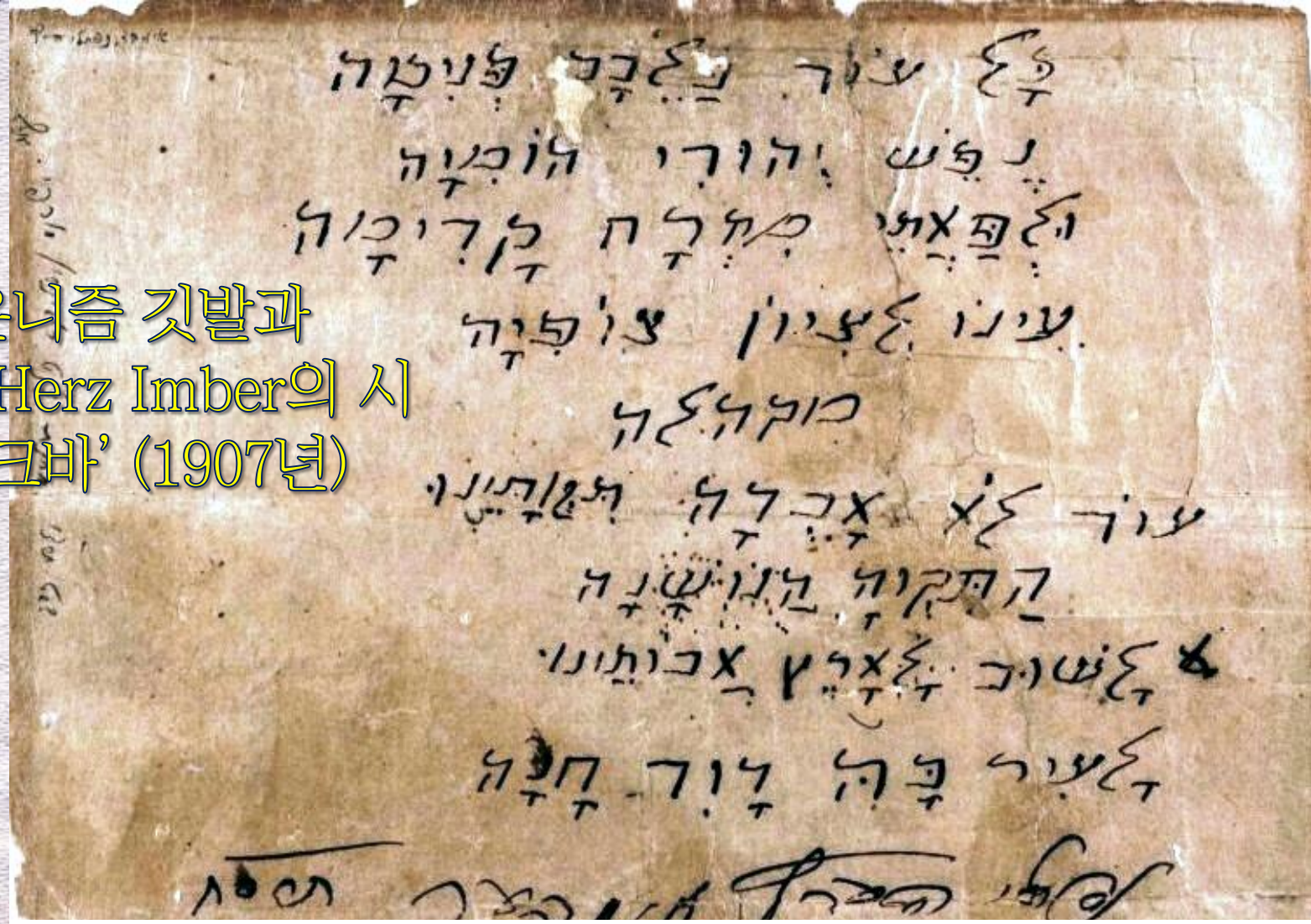
HATIKVAH (THE HOPE)



O while within a Jewish breast
Beats true a Jewish heart,
And Jewish glances turning
East,
To Zion fondly dart.



Ha-Tikvah 한글 자막



[번역]유대인의 마음 속 내면에서 영혼이 여전히 갈망하는 한,
그리고 동쪽 끝자락을 향해서 여전히 시온으로 눈이 향하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천년을 간직한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창세기 11장에서 처음 등장한 아브라함은 25장에서 175세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역시 파란만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죽음은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첫째,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여러 아랍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수메르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에블라문명의 중심지 하란에 잠시 거주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75세가 된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여 가나안 땅에서 175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100년 거주〉

- 그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끊임없이 길을 떠난 개척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안주를 거부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했던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옮겨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안주를 거부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옮겨가야 하는 구도자의 삶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신앙인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분리의 삶이요, 떠나는 삶입니다. **흑암으로부터의 분리, 혼돈으로부터의 분리, 죽음으로부터의 분리,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빛**으로, **질서**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가는 구도자의 삶이요, 천성을 향해 집중하는 삶입니다.
- **둘째, 아브라함의 삶은 믿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이 명령을 받은 것은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였을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이 명령은 세 가지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고향으로부터, 둘째는 친족으로부터, 셋째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한 배의 끈을 포구로부터 끊고 떠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간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 줄을 끊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여간한 모험심이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with only hope/Ha-Tikvah)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인간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토대이며 근거이자 기반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귀소본능을 가진 연약한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는 가장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에 버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 셋째, 아브람의 삶은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너럭바위 위에 제단을 쌓았고,
‘현현하시는 야훼’(여호와 이레)를 생생히 체험했다.
그후 이곳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터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계시하셨던 곳이니 제단을 쌓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와 일행이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정성이 대단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성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아랍민족들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일부 신학에서는 인간의 행위나 가혹한 노력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소치로 과소평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가상한 노력을 하나님이 마다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생각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식의 믿음은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대한
-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역사하는 힘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께 제단 쌓은 일에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권면대로 성심을 다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넷째, 아브라함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날로 깊어지는 삶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에게 나타나 장차 큰 민족을 이룰 조상으로 삼겠다는 축복을 주시고, 또 장차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 그리고 14장 22절에 가서는 이 하나님이 '엘 엘르온'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 15장 1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17장 1절에서는 '엘 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21장 33절에서 ‘엘 올람’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며, 22장 14절에 가서는 ‘여호와이레’ 곧 ‘현현하시는(보이시는) 야훼’ 혹은 ‘준비하시는 야훼’를 경험하게 됩니다.
-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보시는 하나님’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언제나 내리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부족한 자신과 언약을 체결해주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으로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사람들을 만나보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의 그 자족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신앙의 깊이를 더하여 그 깊고 새로운 맛에 매료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다섯째, 아브라함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생산치 못하는 사라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위적으로 이루려했던 충실치 못한 믿음에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 아브라함에게는 비겁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세력이 강한 이집트왕과 블레셋의 아비멜렉왕을 두려워하여 부인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실제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였다고는 하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 몇 차례에 걸쳐서 거짓을 말하고, 사라를 곤경에 빠뜨렸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도우시고 인정하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짓말을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한 벌은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가없이 대접할 만큼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절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겸손한 처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인물들에게 감화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품과 진실을 아셨기에 언제나 아브라함의 편에 서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성도님들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